

제23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한국YWCA연합회와 한국씨티은행이 협력하여 제정한 한국여성지도자상이 올해로 23회를 맞이합니다.
한국여성지도자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과 헌신으로,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데 공헌한 여성 리더를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에게 도전과 용기를 주시는 두 분의 수상자를 모시고 시상식을 개최하오니,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셔서 함께 축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한국YWCA연합회 회장 조은영



시상식

일정

- 일시 : 2025년 11월 20일(목) 오후 2시
- 장소 : 온드림 소사이터 / YOUTUBE 동시중계

수상자

- 대상 :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
- 젊은지도자상 : 문아영 ((사)피스모모 대표)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00여 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 02.774.9702

(사)강릉 033.651.1385	(사)대전 042.254.3035	(사)속초 033.635.3523	(사)의정부 031.853.6332	(사)춘천 033.254.4878
(사)거제 055.682.4950	(사)동해 033.531.3007	(사)수원 031.252.5111	(사)익산 063.857.8910	(사)충주 043.848.3240
(사)고양 031.919.4040	(사)마산 055.246.8746	(사)순천 061.744.7990	(사)인천 032.424.0524	(사)통영 055.646.2547
(사)광양 061.762.0012	(사)목포 061.242.1611	(사)안동 054.854.5481	(사)전주 063.224.5501	(사)파주 031.945.5998
(사)광주 062.609.1300	(사)부산 051.441.2221	(사)안산 031.483.6536	(사)제주 064.711.8322	(사)평택 031.651.7701
(사)군산 063.462.4491	(사)부천 032.668.9700	(사)안양과천군포의왕 031.455.2700	(사)제천 043.645.2580	(사)포항 054.274.4444
(사)김해 055.332.6000	(사)사천 055.833.2344	(사)양산 055.367.1144	(사)진주 055.755.3463	(사)하남 031.793.7771
(사)남양주 031.577.7762	(사)서귀포 064.762.1400	(사)여수 061.654.2161	(사)진해 055.542.0020	
(사)남원 063.632.7002	(사)서울 02.3705.6000	(사)울산 052.247.3520	(사)창원 055.283.9488	
(사)논산 041.736.7393	(사)성남 031.708.2503	(사)원주 033.742.6090	(사)천안 041.575.0961	
(사)대구 053.652.0070	(사)세종 044.865.2432		(사)청주 043.265.3700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한국YWCA

2025 AUTUMN 08+09+10 Vol.594

특집

한국YWCA정책협의회-공론장
2025 한국YWCA정책협의회 스케치
YWCA 정책협의
YWCA 공론장과 참가 후기
2026~2027 한국YWCA 운동 운영정책

기획

성평등한 기후정의운동
생태적 돌봄에 응답하는 우리
탈핵시만, 핵을 걷고 태양의 길을 걷자
1.5도 라이프스타일

이슈 포커스

안전한 공간, 세이프 스페이스
왜 지금, YWCA는 안전한 공간을 말하는가
안전한 공간은 진행형입니다

청년토크

우리에게, 잠시 머물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해요



www.ywca.or.kr



작은 목소리가 모여 큰 울림이 되는 공간

공론장은 우리 사회와 조직이 안고 있는 갈등과 복잡한 문제들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한 민주적인 과정입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를 경청하고 속고함으로써 우리는 단순한 타협을 넘어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찾아갑니다.

YWCA 공론플랫폼으로 디지털 환경에서도 YWCA회원과 시민이 함께 사회적 의제 숙의에 참여하고 해답을 찾아가입니다.

YWCA 공론플랫폼,

당신의 참여가 내일의 변화를 여는 시작입니다.



CONTENTS

Vol.594
2025 AUTUMN 08+09+10
www.ywca.or.kr

한국YWCA 목적문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5년 11월~12월 주요 일정

11월 1일	월례아침기도회
11월 5일	한국YWCA 주관 수요집회 수요시위
11월 10일	YW-YM 국제친선 및 세계기도주간 예배
11월 12일	썬크머니 20주년 국제포럼
11월 18일	비영리·공익법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국회토론회
11월 20일	제23회 한국어성지지도자상 시상식
11월 22일	고백(go-100)프로젝트 최종공유회
11월 27일	제4차 YWCA의료공론플랫폼
12월 10일	YWCA 성탄예배

제62권 제3호 통권 594호
2025년 11월 6일 발행(등록번호 마00096)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조은영 편집인 박은실
편집 안정희 이주영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사)한국YWCA연합회
디자인 아침열시디자인 인쇄 지경문화사
전화 02)774-0230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orea
구독료 연간 3만원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COVER STORY

2025 한국YWCA정책협의회 공론장이 열렸다. 한국YWCA정책협의회에서는 대화와 숙의에 기반하여 2026~2027 한국YWCA 정책을 협의하였다.



02
이달의 생각
시민운동의 전환기, YWCA가 가야할 길 이은영

03
말씀 묵상
공간에서 시작되는 평화 김종생

특집 | 한국YWCA정책협의회·공론장

04
YWCA정책협의회 스케치
연대하는 용기로 정의·평화·생명의 길 다시 걷다 편집실

06
YWCA정책협의회
2026~2027 정책수립과정, '민주성'과 '숙의'로 남궁혜경

10
2026~2027 한국YWCA 운동·운영정책(안)

12
YWCA 공론장
경청과 존중의 대화, 화합과 연대의 길 열어 안정희

15
YWCA 공론장 참여 후기
YWCA의 힘, 갈등을 넘어 대화와 화합으로
강류안 김룡희 김예리 박행우 심진실 조혜숙

기획 | 성평등한 기후정의운동

17
성평등 기후정의운동
성평등한 기후정의 시대를 향해, 생태적 돌봄에 응답하는 우리 박다정

20
탈핵 에너지정의운동
탈핵시민, 핵의 위험을 걷고 태양의 길을 걷자 이영경

23
기후정의 생활실천운동
1.5도 라이프스타일, 아직도 유효한가? 김병권

26
보고기
오늘의 싱가포르YWCA를 만든 150년의 전략과 실천 유은비

이슈 포커스 | 안전한 공간 세이프 스페이스

29
왜 지금, YWCA는 안전한 공간을 말하는가 김수진

31
안전한 공간은 진행형입니다 조은정

34
줌:인 | 제3차 YWCA의료공론플랫폼
지역의료, 공론장을 넘어 새로운 시도로! 고병정

37
교육현장을 찾아 | 2025 YWCA 중견실무활동가교육
YWCA안에서 하나인 우리 최유주 천미옥 안소진

40
한국YWCA 청소년 금융·경제교육 20주년 국제포럼
포용적 금융사회를 향한 20년, 함께 걸어온 20년

41
현장 ❶ | 제2차 YWCA 전국사무총장협의회
지역의 고통을 나누는 지속가능한 YWCA 김미애

44
현장 ❷ | Y-틴 드림십
동부팀, 기후와 우정으로 잇는 청소년들의 향해 황유림
서부팀, 자연 속에서 배우고 행동으로 실천한 Y-틴의 여정 조아라

48
현장 ❸ | 9.27 기후정의행진
기후정의로 광장을 잇자 손지수

51
의료와 AI
인공지능 기술이 이끌 미래의료 서준범

54
청년토크
우리에게겐 잠시 머물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해요 대학·청년YWCA

56
책소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묵인 비영리·공익법인』

57
연합회 소식

62
회원YWCA 소식

시민운동의 전환기, YWCA가 가야할 길

오늘날 우리 사회의 시민운동은 새로운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사회적 양극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전통적인 시민운동의 영향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빠른 정보 확산과 개인화된 소통 환경은 시민들이 사회 문제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깊이 있는 참여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시민단체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기존 운동방식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그 해결 방식 또한 다층적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시민단체들이 해왔던 '거대 담론 중심의 운동'은 일상과 다소 거리를 두게 되었고, 세대별 감수성의 차이도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여성운동 또한 성평등이라는 커다란 가치를 꾸준히 지켜왔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때로는 '과거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젊은 세대는 여전히 불평등을 체감하지만, 조직적 연대보다는 개인적 실천에 머무르는 경향이 강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지역 중심의, 생활 속 시민운동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거대담론보다는 생활밀착형 의제를 중심으로, 시민의 일상과 직접 맞는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 YWCA에서 하고 있는 일상과 맞는 의제들—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활 실천, 청년 여성의 자립 지원, 디지털 윤리와 시민성 교육—이야말로 시민이 직접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작은 변화일지라도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실천이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역에서 YWCA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고, 어쩌면 더욱 절실합니다. YWCA는 시대마다 여성의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민하며 실천해 온 단체로, 지역 안에서 세대가 어우러지는 조직문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민운동이 세대간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YWCA는 그 다리를 놓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디지털 감수성과 선배 세대의 경험과 지혜가 함께 어우러질 때, 시민운동은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시민운동은 플랫폼형 네트워크로 진화해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참여, 데이터 기반 캠페인, 지역 네트워크 간 협업 등은 필수입니

다. 지역의 시민단체, 학교, 공공기관과 협력하며 시민이 '참여자'가 아니라 '공동기획자'로 활동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이 배움 속에서 성장하고, 그 성장이 다시 행동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YWCA가 이러한 변화의 중심이 된다면, 시민운동은 다시 '함께 만드는 힘'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운동이 다시 회복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힘은 "희망을 조직하는 능력"입니다. 미국의 시민운동가 사울 알린스키 Saul Alinsky는 "조직은 희망의 구체화이며, 희망은 행동을 통해 자란다"고 했습니다. 시민운동의 본질은 거대한 이상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함께 만들어가는데 있습니다. 여러 사회적 불평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조직해내는 일, 그것이 바로 YWCA를 비롯한 시민운동의 사명일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작은 실천들이 모여 서로의 희망이 되고, 그 희망이 다시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YWCA가 걸어가야 할 길이며, 시민운동이 다시 빛을 되찾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공감에서 시작되는 평화

(로마서 12:15~18)

공감이 사라지는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YWCA는 매일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폭력의 자리, 차별과 배제의 현장, 잊혀져 가는 이름들, 그리고 평화가 무너진 곳들... 그 속에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이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 사람의 억울함과 분노를, 우리는 함께 느끼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정하면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공감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세이며, 평화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데 처하라." (로마서 12:16) 진정한 공감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공감은 내 안의 특권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결단입니다. 타인의 삶에 귀 기울이고, 그 아픔에 내 마음을 여는 것, YWCA가 늘 여성과 약자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주류 사회의 기준과 삶에 질문을 던져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떠나 인간이 되신 것은 자기비움과 낮아짐의 실천이며, 십자가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의 길입니다.

공감은 '평화를 향한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18) 주님은 "잘 통하는 사람들과 화목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불편하고 함께하기 어려운 모든 사람들까지도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9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평화를 만드는 Peacemaker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YWCA는 공감에서 출발해,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해 오면서, 억눌린 이들의 편에 서고,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대안을 만들고, 법과 제도를 바꾸는 평화를 운동을 실천해왔습니다. 이 운동은 곧, 하나님 나라를 향한 화목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 여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물 흘리는 이와 함께 울고 있다면, 그 자리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공감으로 시작된 이 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심고, 그 꽃을 피우는 온기 있는 삶을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갑시다.

공감은 '곁에 머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기쁠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것, 말보다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YWCA는 늘 "누구의 곁에 설 것인가"를 고민해 왔습니다. 기댈 곳 없는 이들, 제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이들, 특히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의 곁을 지키는 길은 때로 외롭고 오해받는 길이지만, 여러분은 묵묵히 그 곁에서 왔습니다. 눈물 흘리는 이와 함께 울고, 세상의 외면 속에서도 함께 목소리를 내며, 이름 없는 자리에서 희망을 심어 왔습니다. 이 삶이 바로 공감의 길이며, 주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과 같은 길입니다. 공감은 바로, 내가 당하지 않았지만 마치 내가 겪는 것처럼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공감은 '낮아지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연대하는 용기로 정의·평화·생명의 길을 다시 걷다



(사)한국YWCA연합회(회장 조은영)는 10월 21일(화)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전국 50개 회원YWCA 회장·부회장 및 실무활동가, 연합회 이사, 위원 등 약 1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5 한국YWCA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2026~2027년 운동정책과 운영정책을 협의하며, 변화하는 사회 속 YWCA의 비전과 실천, YWCA 운동 방향과 내용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하나됨과 연대의 자리로 시작된 한국YWCA 정책협의회

개회예배에서 손예지(연합회 청년이사, 전주YWCA)는 기도를, 박혜숙(경기권역협의회 대표, 안양과천군포의왕YWCA 회장)의 성경봉독이 있었다. 임성빈 목사(장로회신학대학교 명예교수, 한국

리더십학교장)는 "땅에서 매고 푸는 사람들 — 창조질서를 지키는 정의와 평화의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임 목사는 "땅에서 매는 것은 불의한 구조를 묶고, 푸는 것은 억눌린 생명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라며, "YWCA운동은 정의(Justice), 평화(Peace), 창조질서의 보전(Integrity of Creation)을 실천하는 복음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부르심을 다시 새기며, 각 지역에서 YWCA 운동을 더욱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2026~2027 운동·운영정책 협의

정책 세션에서는 김은경(한국YWCA연합회 제1부회장)이 2026~2027 운영정책을, 이은영(한국YWCA연합회 제2부회장)이 2026



~2027 운동정책을 각각 제안했다. 참가자들은 지난 2년간의 정책 실행 결과를 평가하며, 지역 YWCA의 현실 속에서 정의·평화·생명운동을 지속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논의하였다.

2026~2027 YWCA 운동정책을 전국 중점운동, 지속 가능운동, 지역 특화운동의 세 축으로 나누었다. 전국 50개 회원YWCA가 중점으로 펼칠 운동은 '성평등한 기후정의운동'이며 세 가지 핵심 목표는 ① 성평등한 기후정의운동의 실행 역량 강화와 정책 수립 ② 지역맞춤형 재생에너지 전환, ③ 생활 부문의 탄소배출 실질 감축이다.

지속가능운동으로는 청소년·청년운동을 전개하는데, 이는 YWCA 정체성의 중요한 축인 '청년성(Young)'을 회복하고 청소년·청년 주체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에 YWCA가 추진하던 성평등운동, 평화·통일운동은 지역별로 특화하여 지속하기로 하였다. 2026~2027YWCA 운영정책으로는 소모임 조직을 통한 YWCA 회원활동 강화, YWCA 리더십 강화, YWCA 거버넌스 개선 및 지방분권에 대응하는 협치 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운동을 위한 재정기반 마련, YWCA 공익법인 책무성 강화 등의 과제가 포함되었다.


YWCA 공론장, 공감을 바탕으로 한 대화와 속의의 장

오후에 진행된 'YWCA 공론장'은 '다름을 존중하고 대화로 이해하는 민주적 속의의 장'으로 'YWCA와 정치적 중립'을 주제로 하여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YWCA와 협약한 뼈대플랫폼에 단독으로 오픈된 YWCA 공론플랫폼에서 사전 설문에 참여하였다. 현장에서는 서복경 교수의 특강 「민주시회에서의 주제적 시민성」이 있었는데, "시민사회는 속의와 참여를 통해 성숙하며, 공론장은 민주주의의 생태계"임을 강조했다. 이후 소그룹 대화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회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공동체 안에서 YWCA 운동의 의미와 방향을 다시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폐회기도, 감사로 나아감의 기도

2025 한국YWCA정책협의회 행사는 오은숙(충청북도협의회 대표, 청주YWCA 회장)의 폐회기도로 마무리되었다.

참석자들은 협의회에서 103여 년의 YWCA 역사를 이어온 사람들의 연대에 감사하며, 대화와 속의의 장면에서 나는 이야기들을 담고 지역 현장으로 돌아가 새로운 YWCA 정의·평화·생명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했다. 

한국YWCA 2026-2027 정책수립과정 '민주성'과 '속의'로

한국YWCA는 2026-2027 운동·운영정책(안)을 마련하기까지 긴 시간의 논의와 여러 단계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쳤다. 이는 전국 회원YWCA가 함께 참여하여 방향을 모색한 속의의 결과이기도 하다. 지난 6월부터 진행된 정책(안) 수립 절차와 앞으로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한국YWCA는 연합회에서 정책안을 만들어 전달하는 것이 아닌 전국 50개 회원YWCA의 목소리를 모으고 조율하며 함께 방향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선택해 왔다.

정책(안) 수립과정은 2024-2025년 운동·운영정책 성과를 회원YWCA와 함께 평가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했다. 각 회원YWCA의 정책 결정자들이 평가·제안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안을 수정·완했고, 그 결과물을 다시 회원YWCA에 공유해 추가 의견을 받았다. 회원YWCA와의 여러 차례 논의와 조율, 한국YWCA 법인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한국YWCA 2026-2027 운동·운영 정책(안)은 만들어졌다.

한국YWCA는 이 과정을 통해 '효율'보다는 '민주성'을, '속도'보다는 '함께 가는 것'을 선택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닌 한국YWCA가 새로운 정책협의를 진행할 때마다 오랜 세월 지켜온 전통이며 철학이다. 회원YWCA의 현장에서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정책의 중심에 두는 구조이기도 하다. 또한 지역 현장 속에서 포착된 현실과 요구가 반영될 때 정책은 현실성을 얻고, 운동은 공감과 힘을 갖는다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10월 21일(목) 한국YWCA 정책협의회에서 공유한 2026-2027 운동·운영정책(안)은 향후 2026년 2월 정기총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회원YWCA 이사회	연합회 회장단, 팀책임회의	연합회 위원회·TF	전국 사무총장 협의회	연합회 이사회
6.9~7.11	7~8월	7~9월	8.21	9.13
정책평가 및 정책 제안 (회원Y 1차 의견 수렴)	정책평가결과 공유 및 정책 초안 협의	정책 초안 내용 검토 및 의견 수렴	정책 초안 내용 검토 및 의견 수렴	회원Y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안) 확정
회원YWCA 의견 수렴	(공론장)사전 은하투표 참여기간	사무총장 확대 운영위	연합회 이사회 (서면)	
9.18~24	9.25~10.2	9.25	10.2~13	
정책(안)에 대한 회원Y 2차 의견 수렴	YWCA 정책 공론장을 위한 사전 은하투표 및 기초 자료 공유	회원Y 2차 의견 수렴 후 정책(안) 협의 공론장 취지 공유, 모의공론장 실시 (공론장에 대한 의견 수렴)	정책협의회 시 협의할 정책(안) 확정	
회원YWCA 공유	2025 YWCA 정책협의회 및 공론장	연합회 이사회	2026 정기총회	
10.14	10.21	11.8	2026. 2	
정책협의회 시 협의할 정책(안) 회원Y 공유	정책협의회 및 공론장 운영	총회에 상정할 정책(안) 확정	2026-2027 YWCA 정책 의결	

2026~2027 한국YWCA 운동·운영정책(안)이 만들어진 배경과 현황, 정책안이 담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 젠더 불평등, 청년 세대의 불안정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 한국YWCA는 다양한 운동 영역을 병렬적으로 전개해 왔으나, 인력과 자원의 제약으로 운동의 지속성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구조적 한계와 마주하고 있다. 이에 한국YWCA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운동 전개를 목표로, 회원YWCA의 제안을 반영하여, 2026-2027 운동정책을 전국 중점운동, 지속 가능운동, 지역 특화운동의 세 축으로 재편하였다.

포털의 '기온분석'에 따르면, 한반도의 평균 기온은 1973년 이래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지난 30년간(1991~2020년) 평균 기온 상승 속도는 전 지구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며 이는 한국이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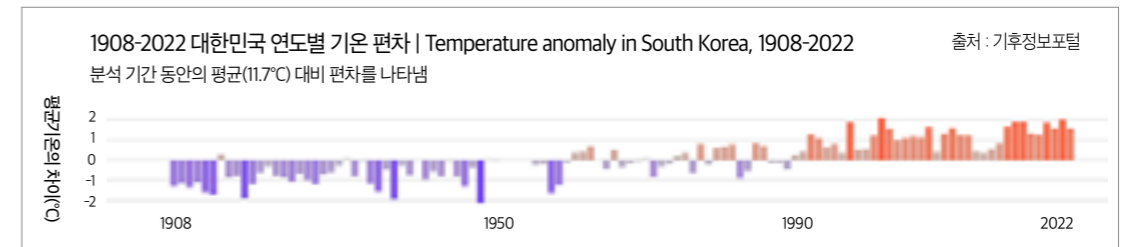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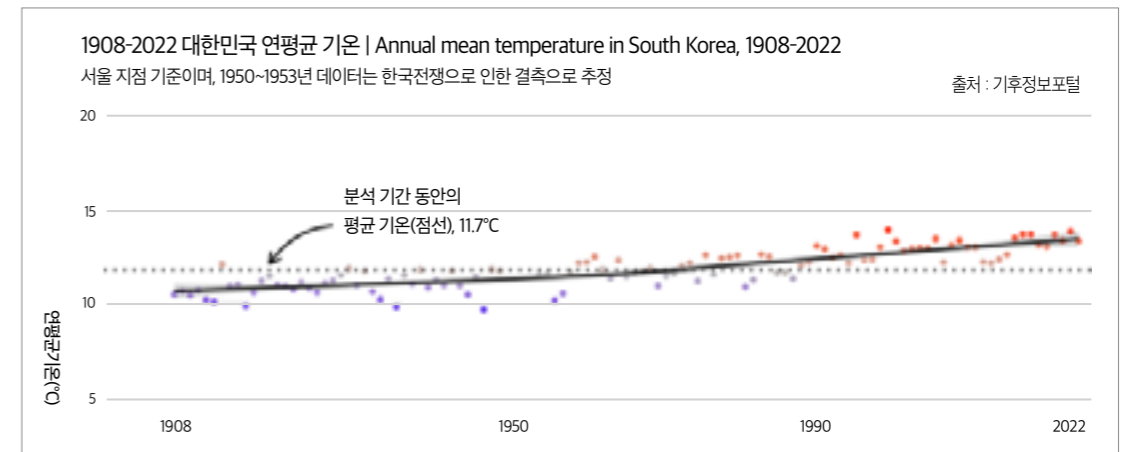
'기후정보포털'에서는 '극한고온'과 '극한강수' 등 이상 기후 현상의 빈도 증가를 지적하며, '계절길이' 변화와 '아열대화' 현상 심화로 인한 기후 재난의 일상화를 경고한다. 특히 2025년 발간된 '한국 기후위기 평가보고서'는 기후변화가 농업·축산, 해양·수산, 산림·생태계, 보건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상세히 분석하며 시급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기후위기의 피해와 고통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특히 여성, 아동, 고령층, 이주민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집중되며, 기존의 젠더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구조적 위기다. 한국은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젠더행동계획(GAP) 보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으며, 기후재난 발생 시 성별 분리 통계조차

2026 - 2027 한국YWCA 운동정책(안)

1. 전국 중점운동 : 성평등한 기후정의운동

기후위기는 더 이상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닌, 불평등과 차별을 심화시키는 심각한 사회 정의의 문제로 인식된다. 기상자료개방



부재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성인지적 접근이 부재한 실정이다. 한국YWCA는 기후정책의 효과성과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원칙으로서 성평등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평등한 기후정의운동'을 전국 중점운동으로 제안한다.

이를 위해 △실행 역량 강화 및 정책수립 △지역 맞춤형 재생에너지 전환 △생활 부문의 탄소배출 실질 감축이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기후정책이 여성과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성인지적 정책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특히 노후 원전 폐쇄와 신규 원전 및 SMR(소형모듈원자로) 건설 반대 캠페인을 통해 핵 없는 안전한 사회를 향한 시민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은 원전 밀집도 세계 1위 국가로 26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며, 원전 밀집 지역에 531만 명이 거주하여 사고 시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확산된 '방사능 안전급수 조례'는 2025년 한국YWCA 모니터링 결과, 44개 기초지자체 중 21곳이 조례 제정 후에도 실제 검사를 미 이행하는 등 구조적 한계를 보여줬다. 조례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지속적인 조례 재개정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2. 지속가능운동 : 청소년·청년 운동

YWCA 정체성의 중요한 축인 '청년성(Young)을 회복하고 청소년·청년을 운동의 주체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청소년·청년운동'

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세계YWCA가 전개한 '안전한 공간(Safe Space) 운동'을 한국 사회의 맥락에 맞게 확산하고자 한다. 안전한 공간 운동은 폭력과 혐오, 차별로부터 자유롭고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며 안전하게 말하고, 듣고, 행동할 수 있는 심리적·사회적 공간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둔다.

현재 한국 사회는 청소년과 청년 모두에게 다양한 위기를 안겨준다. 특히 청소년의 온라인 폭력 경험률은 42%에 달하고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은 72%이상으로 10대와 20대가 전체 피해자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아동 청소년 성범죄 유형 중 디지털 성범죄 비중이 2019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2019년 8.3% → 2023년 24%)했고, 10대 피해자는 2018년 대비 25.9배 급증(2018년 111명 → 2023년 2,874명)했다. 청년들은 고용 불안정과 무한 경쟁 속에서 정서적 불안과 번아웃을 겪으며, 현행 청년 정책이 개인 역량 강화에만 치우쳐 구조적 문제 해결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온라인 공간을 포함한 모든 생활 영역에서 폭력과 차별, 혐오없이 안전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자유롭게 낼 수 있는 안전하고 존중받는 공간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히 요구될 수밖에 없다.

이에 한국YWCA는 물리적 쉼터를 넘어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고 사회 변화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Safe Space)' 개념 학습 및 성공 사례 발굴, 지역 중심 실험 프로젝트 실행, 그리고 청소년·청년 리더의 YWCA 주요 의사결정

구조 참여 확대 및 리더십 육성을 추진할 것이다.

3. 지역특화운동 : 성평등운동·평화통일운동

한국YWCA의 오랜 정체성이자 중요한 가치인 '성평등운동'과 '평화통일운동'은 각 지역의 특성과 현안에 맞게 지속적으로 전개된다.

• **성평등운동** :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젠더 폭력, 29%에 달하는 성별 임금 격차, 혐오 표현 등 다양한 차별이 존재하며 제도적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YWCA는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여 젠더 폭력 대응 및 예방 활동 강화, 지역의 성평등 정책 제안 및 모니터링 전개, 그리고 크리스천 페미니즘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사회 변화를 이끄는 힘을 만들어갈 것이다.

• **평화통일운동** : YWCA운동의 오랜 전통이자 분단과 갈등의 현실 속에서 평화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시민운동이다.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을 통한 안보 강화가 강조되는 가운데 일본과의 역사 문제,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이며 남북 관계는 경색 국면이 지속된다.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경쟁 체제는 혐오와 적대를 강화하며 평화통일 기반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YWCA는 평화 대화, 평화 기행 등을 통해 시민들이 평화의 가치를 배우고 직접 참여하는 장을 마련하며, 특히 여성의 시각에서 평화를 바라보고 시민 참여형 평화통일 프로그램 운영으로 일상 속 평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 여성연대, 청년 세대의 평화 문화 확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며, 공익법인 책무성 교육, 법인 운영 매뉴얼 제공 등이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YWCA의 정체성 및 공익법인 의무, 법인이 사 책무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 교육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현재 회원Y 사무총장의 54%가 경력 3년 미만의 저연차인 현실을 감안하여, 사무총장의 역량 강화 집중 지원 또한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최근 일부 회원Y 부속시설 운영 과정에서 노무, 내부 갈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전국 YWCA 평판과 신뢰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부속시설 관리 강화 및 종사자 대상 운영 법인 교육도 필수적이다.

이에 2026-2027년 2년간의 운영정책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YWCA 목적과 정체성에 기반한 조직 운영역량 강화

자원활동가 및 실무활동가 교육을 확대하고, 청년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영역별 실무활동가 네트워크 강화, 어려운 회원YWCA에 맞춤형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실천력을 높인다.

2. 민주적 거버넌스와 YWCA 연대 강화


Y 운동과 의사결정 구조에 청년을 참여시키고 위원회와 이사회에 다양한 회원을 구성하며, 민주적 회의체 운영과 공론장을 활성화하고 Y운동 관련 지자체 협치 구조 참여 확대를 통해 회원Y와 연합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한다.

3. 지속가능한 재정기반 마련

2033년까지 본부 재정의 회비 및 기부금 비율 50% 이상 확보라는 10년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회원Y 연대 수익사업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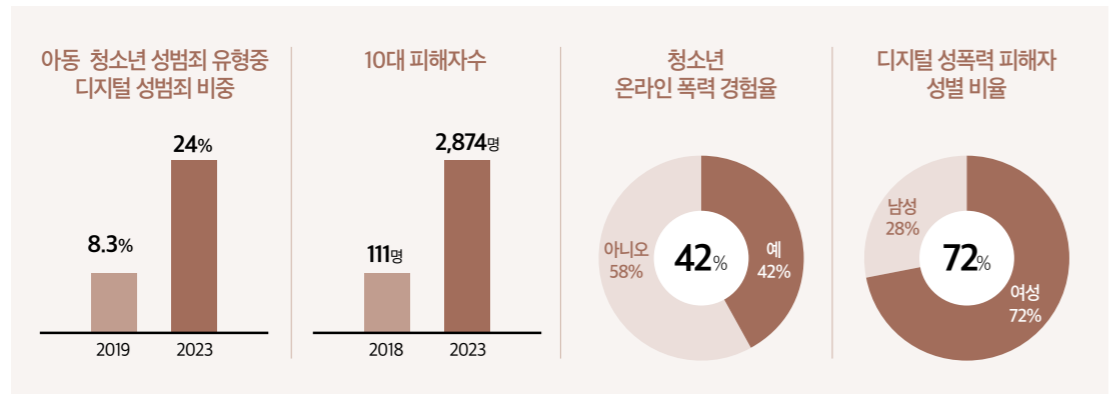
4. 공익법인 책무성 강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요구가 활발해질 전망에 따라, 비영리 공익법인의 조직 및 운영 제도 개선을 정책으로 제안하고 부속 시설 관리 강화를 통해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한다.

한국YWCA는 다가오는 2년간 이와 같은 운동 및 운영정책 추진을 통해 우리 사회가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함께 연대하고 실천할 것이다.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2026-2027 운영정책(안)

한국YWCA는 운동 정책의 효율적인 실행과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운영정책도 재정비하였다. 지난 2년간 회원YWCA가 꼽은 연합회 우수정책 1순위는 'YWCA 공익법인 책무성 강화'였으



2026~2027 한국YWCA 운동정책(안)

비전	모든 생명이 존중되고 차별이 없는 안전한 사회
중장기 목표 (2024~20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사회 구축 ② YWCA 안전한 공간(Safe Space) 구축을 통한 청소년·청년 주체적 리더 양성 ③ 정의·평화·생명 감수성을 갖춘 시민실천가 양성
전국중점운동	성평등한 기후정의운동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성평등한 기후정의운동 실행 역량 강화와 정책 수립 ② 지역맞춤형 재생에너지 전환 ③ 생활부문 탄소배출 실질 감축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성평등 기후운동가 양성 1-1. 성평등한 기후정의운동 교육·워크숍 진행 1-2. 생활밀착형 성평등 기후의제 공론장 운영 1-3. 성인지예산(성별영향평가) 내 기후정책 모니터링 1-4. 방사능안전급식조례 제개정 및 모니터링 실시 ② 지역맞춤형 재생에너지 전환 2-1. 노후원전 폐쇄 시민행동 전개 2-2. 신규원전 및 SMR 건설 반대 캠페인 전개 2-3. 지역 재생에너지 확대 촉구 캠페인 전개 ③ 일상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전국공동캠페인 참조) 3-1. 자원순환 실천 캠페인(다시 아나바다, 노플라스틱) 3-2. 탄소감축 먹거리 실천
지속가능운동	청소년·청년운동
목표	청소년·청년 리더십 양성과 주체적 활동 기반 마련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안전한 공간(Safe Space) 개념의 인식 확산 1-1. 안전한 공간(Safe Space) 개념 학습과 공유 1-2. YWCA 안전한 공간(Safe Space) 조직문화 성공 사례 발굴과 확산 1-3. 안전한 공간(Safe Space) 실험 프로젝트 실행 ② YWCA 가치 지향 청소년·청년 리더 발굴 2-1. 청소년·청년운동 기반 마련을 위한 YWCA 현황조사 2-2. YWCA 청소년·청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 활성화 2-3. YWCA 주요 의사결정 구조 내 청소년·청년 참여 확대 2-4. YWCA 청소년·청년 담당 실무활동가 확보
지역특화운동	성평등운동, 평화·통일운동
목표	젠더 폭력 근절과 평화 문화 확산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성평등운동 1-1. 젠더 폭력 대응과 예방 활동(온오프라인 젠더 폭력 대응 활동, 기술 매개 기반 젠더 폭력 예방 강사 양성)와 역량 강화 교육 등) 1-2. 정부, 지자체 성평등 정책과 제도 개선 활동 1-3. 크리스천 페미니즘 교육과 캠페인 활동 전개 1-4. 지역의 다양한 여성(이주여성 등) 지원과 연대 ② 평화·통일운동 2-1. 시민 참여형 평화·통일 프로그램(교육, 평화 대화, 공론장 등) 운영 2-2. 여성의 평화·통일 분야 대표성 확대와 정책 제안 2-3. 평화 증진을 위한 실천 사례 발굴과 공유 2-4. 동아시아 여성 연대와 지역 간 교류 확대

2026~2027 한국YWCA 운영정책(안)

비전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건강하고 투명한 기독교시민운동단체
중장기 목표 (2024~20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회원YWCA 본부 재정의 회비기부금 비율 50% 이상 확보 ② 활동회원 5,000명을 시민활동가로 양성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YWCA 목적과 정체성에 기반한 조직 운영역량 강화 ② 민주적 거버넌스와 YWCA 연대 강화 ③ 지속가능한 재정기반 마련 ④ 공익법인 책무성 강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 YWCA 회원 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원 5대 실천활동 전개(총회, 교육, 캠페인, YWCA운동, 후원) 2) 회원 프로그램 개발 및 소모임 조직 활성화 (회원Y당 3개 소모임 성공사례 만들기) 3) 후원회원 확대 및 기부자 예우 확대 1-2. YWCA 리더십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YWCA 자원활동가·실무활동가 교육 2) YWCA 청년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영역별 실무활동가 네트워크 강화 4) 회원YWCA 맞춤형 조직 역량 강화 지원 2-1. YWCA 거버넌스 개선 및 지방분권에 대응하는 협치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YWCA 운동과 의사결정 구조에 청년 참여 2) YWCA 의사결정 구조(이사회, 위원회)에 다양한 회원 구성 3) 민주적 회의체 운영 및 소통구조(공론장) 활성화 4) YWCA 운동 관련 지자체 협치 구조 참여 확대 2-2. YWCA 연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원YWCA-연합회 연대와 협력 강화 2) 권역협의회/광역사도협의회 연대 강화 3. 지속가능한 YWCA 운동을 위한 재정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원YWCA 수익사업 모델 개발 2) 회원YWCA간 연대형 수익사업 실험 3) 재원 마련 다각화 방안 연구 및 발굴 4. YWCA 공익법인 책무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익법인 의무 이행 및 역량 강화 교육 2) 회원YWCA 본부의 부속시설 관리 강화 3)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성평등한 기후정의운동 전국 공동 캠페인(안)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민 친화적 기후실천 캠페인으로 YWCA기후정의운동에의 시민 참여 확산 ② 전국 단위의 통일된 실천을 통한 한국YWCA 기후정의운동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 ③ YWCA기후정의운동 브랜드화로 한국YWCA 정체성 강화와 운동의 지속가능성 확보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에너지절약 실천 캠페인 : '불을 끄고 별을 켜다' 운동, 정기적(특정 월, 일) 전국 동시 캠페인 진행 ② 생태적 식생활 캠페인 : K-푸드(김치 등) 활용한 탄소감축 먹거리 캠페인, 회원국YWCA들과 연계한 국제적 식생활 운동 전개 ③ 일회용품(플라스틱, 비닐) 생산규제 정책 제안 ④ 기후실천 콘텐츠 제작·공유 : 월별 YWCA 기후정의 실천 내용이 담긴 달력 제작과 공유 ⑤ 전국공동캠페인 명칭(안) : 버튼오프 캠페인, 불을 끄고 별을 켜다, 햇빛과 바람의 날

경청과 존중의 대화, 화합과 연대의 길 열어

2025 한국YWCA 정책협의회에서는 이례적으로 협의회 오후시간 전체를 <공론장>으로 운영하였다. 이번 공론장은 한국YWCA가 회원YWCA와 함께 처음으로 시도하는 프로그램이었다.

공론장의 주제는 '정치적 중립'이었다. 조은영 회장은 "오늘의 주제인 '정치적 중립'은 지난 몇 해 동안 YWCA 공동체에서 회자되면서 서로 생각이 달라 불편을 겪어온 주제입니다. 비상사국을 거치면서 더욱 날카롭게 각자의 의견만이 오고 가게 되어 이제는 미룰 수 없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이견으로 인한 불편함은 한국사회의 모습이기도 해서 한국YWCA는 언제나 그랬듯이 시대의 문제의식에 대해 두려움 없이 주와 함께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길을 가고 보여주고자 합니다.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으로 일치 보여주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이, 곧 은혜가 되는 공론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공론장 주제에 대한 취지를 밝혔다.

1대1 대화와 소그룹대화 가져

첫 순서는 사전 은하투표 결과 공유였다. 참석자들이 사전에 7개의 질문에 응답한 결과가 그래프로 시각화되어, 다양한 의견이 한눈에 드러났다. 의견의 분포는 '갈림'이 아니라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나의 지점을 '다양성'으로 보여주었다. 사회적협동조합 뼈대의 발표를 들으며, 단순한 설문이나 숙의의 출발점임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진 별별대화는 1:1로 진행된 짧은 대화였다. 참가자들은 두 명씩 짝을 이루어 사전투표에서 서로 다른 응답을 중심으로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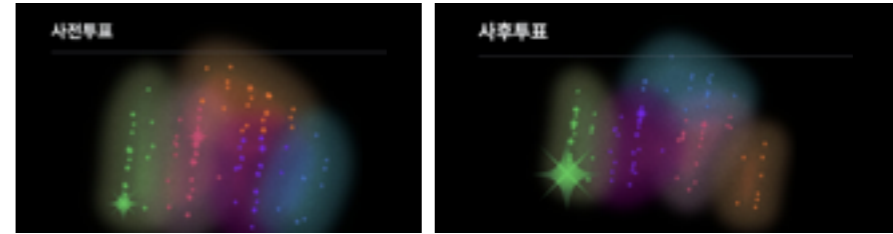
를 나누었다. 이 시간은 설득의 자리가 아니라 이해의 자리였다.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그 생각이 어떤 경험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들었다. 다름 속에서도 연결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다음 순서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의 특강이 이어졌다. '민주사회에서의 주체적 시민성'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참석자들은 민주사회에서 정치적 중립의 의미, 그리고 YWCA와 시민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깊이 사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에는 지역, 실무, 자원활동가가 고르게 구성된 25개 조가 각각의 공간으로 이동해 소그룹 대화를 진행했다. 필수질문 1개와 선택질문 3개를 중심으로 진행된 대화에서 '발언의 균형'과 '경청의 원칙'이 강조되었다. 직함 없이 이름 뒤에 '님'을 붙이며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존중하는 평등한 분위기 속에서, 참가자들은 4개의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각 조에는 연합회 실무자가 1명씩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하여 원활한 대화를 지원했다. 소그룹 대화가 끝난 뒤에는 각 조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많은 조들이 자원하여 그룹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공유하며, 공론의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 나눴다.

변화된 이해를 이끈 대화의 힘

마지막으로 사후 은하투표가 진행되었다. 놀랍게도 7개 모든 질문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사전투표와 달라진 이 결과는 숙의의 흔적을 보여주었다. 의견의 이동은 단순한 입장 변경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긴 '이해의 변화'였다. 공론이란 결국 '설득'이 아니라 '이해를 통한 연결'임을 모두가 체감하는 순간이



참가자들의 의견이 모두 나타나 있는 별무리. 사전투표와 사후투표는 숙의를 통해 변화되었다.

였다. 오늘의 공론장은 그래서 하나의 배움이었다.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고, 차이를 통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YWCA의 오래된 DNA, 곧 숙의와 실천의 정신이 다시 살아났다. 정치적이 되 정파적이지 않은 독립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향한 용기, 이 두 축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계속 대화하고, 배우며, 연결되어야 한다.

한국YWCA는 이번 공론장을 시작으로, 2026년 다양한 주제의

공론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갈 예정이다. 연합회는 지역YWCA가 각자의 현장에서 숙의와 실천을 이어갈 수 있도록 <YWCA 공론플랫폼>을 통해 전국의 회원YWCA를 적극 지원하고, 시대의 질문에 함께 응답하는 시민운동으로서의 책임을 확장해 나갈 것이다. 한국YWCA가 시민과 함께 정의와 평화, 생명의 가치를 새롭게 세워가는 여정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소그룹 대화 내용


① <필수> 사회적 위기나 갈등 상황(예: 계엄령, 대형 재난) 등 긴급한 사안에 입장을 내는 것이 '정파적 행위'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사회적 책임'이라고 보시나요?

→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정치적 행위'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책임'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정의·평화·생명의 가치를 실천하는 일은 정치와 분리될 수 없으며, 사회의 불의와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개입하는 것은 시민단체로서 당연한 책무라는 인식이 강하게 드러났다. 계엄령, 기후위기, 탈핵 등의 사안에 대해 YWCA가 시민의 안전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입장을 내는 것은 정파적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 실천으로 이해되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보다는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YWCA의 발언과 행동이 특정 세력의 편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표현과 절차에 각별히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과 세대의 다양성을 포용하고, 민주적인 논의 구조와 교육의 장을 확장하여 서로 다른 관점을 공감으로 연결해가는 것, 그것이 YWCA가 지켜야 할 정치적 독립성과 공공성을 함께 세우는 길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② 탈핵, 성평등, 기후위기 등 YWCA가 내는 입장이 지역 사회에서 정치적이거나 이유로 반대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많은 참여자들은 "정치적 갈등을 피하기보다, 대화와 설득을 통해 지역과 함께 이해를 넓혀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YWCA의 목적문과 정의·평화·생명이라는 가치에 근거해 약자의 편에서 판단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또한 "정치적"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침묵하거나 회피하기보다, YWCA가 왜 이 운동을 하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논리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지역사회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는 외부 강사 초청, 학습과 토론의 과정을 통해 공감대를 넓혀가야 하며, 연합회 차원에서 일관된 메시지와 언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 참여자는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민에게 이해될 수 있는 방식으로 꾸준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정당과의 관계에서 이용당하지 않도록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③ YWCA 운동 이슈 관련해서 정치적이란 이유로 회원YWCA의 이사회 내부의 의견이 갈라지거나, 실무활동가와 자원활동가들의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많은 참가자들이 '다름을 인정하고 충분히 대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이견이 생길 때 바로 결론을 내기보다, 여러 차례 논의하고, 객관적 정보를 공유하는 등 이해의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YWCA의 목적문과 가치에 근거한 판단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의·평화·생명이라는 원칙에 비추어 '누가 옳은가'보다 '무엇이 더 약자를 위한 결정인가'를 기준으로 삼자는 것이다. 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아야만 지역의 정서나 정

치적 압박 속에서도 공통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서는 다수결과 합의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갈등이 심할 때는 표결로 정리하되, 결정 후에는 구성원 모두가 결과를 존중하고 함께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사회와 실무활동가 간의 신뢰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공론과 학습의 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결정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설득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공론의 장, 회원 전체 의견수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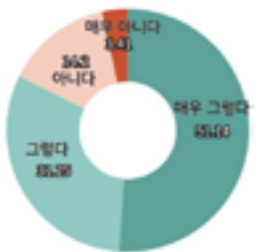
은하투표 주요 결과

나는 YWCA의 정책 제안 활동이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한다.

나는 YWCA가 실행한 조혼제 폐지, 공창제 폐지, 호주제 폐지 운동이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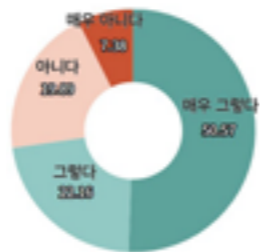
사전투표 결과



사후투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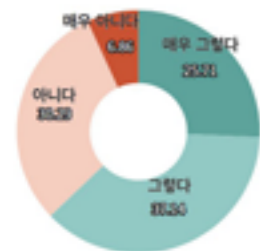
사전투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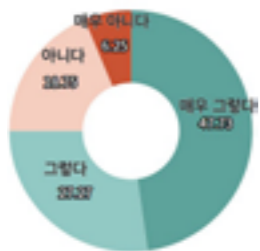
사후투표 결과

나는 YWCA가 전개한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을 위한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운동, 재구조화 관련 지방세 감면을 위한 법 개정 운동, 동일임금의 날 운동, 고리1호기 폐쇄운동, 방사능 안전급식 및 지역 조례 제·개정 운동 등이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한다.

나는 2026-2027 한국YWCA 운동정책(안)의 성평등 관점의 기후정의 운동, 청소년청년운동이 한국YWCA가 지금 현 시대에 반드시 전개해야 할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사전투표 결과



사후투표 결과



사전투표 결과



사후투표 결과

YWCA의 힘, 갈등을 넘어 대화와 화합으로

강류안

(사)사천YWCA 사무총장

2025 한국YWCA 정책협의회·공론장에 전국 50개 회원 YWCA가 함께 모여 2026~2027 정책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 동참하여 큰 감동을 받았다. 단순히 한 기관의 회의가 아니라, 각 지역 회원 Y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하고 토론하며 정리해 '정책안'을 만들어갔다.

올해는 사천YWCA가 경남YWCA협의회 사무국을 맡았는데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과정을 거쳤다. 각 회원Y의 제안과 협의체 의견 수렴을 보며 "규모가 다른 YWCA 간의 활동 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 "현장 체감과 시민 친화적 실천이 가능할까?" 하는 염려도 있었다. 그러나 전국 50개 회원Y가 함께 모여 YWCA 정책 방향을 민주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각 지역의 다양한 의견이 토론과 수렴을 거쳐 하나의 '정책안'으로 모여 가는 과정은 매우 인상 깊었다.

특히 사전 투표와 소그룹 대화, 그리고 다시 진행된 공론화 투표는 '정책이 만들어지는 민주적 현장'을 온몸으로 느끼게 했다. 소그룹 대화에서는 각 지역의 현실과 고민이 진지하게 오갔고, 토론을 통해 의견이 변화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마지막 사후투표 결과도 민주적 공론의 힘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김륜희

(사)대전YWCA 청년 간사

이번 2025 한국YWCA 정책협의회·공론장에 대전YWCA 청년

간사로서 참여했다. 처음에는 '과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잘 나눌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앞섰다. 그래서 행사 전에 받은 사전 자료들을 보면서 Y의 운동에 대해서 공부했고, 미처 몰랐던 운동과 활동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정치적 행위'라는 개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 주었다.

또 각 지역에서 온 청년간사들과의 1:1별별대화, 소그룹 대화를 통해 청년 간사들의 시선으로 이야기하며 서로의 의견을 듣고 우리 단체와 운동에 대하여 바라볼 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 서로 같은 의견을 갖고 있던 부분도 있었고 운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각자의 현장에서 겪는 고민과 성과를 나누고, 서로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장이었다.

김예리

(사)서울YWCA 국장

정책협의회 YWCA 공론장에서는 '정파적 편향', '운동에 대한 반대', '운동 이슈와 관련한 내부 의견의 갈라짐'을 주제로 소그룹 대화를 진행했다. '나와 얼마나 다른 생각들을 마주하게 될까?' 하는 긴장감이 있었다. 그러나 막상 마주한 것은 포용의 대화였다. 각자의 경험과 조직에서의 역할, 정치적 성향은 달랐으나, '다른 생각을 있는 그대로 듣겠다는 마음'과 '다른 생각을 경청할 수 있는 대화의 구조'가 공감의 대화를 가능케 했다.

우리 그룹은 탈핵과 성평등 등 주요 운동 주제에서 조직 안팎의 다양한 관점이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차이는 갈등의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YWCA 목적문에 기반한 운동의 방향을 세

성평등한 기후정의 시대를 향해, 생태적 돌봄에 응답하는 우리

롭게 세울 이유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파적 시선이 아닌 공통의 가치와 목적의 언어로 운동을 재정립하자는 공감대였다.

젠더, 세대, 정치적 이념 등 다양한 요인으로 갈라져 신음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다른 생각에 대한 적대감과,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야 말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대화는 서로에게 닿지 않는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자기중심성은 교만의 죄이며,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 '화해'라는 여는 예배의 메시지가 마음에 남는다.

박행우

(사)부천YWCA 회장

부천에서 공론장까지 가는 길에 '정치적 행위'에 대한 정의로 고민이 깊었다. 사전 투표라는 것의 질문들이 생겨난 이유가 궁금했고 나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도 의문이었다. YWCA 활동을 하면서 나는 연대하며 만나게 되는 정치적 색깔이 짙은 단체들과는 거리를 두려는 마음이 컸었고 그런 치우친 모습의 여성운동으로 왜곡된 시선을 받으면 운동의 진정성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오늘 공론장에서 시민활동이 우리의 권리이고 정치적 일 수밖에 없다는 내용과 당파적인 것과의 차별성을 알고 나서는 새롭게 큰 깨우침이 있었다. 오히려 당파에 휩쓸리지 않고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신앙과 사명감으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다름 속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DNA'를 내 안에서 확인하게 되었다. 특히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이라는 명분으로 소수의 의견이 묵살될 수 있는 상황인데 소수의 의견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합의에 도달하려는 연합회의 모습에 한 지역의 회장으로 실무진을 비롯 이사회와 회원들을 더욱 깊은 애정으로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었다.

심진실

(사)창원YWCA 간사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정치적'이다 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의 목소리를 낼 때 YWCA와 활동가들은 부정적인 의미로 너무 '정치적'이다 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그런데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말을 통해 개인은, 우리의 삶은 모두 정치적인 것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모든 일상이 정치를 통해 이루어진 결과이다.

YWCA는 '정치적'이라는 비난 속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응한다. 당파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을 시작으로, 시민단체는 '정치적'이면 안 된다는 인식에 반박하며, 공론장을 열어 YWCA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시민단체로서 YWCA의 운동과 활동가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새롭게 사유하도록 돕는다. 이렇게 YWCA는 균열과 갈등을 회피가 아닌 대화와 화합으로 극복해 나간다. 이것이 YWCA의 힘이자 정체성이다.

조혜숙

(사)순천YWCA 회장

서로 다른 지역과 세대, 경험을 가진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목소리를 존중하며 진지하게 토론하면서, 의견이 달라도 비판보다 이해와 경청으로 이어지는 태도 속에서, '공론장'의 진정한 의미를 느꼈다. 공론장은 누가 옳은가를 가르치는 논쟁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며 공통의 길을 찾아가는 민주적 배움의 장이었다.

특히 이번 협의회를 통해 YWCA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깊은 공감이 생겼다. YWCA의 중립성은 침묵이나 거리두기가 아니라 오히려 정의·평화·생명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 기반의 정치성'이다. 즉 YWCA는 정파적이지 않지만 특정 세력이나 이념에 편향되지 않되, 사람과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시민운동의 길이며, YWCA가 지켜온 중립의 의미임을 다시 느꼈다. 이 경험을 통해 지역에서도 이런 공론의 문화와 가치 중심의 중립성을 실천하고 싶다. 지역YWCA가 주민과 청년, 여성들과 함께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공론장을 만들어 간다면, 그 자체가 사회적 신뢰를 쌓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종(種)과 종(種)이 만날 때

얼마 전, 평생을 침팬지와 함께 살아온 동물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이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인간의 우월성을 문명적 신앙으로 여겼던 지난 20세기에 태어나, 자연과 동물의 세계를 향해 귀 기울인 여성 과학자 중 하나였다. 1960년대에 사회적 소수자(여성, 엘리트집단에 속하지 않은 과학자)로서 당시 학계가 보지 않던 것을 보고, 말하지 않던 것을 말하는 역할을 지금까지 충실히 해왔다. 기존 연구가 포획된 상태의 침팬지에 대해 이뤄졌던 것과 달리 구달은 침팬지의 서식지에 찾아가 그들이 자신을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 그들의 무리 안에 직접 들어가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구달이 탄자니아 곰베 숲에서 침팬지의 세계로 들어갔던 순간, 그녀는 그동안의 과학이 전제해온 경계 -인간과 동물, 주체와 객체, 연구자와 실험대상의 분리-를 뛰어넘었다. 이름 없는 '실험체'로서의 동물이 아니라, 이름을 가진 존재, 감정과 사회성을 지닌 타자로 침팬지를 대했다. 그녀에게 연구란 일방적인 관찰이 아니라 상호간의 응답이었다. 도구적 관계, 목적에만 충실한 관계가 아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낸 것이다. 그녀의 연구는 인간 고유의 특성으로 여겨왔던 도구 제조와 사용을 야생 침팬지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1964년 네이처에 발표하면서 학계에 파장을 일으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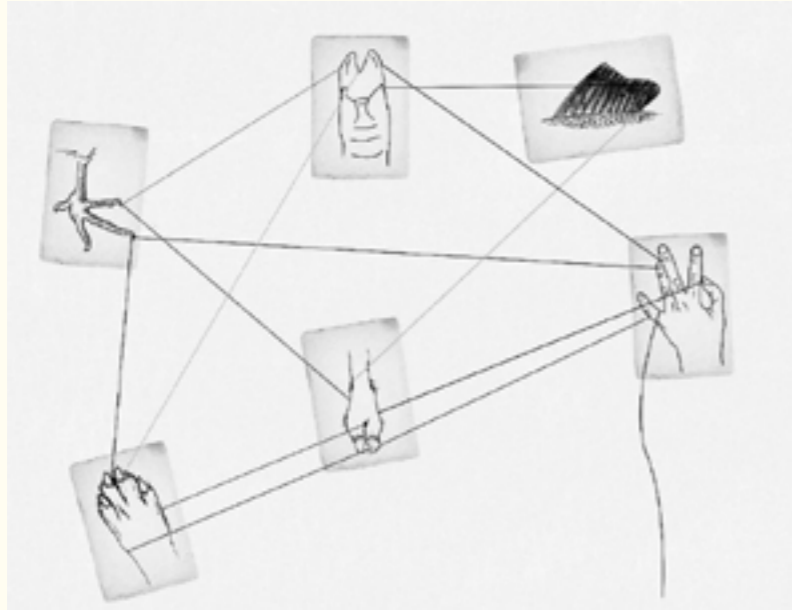
그녀가 남긴 말이 여전히 귓가에 맴돈다. "희망이 있다. 우리 손에 달려 있다. 가능한 한 가벼운 생태학적 발자국을 남기라." 이 말은 단순한 낙관의 표현이 아니다. 위기의 시대에 인간이 스스로를 자

연의 일부라 인식하고 그에 걸맞게 살아가야 함을 말하는, 자연과 한 평생을 얽혀 살아온 한 사람의 요청이다.

생물학자 도나 해러웨이는 한발짝 더 나아가 '과학 실험실의 동물들과 인간의 얽힘(entanglement)'을 통해 인간중심적 과학의 윤리를 근본에서 흔들었다. 실험실의 원숭이들이 처음엔 관찰자를 경계하지만, 그 경계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관찰자가 원숭이의 몸짓과 소리를 따라하며 그들의 세계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변화가 일어났다. 원숭이들이 조금씩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많은 지식이 열렸다. 해러웨이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한다. 지식은 관찰자가 혼자 만들어내는 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서로가 엮이고, 응답하고, 노동하며 만들어내는 관계의 산물이다. 실험실의 동물들은 단순한 '실험 재료'가 아니라, 결과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 연구자이자 노동자라고 말이다.

그녀는 『종과 종이 만날 때』(2022)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서로와 함께-되어야만 becoming with 존재할 수 있다." 실험실의 동물들도,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들도 '서로에게 반응하며 세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능력' 즉, 응답능력(response-ability)을 지닌 존재들로 바라보았다. 서로의 세계를 공동으로 구성하며 이 관계 속에서 새로운 윤리가 탄생한다.

그렇다고 실험자와 실험동물이 완전하게 평등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실험자와 피실험자의 개입의 정도와 방법은 다르다. 그러나 둘 다 실험에 개입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일방적인 주체와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정도와 차이는 있지만, 노동하고



<복수종의 실뜨기> 나세르 무티프의 드로잉, 2011.
갈매기 발, 돼지 발, 사슴 발, 여우 발, 사람 손이 함께 만드는 실뜨기 패턴. 취약하고 상처입은 복수종들이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든 패턴을 제안하고 실행함을 의미한다.
(출처 : 도나 해러웨이, 『트러블과 함께하기』, 2016, 마농지, 22쪽)

개입하고 관계하는 존재들인 것이다. 물론, 이 과정은 서로 다른 종(種)간에 발생하는 불가능한 소통에 관한 것이며 그 불가능성 안에서도 소통을 포기하지 않는 응답능력에 대한 것이다. 그 과정에는 이해되지 않음과 취약함, 때로는 폭력과 쓰라림이 수반되어 있다. 끊임없는 소화불량의 상태를 견디고 함께할 때, 비로소 종(種)과 종(種)이 만날 수 있으며, 그래야 새로운 기대도, 성취도, 기쁨도 꿈 꿀 수 있다.

기후정의운동의 신학적 성찰 - 창조와 구원의 재발견

제인 구달과 해러웨이가 보여준 응답의 윤리는, 신학 안에서 이미 반세기 전부터 시작된 '생태적 회심'과 맞닿아 있다. 1967년 린 화이트 Lynn White Jr는 『우리 생태위기의 역사적 뿌리』에서 기독교가 자연을 지배 대상으로 이해한 것이 오늘의 생태위기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술의 남용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로 신학의 인간중심주의를 꼽는다. '기독교는 세계에서 가장 인

간 중심적인 종교'라는 그의 비판은, 신학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만든 첫 외침이었다. 화이트 이후 신학은 창조를 '배경'이 아니라 '주체'로 다시 보기 시작했다. 생태신학자 샬리 맥페이그 Sallie McFague는 『기후변화와 신학의 재구성』에서 하나님을 '세계를 초월해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계 자체가 하나님의 몸'이라고 표현했다.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몸을 가지셨듯, 창조된 세계 전체가 신적 생명의 몸이라는 것이다. 그녀는 하나님의 초월성보다 내재성을 강조하며, 구원을 내세가 아닌 '이 세계의 변형'으로 이해한다. 그녀의 언어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세계를 돌보는 일은 곧 신앙의 실천'이다. 한국의 신학자 김은혜는 이러한 맥페이그의 신학을 이어받아 '몸 신학'을 제시했다. 그녀는 『기후붕괴시대, 아주 불편한 진실 조금 불편한 삶』에서 '몸 신학은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지구와 그 거주자들의 육체적 필요

와 건강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신학'이라고 말한다. 기후위기의 시대에 신학은 머리의 사유가 아니라 몸의 실천에서 출발해야 하며, 새로운 인간주의는 '의식과 정신이 아니라 몸에서 시작한다'고 말한다. 이때 몸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생명'과 '영성, 관계의 현장'이다. 그녀는 파괴된 지구의 연약함 앞에서 '연민의 윤리'를 강조한다. 즉, 신학은 추상적 교리가 아니라, '연민과 돌봄으로 응답하는 생명의 신학'으로 거듭나야 함을 강조한다.

기후정의의 페미니즘적 전환 — 돌봄의 정치학으로

모든 존재는 이미 관계 속에서 얽혀 있으며, 그 얽힘 속에서 서로에게 반응하고 책임지는 존재로 태어난다. 응답능력은 명령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윤리적 감응 능력'이다. 이러한 '창조의 신학'을 우리는 '엄힘의 신학'으로 다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위기는 단순히 환경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위기다. 성평등한 기후정의는 '누가 돌봄의 부담을 지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기후재난의 피해는 늘 사회적 약자, 여성, 이주민, 비인간 존재들에게 더 깊게 드리워진다. 따라서 성평등한 기후정의란, 에너지 정의나 탄소 감축, AI 기술을 활용한 적응과 감축의 담론을 넘어 새로운 '관계적 정의'를 세우려는 일이다. 여기서 돌봄은 '보조적 역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지속 가능성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 행위이다. 생태여성신학은 지금까지의 인간 예외주의와 금융자본 중심 사회 구조의 허점을 파악하고, 그 누수를 막는 관계의 돌봄, 몸의 윤리, 만남과 만짐(touch)를 통해 기후정의운동이 단순한 정책 운동이 아니라 '존재의 윤리적 전환운동'이 되도록 견인해 가야 할 것이다.

응답능력의 영성, '함께 되기하는' 믿음

기후위기 시대의 신앙은 더 이상 이 세계 바깥의 초월적 신을 찾는 일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지구, 이 관계망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 자연과 비인간 존재들의 현존을 알아차리고 응답해야 한다. 부대끼는 관계의 소화불량 한 가운데 서서, 다

른 존재들과 얽히며 살아가는 방식을 배워가라는 뜻이다. 이는 각 존재가 서로의 생명을 위해 반응하고 책임지는 능력, 곧 공산 sympoiesis의 윤리다.


창조는 완결된 세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생성되고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관계의 과정이다. 그 속에서 신앙인은 고립된 주체가 아니라, 다른 피조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존재로 살아간다. 결국 신앙이란 하늘로부터의 은총을 기다리는 일이 아니라, 이 땅의 신음에 귀 기울이며 함께 살아가는 능력이다.¹

우리가 서로를, 환경을, 교회를, 이 세계를 돌보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약한 존재이면서도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각자의 취약함을 인지하고, 서로의 필요와 요청에 반응하며,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거나 들리지 않는 존재들에게 공간을 내어주는 일 말이다. 이것은 사랑으로 가능하다.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종말적 상황을 마주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두려워하면서도 두려움 없이, 일거수일투족을 얽매이지 않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세계 앞에서 '예외적인 존재' 인간이 아닌 피조물 중 인간으로, 경외와 두려움을 품되 그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응답하는 삶이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 '완벽한 해결'이 아니라, '책임있는 삶의 응답'이다.

“은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요한1서 4:18)

YWCA는 지난 10여년간의 탈핵운동과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이미 '생명의 편'에 서왔다.

그 운동의 핵심은 단순히 핵발전 반대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구조에 대한 영적 저항이다. 이후 성평등한 기후정의운동 속에서 '생태적 돌봄의 영성'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더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지구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존재는 없다. 무엇이든 지구에 온 존재는 흔적을 남긴다. 기후위기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흔적을 남길 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다. 

+++

1 캐서린 켈러, 『지구정치신학』(박일준 역, 대장간, 2020)

탈핵 시민, 핵의 위험을 견고 태양의 길을 걷자

최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와 맺은 '노에 계약' 내용이 연일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독자 기술이라고 자랑하던 핵발전 기술이 여전히 특허에 묶여 있다는 사실도 그렇지만, 핵발전 주주 프로젝트에 대해 일감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체코 수출에서 웨스팅하우스 몫을 보증하는 신용보증장까지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핵발전이 윤석열 정부의 처적을 포장하는 홍보 수단으로 전략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뼈아픈 단면이다.

2022년 한수원은 고리2호기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주민 공람을 실시했다. 수명연장 과정에 필수인 과정이었지만, 그 내용은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전문적인 내용으로 가득했다. 사실상 '공람'의 의미가 없던 것이다. 올해 한창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고리2호기 수명연장 내용을 살피던 한 의원실에서도 '한수원으로 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기밀이라는 이유로 온통 검은색 일색이더라'면서 하소연이 나왔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조차 들여다 볼 수 없는 안전 기준, 이것이 바로 비민주주의의 증거다.

안전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지난 3월 수립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은 '원전 최강국'이라는 구호 아래 핵발전 확대 정책이 어디까지 폭주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윤석열 정부에 이어 현 정부는 여전히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등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수요 전망을 핑계로 이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첫째,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은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기계가 오래될수록 낡고 위험해진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2023

년 4월, 이미 40년의 설계수명이 끝난 고리2호기도 마찬가지다. 방사성환경영향평가는 부실하기 짝이 없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가장 중요한 안전 기준이 된 중대사고 대책은 빠졌으며, 최신 기술기준 반영 여부도 불확실하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원전이 여전히 위험한 건 객관적인 사실이다. 99.999% 안전하더라도 그 0.001% 때문에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지만, 수명연장을 기정 사실화하는 데 동참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줄줄이 이어질 핵발전소 수명연장 심사 과정에서 '안전'이라는 절대적 가치가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불길한 신호다.

둘째,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핵발전 밀집도를 높이는 위험한 계획일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기후 대응에 불가능한 계획이다. 이미 가동하고 있는 26기 핵발전소에 더해 4기를 더 짓고 있는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핵발전소 밀집 국가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여

핵발전소 건설 및 계획 현황

발전소 이름	상태	준공 일시
새울 3호기 (구 신고리 5호기)	건설 중	2026. 2. 28
새울 4호기 (구 신고리 6호기)		2026. 11. 30
신한울 3호기		2032. 10
신한울 4호기		2033. 10
SMR #1	모듈1/2	2034. 9. / 2034. 12.
	모듈3/4	2035. 3. / 2035. 6.
신규 핵발전소 #1	계획 중 (2025. 하반기 부지공모)	2037. 6.
신규 핵발전소 #2		2037. 6.

• 새울 3, 4호기: 전력거래소, '발전소 건설 사업 추진 현황(2025년 상반기)', 2025.5.
• 나머지 발전소: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정리

기에 2기를 더하면 2038년에는 총 32기가 가동된다. 과거 삼척(2014년)에서는 생계를 건 가열한 투쟁으로, 영덕(2015년)에서는 주민주민투표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막아냈다. 이는 서울수도권 전력 소비를 위해 지역이 희생하는 불평등에 대한 문제제기이며,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이 얼마나 지역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준 역사다. 게다가 건설에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는 핵발전은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전혀 기여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빌면, "원전을 건설하는 데 최하 15년이 걸리고 지을 곳도 없다."

셋째, 아직 설계도조차 완성되지 않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국가 전력계획에 포함시킨 무책임의 극치다. 안전성과 경제성 모두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 마치 국가 경제와 탄소중립을 해결할 것처럼 거품을 담은 것은 희대의 사기극이라 할만하다. 이처럼 불확실한 기술에 2025년 한 해에만 1,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쏟아붓는 동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빠른 대안인 재생에너지 전환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핵발전 신화의 허상: 안정성, 경제성, 안보의 재구성

정부와 핵산업계가 핵발전의 불가피성을 주장할 때마다 반복해서 내세우는 세 가지 명분이 있다. 바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 '저렴한 전기(경제성)', 그리고 '에너지 안보'다. 실제로 2022년 한국 갤럽의 설문조사를 보면, 시민들이 핵발전에 찬성하는 이유 역시 동일했다. 경제성장이 한창이던 1980년대, 대용량인면서 값싼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건설한 핵발전소는 결국 지역의 희생과 미래의 안전에 빚을 지며 '경제성'을 얻었고, 안전하고 싸다는 신화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 신화는 이어질 수 없다. 대용량 설비인 핵발전은 자유롭게 끄고 켜는 것이 불가능해 급변하는 전력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다. 이미 기록적인 폭염이 덮쳤던 지난여름, 전력 수요가 최고조에 달했던 피크 시간대에 전력망을 지탱한 일등 공신은 다름 아닌 태양광이었다. 태풍으로 송전망이 무너지거나 폭염으로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 핵발전소 가동이 중단되고, 전력 공급에 대규모 손실을 가져온다. 반면 전국 각지에 분산된 소규모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들은 일부가

타격을 입더라도 전체 전력 시스템의 붕괴를 막는 회복탄력성을 가진다. 진짜 위기 상황에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거대하고 경직된 핵발전이 아니라, 유연하고 회복탄력적인 분산형 재생에너지 시스템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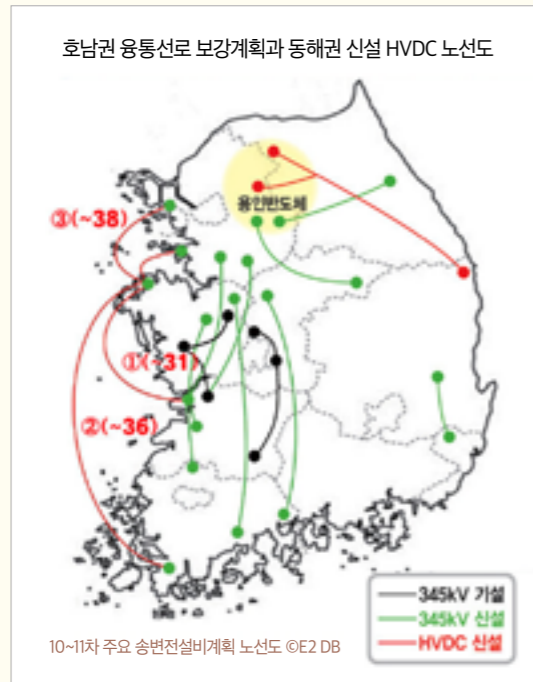
'에너지 안보' 역시 마찬가지다. 핵발전의 연료인 우라늄은 100% 수입에 의존하며, 그나마도 소수의 국가가 독점하고 있다. 게다가 앞서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에서도 보듯, 핵심 기술과 부품은 여전히 미국 등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국제 정세가 급변할 경우, 우라늄 공급이 중단되거나 기술 협력이 끊길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이다. 진정한 에너지 안보는 수입에 의존하는 우라늄이나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핵기술이 아니라, 우리 땅 어디에서나 풍요롭게 얻을 수 있는 태양과 바람에서 나온다. 우리 기술로 우리 자원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강력한 에너지 주권이자 안보다.

그렇다면 경제성은 어떻게? 현재의 핵발전 비용에 핵폐기물 처리 비용, 핵사고 위험과 사후 처리 비용, 그리고 발전소 해체 비용 등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이 빠진 채 계산되었다는 점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핵발전소 건설보다 폐쇄가 증가하고, 신규 투자가 거의 없는 것도 그 이유다. 게다가 태양광과 풍력의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발전 비용이 하락하고 있는 것도 국제 사회가 핵발전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로 등장했다. 2030년이 되면 핵발전과 재생에너지의 경제적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예측이다.

전국에는 송전탑, 미래에는 핵폐기물

지난 10월 1일, 국가기반 전력망 확충위원회는 동해안과 호남권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99개의 초고압 송전선로를 계획했다. 에너지고속도로의 시작이라 일컫는 이 계획의 끝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고, 동쪽으로는 울진·삼척의 핵발전소와 석탄발전이, 남쪽에는 영광핵발전소와 대규모 재생에너지가 있다. 그동안 강제 이주, 감상선안, 핵사고 위험 등으로 삶이 내몰렸던 주민들의 희생 뒤에는 수도권의 휘황찬란한 밤과 그 전기를 싼값으로 이용해 이윤을 얻는 기업이 있었다.

1.5도 라이프스타일, 아직도 유효한가?



핵발전이 강요하는 희생은 미래로도 이어진다. 여전히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한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 정부는 꾸준히 고준위핵폐기물 영구처분장을 짓고자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와 지질적 위험성 등의 문제로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10만 년 이상 위험이 이어질 고준위핵폐기물을 과연 어디에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할지 말인가. 고리 핵발전소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률 91%를 비롯해 모든 핵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소는 곧 포화될 예정이다. 핵폐기물 처분장 찾기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위험한 핵폐기물을 만들지 않고, 이미 발생한 핵폐기물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시민의 힘으로 여는 에너지 민주주의의 길

탈핵시민행동은 올여름부터 '나도 탈핵시민입니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핵발전은 위험성은 물론이고 기후위기 대응 방법으로 정의롭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비민주적인 에너지원이라는 사실에 동의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캠페인이다.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희생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핵 전기를 사

용한 우리의 책임을 함께 말하고자 함이다. '재생에너지만으로도 우리가 필요한 전기를 모두 충당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핵발전 사회와의 결별을 이야기할 때마다 등장하는 회의적인 물음이다. 결론은 탈핵하고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충당하는 것은 이미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지리적, 기술적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 전력소비를 훨씬 뛰어넘는 수백 기가와트(GW)에 달한다.

그러니 이제 우리, 질문을 바꿔보자. '가능한가?'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로. 진짜 중요한 과제는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민주적 합의를 높일 것인가다. 우리 지역의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하고 소비할지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계획하고 선택할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이어야 한다. 고리2호기를 시작으로 앞으로 이어질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을 요구하자. 신규 핵발전소와 SMR에 대한 허상을 깨고 재생에너지에 지원을 요구하자. 그리고 핵발전 확대와 비민주성으로 점철된 11차 전기본을 전면 폐기할 것을 요구하자. 지역 분산과 에너지 자립, 정의로운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12차 전기본을 빠르게 수립할 것을 요구하자. 그리고 우리 스스로 탈핵 시민임을 말하고, 에너지 민주주의의 주체가 될 것임을 선언하자.

2020년 유엔환경계획(UNEP)이 '기후위기와 싸우는 10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첫째는 '기후위기에 대해 말하기', 둘째는 '정치를 압박하기'였다.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는 바로 이 압박을 실현할 중요한 장이 될 것이다. 핵발전과 화석연료에 쬐는 빛을 청산하고, 태양과 바람으로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할 새로운 정치의 장이 열리는 것이다. 탈핵과 이어진 태양과 바람 에너지는 단순한 에너지원의 전환이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소수의 전문가와 관료, 거대 자본이 독점해 온 폐쇄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시민의 손으로 되찾는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탈핵 시민'을 선언(<https://people4nuclearfree.com/>)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시대가 요구하는 에너지정의와 기후정의, 그리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드는 희망을 담아 보자. 

계절마다 찾아오게 된 기후재난

걱정했던 대로 기후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2030년 이후에나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던 대규모 재난이 이미 현실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중이다. 전 세계 195개국 이미 10년 전인 2015년 파리협약에서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 제한 목표를 1.5°C로 하자고 약속했다. 그때부터 '1.5°C 안전 경계선'은 인류가 미래를 살아갈 안전 경계선으로 우리에게 알려졌다. 하지만 2024년에 이미 1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C를 추월해버렸다. 최근 연구는 앞으로 2년 안에 완전히 경계선을 넘을 걸로 전망한다.

2025년을 돌아봐도 기후재난의 충격은 분명하다. 인공위성에서도 선명히 식별될 정도의 초대형 산불이 2025년 1월 미국의 캘리포니아와 3월 한국 경북에서 엄청난 피해를 남겼다. 유난히 길어지는 가뭄 끝에 강풍을 동반한 변덕스런 날씨가 적지 않은 영향을 준 탓이 컸다. 기후변화가 산불의 직접 원인은 아니더라도 재난을 증폭시키고 대형화시켰다는 말이다. 한국의 2025년 여름 전국 평균기온은 25.7°C로서 역대 최고 1위를 경신하였고 평년보다 2.0°C나 높았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미국 동부에 이어 프랑스와 스페인, 이탈리아와 그리스에 이르는 유럽 광범위한 지역이 극심한 폭염에 시달렸고 스페인에서는 기온이 무려 46도까지 치솟았다. 프랑스 파리는 더위 탓에 1,900개 학교가 휴교했고, 심지어 파리 명소 에펠탑 출입이 한때 제한되기도 했다. 초고온으로 에펠탑에 약 20cm가량의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는 소식도 덧붙여졌다. 이처럼 계절이 바뀔 때마다 대규모 기후재난이 시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안전한 삶을 위협하고 있다.

삶의 방식의 변화는 또 하나의 시스템 변화

현실화한 기후변화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는 사실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시스템과 탄소 집약적 산업 시스템의 전환을 신속하게 이뤄야 한다. 에너지 의존형 건물과 교통으로 가득 찬 도시 시스템도 변화시켜야 한다. 더 나아가 자원을 절약할 유인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조세 시스템과 성장을 국가 중심 목표로 운영하는 정부 예산 시스템의 개혁도 과제다. 심지어 수익을 위해 기후 희생을 꺼리지 않는 기업 거버넌스 시스템이나 주식회사 시스템도 바꿀 필요가 있다. 이것이 '기후가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자'는 기후 운동의 유명한 캠페인이 지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동안 주목받지 않았지만 바뀌어야 할 시스템도 하나 있다. 우리 시민의 삶의 방식 즉 라이프스타일이다. 산업과 경제에서 탄소 집약적으로 생산된 거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이용하며 폐기하는 우리의 라이프스타일 역시 매우 '탄소 집약적'으로 고착되어 있고, 그 탄소 집약적 라이프스타일이 탄소 집약적 건물 구조와 교통체계, 도시 시스템, 그리고 산업 시스템과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민들 삶의 당연한 일부가 된 자가용 중심의 이동 패턴은 차도와 주차장, 카센터와 주유소 중심의 도시 공간설계와 맞물려 있고, 자가용 중심의 여가문화와 엮여 있다. 또한 자가용 의존적 시민 생활패턴은 탄소 집약적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 시스템에 의해 뒷받침되며, 자동차 제조는 일자리와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기도 하다. 시스템 변화 없이 단지 에너지원만 바꾼다든지, 에너지 효율 기술 도입으로 기후변화를 멈추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시민들의 라

이프스타일을 '탄소 집약적 라이프스타일'에서 '1.5°C 라이프스타일'로 바꾸는 변화가 일어나야만 비로소 온전한 시스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1.5°C 라이프스타일 실천은 기후를 위해 뭐라도 참여해 보려는 평범한 시민들의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일상적인 실천 방안이다. 그동안 많은 기후시민은 위기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심각한 기후위기와 기후재난을 목격하면서, 텀블러 소지나 쓰레기 분리배출 활동을 뛰어넘어 무엇을 더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 질문해 왔다.

물론 매년 광장에서 집합 행동과 참여 기회가 새롭게 열리고 있고, 정부의 턱없이 미진한 기후 대응에 책임을 묻는 기후소송을 응원할 수도 있다. 투표장에서 기후를 위한 참여 공간도 조금씩 커지는 중이다. 이런 실천 방안이 과거 방식보다 적극적인 것은 틀림없지만, 삶의 공간에서 일상적인 실천은 아니다. 사는 공간에서 개인 스스로, 또는 가족이나 지역 공동체와 함께 매일 실천하면서도, 쓰레기 분리배출 같은 기존 방식을 뛰어넘어 실효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도움 될 강력한 방법, 개인 실천이지만 공동 실천으로 확산하고 정부의 제도를 바꾸는 데까지 도약할 수 있는 실천이 바로 1.5°C 라이프스타일 실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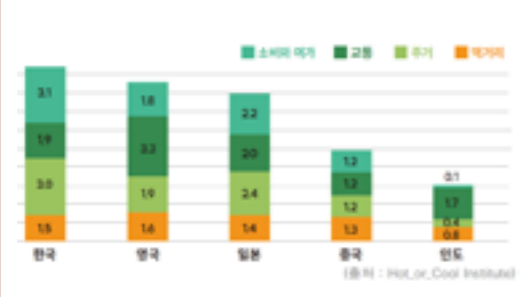
선진국에서 개인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몫은 주거와 교통, 음식의 라이프스타일인데, 탄소발자국의 79%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주거의 경우 건물에서 화석연료로 공급받는 전력 사용이 큰 영향을 주고 난방과 요리에 이용되는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도 큰 몫을 차지한다. 당연하지만 넓은 주거 공간과 높은 생활 수준은 온실가스 배출을 급격히 늘린다. 출퇴근이나 이동을

위해 선택하는 교통수단은 특히 고소득 국가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요인이다. 하지만 일본처럼 대중교통이 잘 발달하면 상당히 줄어들 수도 있다. 다음으로 식생활에서 온실가스 배출은 육식과 우유 소비가 가장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육식 비중이 낮은 일본, 중국, 인도 시민들은 음식의 배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

공동체가 함께 실천할 영역은 많다

그러면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어떤 방식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음식과 주거, 교통, 소비와 여가 각각에 대해 각자 개인이 어떤 영역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이 발생하고 그 주요 원인이 뭔지를 찾아냈다면 영역별로 세 가지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❶ 충분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소비의 물리량을 절대적으로 줄이는 '절대적 감소' 전략, ❷ 소비량을 줄이지 않는 가운데 기술혁신으로 온실가스를 감소시키는 '효율성 개선' 전략, ❸ 온실가스가 덜 나오는 다른 대안으로 갈아타는 '더 나은 대안으로 전환' 전략이 그것이다. 한국인의 일상 어떤 부분에서 온실가스 배출 영향이 가장 큰가를 녹색전환연구소가 조사해본 결과, 연간 항공기 이용 시간과 주거 면적 차이가 배출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내연기관차 이용, 여행, 보유 가전제품 수, 주당 외식 수, 연간 옷 구매수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인데, 비행기나 내연 자가용 등 특정 교통수단이 단일 요소로 영향이 크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우리도 이 점을 감안하여 실천을 해볼 수 있다.

【그림1】 시민 일상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영역들(단위 톤)



【그림2】 시민의 일상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세 가지 방법



여기서 특히 주의할 점은 주거, 음식, 교통 등의 일상에서 '충분성'의 원칙을 실천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으나 부족한' 역설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다. 미국의 교육학자 아브람 알퍼트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생산과 풍요 속에서 살고 있고 그래서 넘치고 버려지는 지경이지만, 이 순간에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은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치료받지도 못하고 있다. 한편 기계화, 자동화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생산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바쁘고 쉴 틈이 없다"

주거와 음식, 교통 모든 일상의 삶을 바꾸자

따라서 우리가 1.5°C 라이프스타일을 실천하는 방식은 곁핍을 해소하고 기본적인 필요를 만족시키는 데 충분한 정도의 주거와 음식, 교통을 소비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적 공간과 공유자원을 더욱 풍요롭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사적 충분성과 공적 풍요로움(private sufficiency, public abundance)'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충분성보다 효율성을 높이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단열로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 각종 가전제품의 효율을 높이면 말이다.

하지만 단위당 효율성을 높인다고 해서 전체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효율이 개선되는 속도가 사용량이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제본스 역설'이라고 알려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엔진의 효율 개선이 늘어나는 자동차 수를 따라잡지 못하고, 가전제품들의 뛰어난 에너지 효율 향상이 역시 가전제품 자체의 양적인 팽창으로 상쇄되는 사례가 그것이다. 그러므로 시민의 일상 실천에서도 '충분성'을 우선하면서 '효율성'을 고려하는 라이프스타일이 필요하다. 비슷한 취지에서 독일 부퍼탈 연구소도 "충분성은 소비와 생산에 있어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다. 기술혁신만으로는 지속 가능성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과학적 증거가 점점 더 많이 제시되고 있다. 대신에 충분성 전략을 통합하는 것이 해마다 증가하는 상품 수요를 제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제안한다.

1.5°C 라이프스타일 실천을 통해 시민 개인은 각자가 관성화된 기존의 탄소 집약적 생활 방식을 기후 친화적으로 새롭게 바꾸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온전히 혼자 실천하는 방식일 필요는 없다. 1.5°C 라이프스타일 실천은 좀 더 관계의 친밀도가 높고, 생활 공간이 겹치는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함께 실천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다. 생각해 보면 생활 방식을 바꾼다는 것이 결코 단기간에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연초에 나쁜 생활 습관을 바꾸려는 결심과 노력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았고, 또 그만큼이나 실패한 경험을 기억한다면 이는 명확하다. 더욱이 탄소배출을 줄이는 실천은 더욱 낯선 데다가 주위 여건이 도움을 주는 경우도 많지 않다. 따라서 친밀한 공동체가 함께 서로 자주 접촉하며 격려와 지원을 해줄 뿐만 아니라, 가급적 인접 생활 공간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참여하여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적 실천에는 공동의 실천을 하고 각자의 소감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목소리와 정책 제안을 담을 수 있는 워크숍이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워크숍에서는 우선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공동체 안에서 질문은 이것이 가능하기 위한 사회·문화·구조적인 지원 방법을 고민하는 일로 이어지며, 이것은 바람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을 도출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불편한 정책을 우리는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 질문을 던져보자. 교통 분야에서 항공 옵션을 점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기차 등 대체 수단을 도입하는 방안이나 이동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항공세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스웨덴과 덴마크), 그리고 먹거리 분야에서 기후발자국에 따라 순위를 매기는 식품 기후 라벨링(덴마크) 등이 사례가 될 수 있다.

이 선택지가 낯선가? 불편한가? 그렇다면 왜 그러한지, 개인은 어디까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어떤 조건을 준다면 이 선택지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과정과 공동체 토론은 현재 우리 사회의 라이프스타일 전환에서의 장벽과 촉진 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며 이는 실효성 있는 전환 정책을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후 위기가 일상을 위협하는 데 이른 지금, 1.5°C 라이프스타일 실천은 더욱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지역에서 커뮤니티에서 함께 실천을 시작해보자.

오늘의 싱가포르YWCA를 만든 150년의 전략과 실천



한국YWCA 대표단이 싱가포르YWCA 회장과 사무총장에게 축하 선물(따주YWCA 허해숙 회장의 압화 작품)을 건네고 있다.

차별과 배제없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성평등사회
2025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싱가포르YWCA의 창립 1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싱가포르 현지에서 열렸다. 1875년 설립된 싱가포르YWCA는 싱가포르 최초의 여성 단체로서 여성의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돌봄을 위해 선구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50년의 여정을 기념하는 동시에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였다. 한국YWCA에서는 조은영 회장, 박은실 사무총장, 유은비 국제협력부 활동가가 아시아 지역 8개국 YWCA(대만, 말레이시아, 미얀마,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홍콩) 대표단 30여 명과 함께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축하를 넘어, 아시아 지역 YWCA 간 연대를 다지고 싱가포르YWCA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사회적 실천을 직접 배우기 위함이었다.

첫날인 28일에는 YWCA 포트캐닝 호텔에서 YWCA 대표단 환영 만찬이 열려 각국 대표단과 싱가포르YWCA 회장단 및 이사가 만나 환영과 축하의 인사를 나누었다. 이어 29일 열린 창립기념식은 YWCA의 역사와 비전을 후원자와 회원, 시민들과 나누며 만찬, 공연, 자선경매가 어우러진 축제의 장이었다. 29일과 30일에는 싱가포르YWCA와 협력 기관과 단체를 방문하여 지역사회 복지와 여성운동의 현장을 직접 배우는 탐방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싱가포르YWCA는 150년 여정의 유산을 우선순위에 집중하기 **Prioritizing**,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도전하고 개척하기 **Pioneering**, 변화를 만들기 위해 연결하고 연대하기 **Partnering** 라고 규정하고 있다. 초창기부터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두고 교육, 자립과 생계, 돌봄 지원 등 여성의 실제적 필요에 집



① 싱가포르YWCA 150주년에 참가한 아시아지역 대표단. ②③ YWCA 포트캐닝 호텔에 전시된 YWCA의 활동 홍보물품. ④ 싱가포르YWCA의 Weaving & Craft Studio에서 Hope Maker들이 직조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⑤ 1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타이페이YWCA Jaye Lee 부회장(왼쪽부터) 싱가포르YWCA Janet Tang 이사, 한국YWCA 조은영 회장(왼쪽부터). ⑥ 싱가포르YWCA의 미션과 실천 원칙,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발표 슬라이드.

중하며 성장해 왔고,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꾸준히 여성이 마주한 현실을 진단하고 자신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었다.

집중하고 Prioritizing, 도전하고 Pioneering, 연결하라 Partnering
특히 싱가포르YWCA는 오늘날 싱가포르 내 여성들이 마주한 문제를 명확히 진단하고, 이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전략적인 실천 방안까지 설계했다.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이 모여 살고 이주 인구가 많은 싱가포르에서 외국 국적을 가진 기혼 여성들은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자립이 어렵고, 돌봄노동과 생계노동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들은 저임금과 육체적·정신적 소진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 싱가포르YWCA는 이를 경제적·사회적·구조적 장벽이라는 세 가지 층위로 분석했다. 그리고 이 장벽들이 서로 맞물려 여성의 삶을 제약하는 현실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 “여성의 몸, 마음, 영혼을 전인적으로 강화하여 경제적 자립과 안녕을 이루게 한다”라는 명확한 사명을 세웠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참여 **Engage**, 역량강화 **Equip**, 도약 **Elevate** 이라는 3단계의 실천 원칙을 세웠다. 각 프로그램은 단순한 서

비스 제공이 아니라, 삶의 주체로서 여성을 재구성하는 과정으로서 접근하고 있었다. 여성의 상황에 따라 신체적 건강이나 심리적 회복을 돕고, 필요한 언어나 기술, 재정 지식을 익히며 스스로의 일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Weaving & Craft Studio는 이러한 싱가포르YWCA의 철학이 구현된 대표적인 사례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여성들이 함께 모여 직조 기술을 배우고, 직접 직물을 짜며 자신의 삶을 회복한다. 여성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관계를 형성하며 서로를 위한 지지기반이 되어주고, 직조 기술을 통해 자기 작품을 만들고 판매하며 경제적 자립의 기반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단순한 시혜자가 아니라, 실을 엮듯 자신의 삶을 직접 엮어가는 “Hope Makers” 즉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된다. 싱가포르YWCA의 사명과 사회적 역할은 선언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었다. 동시에 YWCA의 역할을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하고 배움과 파트너십을 통해 한계를 넓혀가고 있었다.

왜 지금, YWCA는 안전한 공간을 말하는가

우리에게는 저마다 마음 편히 머물고, 온전히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의 많은 청소년과 청년에게 그러한 자리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이들은 입시와 취업이라는 끝없는 경쟁의 압박 속에서 숨 돌릴 틈을 찾지 못하고, 심화되는 사회적 고립감과 혐오와 차별의 언어,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통계에 따르면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고립·은둔 청년은 약 54만 명에 달하며, 청소년 10명 중 4명 이상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느끼고, 사망 원인 1위는 13년째 변함없이 자살이다. 갈 곳이 없어 편의점이나 무인 상점을 아지트 삼는 청소년들의 모습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놓고 소비하는 공간을 넘어, 잠시 숨을 고르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존재 자체로 존중받을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며, 한국YWCA는 2026-2027년 운동정책의 핵심 과제로 청소년·청년운동을 위한 ‘안전한 공간 Safe Space’를 제안한다. ‘안전한 공간’이라는 말이 다소 낯설거나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지난 100여 년간 YWCA가 청년들과 함께 정의·평화·생명의 가치와 시민의식을 배우는 배움터가 되어주고, 사회 문제를 토론하며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광장을 열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연대하며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를 만들어온 역사 그 자체를 오늘의 언어로 다시 이름 붙이고, 그 가치를 운동의 중심으로 세우려는 시도이다.

그렇다면 왜 지금, ‘안전한 공간’ 구축이 청소년·청년운동의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인 과제가 되어야 하는가?

단순한 ‘공간’을 넘어 관계와 신뢰의 ‘자리’로

세계YWCA는 ‘안전한 공간’¹⁾을 “신체적 또는 가상적으로, 여성과 소녀들이 판단이나 폭력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전하고, 포용되며, 존중받고,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자리”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곳이 단지 물리적인 건물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폭력과 혐오로부터의 안전Safety, 존재 자체에 대한 존중Respect,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참여Inclusion, 진솔한 관계를 맺는 신뢰Trust,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경청Listening, 그리고 자신의 삶을 결정할 힘을 되찾는 권한 부여Empowerment의 원칙이 살아 숨 쉬는 관계의 생태계 전체를 의미한다.

YWCA가 만들고자 하는 안전한 공간은 청소년·청년들이 폭력과 혐오, 차별로부터 보호받고, 서로를 존중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실험적 공동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청소년과 청년들

삶 속에서 구현된 실천의 장

기존 YWCA 호스텔로 운영되던 건물을 리모델링한 YWCA 포트캐닝 호텔은 싱가포르YWCA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싱가포르YWCA는 이 공간을 통해 재정적 자립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이루어냈다. 호텔의 수익은 YWCA의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이 되고, YWCA의 가치를 담은 공간으로 운영한다. 곳곳에 YWCA의 역사와 사명을 소개하는 전시와 문구를 배치해 소비자의 숙박이 지역 사회와 여성에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주고, 식당에서 한 끼 식사를 하면 지원이 필요한 여성에게 도시락이 제공되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윤리적 소비를 독려한다. 활발한 관광 산업의 특성을 살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자연스럽게 YWCA의 미션과 가치를 경험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150주년 기념식에서도 생생히 드러났다. 자체적인 축하 행사로 만들기보다 시민들이 관심 가질 만한 공연과 자선경매 등의 이벤트로 채워 행사 자체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Weaving & Craft Studio의 여성들이 생산한 작품들로 패션쇼를 하거나, 기념식 참가 티켓과 경매 수익이 어떻게 다시 지역사회의 여성들에게 환원되는지 명확히 보여줌으로써 YWCA의 활동을 자연스럽게 홍보했다. 즐거운 참여를 통해 YWCA의 사회적 기여에 동참하도록 초대하는 구조이다. 또한 싱가포르YWCA는 자신들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에서는 주저하지 않고 협력기관과의 파트너십을 맺고 공통의 가치를 위해 함께 나아가고 있었다.

이번에 방문한 현장 중 Jayou센터에서는 돌봄 노동을 담당하는 여성과 만성질환 또는 치매를 있는 시니어를 위한 복합 돌봄 공간으로 맞춤형 건강 관리와 심리적 회복을 지원했고, Dignity Kitchen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며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드는 동시에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여 돌봄 노동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메트로폴리탄 YMCA에서도 옥상 도시농업 프로젝트를 통해 서로 다

른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작물을 기르고 농법을 가르치며 이를 통해 자립과 공동체의 힘을 키워가고 있었다. 모든 현장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라는 집단으로 분류하여 사회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이들, 즉 ‘장애가 있는Dis-abled’ 존재가 아닌 ‘다르게 능력을 지닌differently-abled’ 존재로 보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싱가포르YWCA가 여성들을 Hopemaker로 보고, 직접 삶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경제, 복지, 돌봄 등 사회의 여러 층위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공통의 가치는 공유하되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존중하는 협력 구조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지만, 함께라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YWCA의 역할,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싱가포르YWCA의 150년을 관통하는 핵심 동력은 연결하는 힘이었다. 이들은 자신의 역할을 연결자connector이자 촉진자catalyst로 정의하며, 사람과 사람, 다양한 공동체와 세대를 이어왔다. 그 결과 YWCA는 단순히 여성을 위한 복지기관을 넘어, 서로 다른 존재들이 교류하며 변화를 만들어 가는 사회적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150주년 행사 내내 아시아 지역 YWCA 활동가들과 교류하고 다양한 사회적 실천을 경험하며 연결자이자 촉진자로서 싱가포르YWCA가 만들어내는 힘을 느낄 수 있었다.

YWCA의 사명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운영을 가능케 한 전략, 지역사회 안에서 서로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수행은 올해로 103주년을 맞아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고 지역운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한국YWCA에게도 유용한 길잡이가 된다. 지역과 시민을 연결하며 변화를 만드는 운동 주체로서 한국YWCA의 다음 50년, 100년을 생각하며 우리 역할과 사명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

+++

1 Our Spaces, Power Spaces: YWCA's Safe Spaces Guide(2022) : <https://www.worldywca.org/team/our-spaces-power-spaces-ywcas-safe-spaces-guide/>

은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며 소속감을 느끼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생각을 탐험하며 리더십을 연습하는 경험을 통해 변화의 주체 agents of change로 함께 성장한다. 즉, 안전한 공간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청년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힘의 공간 Power Space'이 되는 것이다. 세계YWCA의 메시지처럼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말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을 때 이끌 수 있으며, 이끌 수 있을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한 공간은 청년들이 세상의 부당함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상상하며,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될 힘을 기르는 출발점인 것이다.

참여자에서 주체로, 운동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다

오늘날 YWCA 청소년·청년운동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YWCA 안에서 청소년들은 이들을 위한 전용 공간이 부재한 현실적 어려움과 더불어, 참여 활동이 주체적인 민주시민 활동이 아닌 단순 봉사활동으로 여겨지는 제도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청년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2024년 조사에 따르면 YWCA의 청년 회원은 전체 회원의 0.39%에 불과하며, 이들의 가입 동기 1순위 또한 '봉사활동'이었다. 이는 청소년과 청년 모두 YWCA 운동의 가치와 정체성에 기반한 주체적인 참여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발성 프로그램 참여에 머무르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7·80년대 학생운동 시절 청년이 문제 해결의 주체였던 것과는 달리, 이제 청소년과 청년은 YWCA 안에서조차 운동의 대상이나 참여자로 머물고 있다. 이제 단순한 체험이나 스펙 쌓기를 위한 봉사활동만으로는 각자도생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을 붙잡을 수 없다.

'안전한 공간' 정책은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전환을 제안한다. 이는 시혜적인 프로그램 제공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청소년·청년이 운동의 참여자에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에 목표를 둔다. YWCA 안에 머물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동료들 만나고,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인 회원 수 증가를 넘어, YWCA 운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자, YWCA의 정체성인 '청년성(Young)'을 회복하는 출발점이다.

변화의 시작, 우리 곁의 '안전한 공간'

YWCA가 추구하는 안전한 공간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재발견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군산의 '로컬프렌들리'² 사례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다. YWCA 청년들은 YWCA 활동을 통해 체득한 공동체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고, 이를 확대와 공동체라는 비즈니스 모델로 풀어내며 청년들 스스로 지역 안에서 자립과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관계의 거점'을 만들어냈다. 이는 안전한 공간이 단순한 쉼터를 넘어 어떻게 청년의 자립과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정서적 불안과 사회적 단절의 시대, 청소년과 청년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함께 미래를 상상할 자리가 필요하다.

YWCA의 '안전한 공간' 구축은 바로 그 자리를 우리 곁에 만드는 일이다. 이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해왔던 활동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청소년·청년의 눈높이에서 새롭게 운동의 판을 짜는 구체적인 실천이다. 전국 각지의 YWCA가 우리의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그들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며 스스로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를 만드는 일에 힘을 모을 때, YWCA 운동의 미래 또한 그 안에서 새롭게 열릴 것이다. 이 작은 공간들이 연결될 때, 한국 사회는 청년들에게 조금 더 따뜻하고 희망적인 곳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

² 로컬프렌들리의 자세한 이야기는 2021년 격월간 <한국YWCA> 에 연재된 '로컬프렌들리 이야기'를 참고해 주세요.

안전한 공간은 진행형입니다

세계YWCA Safe Space와 한·일YWCA협의회, 그리고 티티섬 실천 사례

안전한 공간은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

2025년 7월, 일본에서 열린 제12회 한·일YWCA협의회 주제는 "YWCA가 청소년·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Safe Space"였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한국과 일본의 YWCA 활동가 23명은 지금 청년들에게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했다.

한·일YWCA협의회 토론 시간에 세계YWCA의 Safe Space 8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 대화를 나눌 때, 한 일본 활동가가 말했다. "이 8가지 요소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지켜나가야 하는 약속이라는 점입니다."

안전한 공간은 선언이 아니라, 매일의 실천으로 증명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깨닫는다.

세계 YWCA의 Safe Space, 신뢰를 쌓는 9가지 약속

세이프 스페이스(Safe Space)란 '신뢰 있는 공간'이다. 세계YWCA는 2035년까지 1억 명의 젊은 여성과 소녀들이 정의롭고 성평등하며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Safe Space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Safe Space의 정의는 명확하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모든 사람이 정치적·경제적·개인적 위해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자신의 경험, 의견, 관점을 나눌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간"

그리고 이를 위한 8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한다.

- ① 접근 가능하고 안전한 위치 : 청년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 물리적으로 가깝고, 심리적으로 문턱이 낮은 곳.
- ② 리더십과 참여 : 청년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공간을 함께 만드는 주체'이다.
- ③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 편견 없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
- ④ 신뢰 구축 : 비밀이 보장되고, 판단받지 않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
- ⑤ 통합적 접근 : 청년의 삶 전체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곳.
- ⑥ 세대 간 협력 : 청년과 선배 세대가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곳.
- ⑦ 존엄과 존중 : 어떤 배경, 어떤 정체성을 가진 청년이든 존중받고 권리를 보장받는 곳.
- ⑧ 파트너십과 책무성 :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곳.

한일 YWCA의 공동 다짐 : 지속적인 실천

한·일YWCA협의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다음을 약속했다: "Safe Space는 단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존중과 배려, 성찰과 연대가 살아 숨 쉬는 사회적 실천입니다." 특히 두 나라 YWCA는 지금 청년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직시했다. 일본YWCA는 전쟁 책임 회피와 오키나와 미군 성폭력 문제를, 한국YWCA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위안



부” 문제부터 현재의 백래시까지, 여성과 청년에 대한 폭력과 혐오의 문제를 나눴다.

청년에게 안전한 공간이 필요한 이유는 명확하다. 지금 사회 자체가 청년에게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YWCA는 다음을 실천하기로 했다.

- 청년이 만나 경험을 나누고 사회적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

- 청년이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획회와 공간 마련

- Safe Space 실천 사례를 기록하고 동아시아에서 경험 공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일회성 선언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천이라는 점이다.

티티섬 - 신뢰를 쌓아가는 청소년 중심 도서관

내가 몸 담고 있는 라이브러리 티티섬은 청소년 중심 공공 도서관이다. 티티섬에는 화려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 대신 언제든 올 수 있는 '공간', 언제든 원하는 대로 시도해볼 수 있는 '자료-재료-도구', 그리고 일관성 있게 신뢰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

티티섬에서는 물리적 환경 못지않게 신뢰를 기획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회에 안전한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신뢰를 실험한다.

“정말로 여기서 아무거나 시도해도 되는 곳일까?”

“진짜로 나도 존중받을 수 있을까?”

“실수해도 괜찮을까?”

그 의심의 눈초리에 우리는 일관되게 답한다. “응, 괜찮아. 네가 있는 그대로 있어도 돼.”

이 일관성이 쌓여서 신뢰가 이루어진다. 그 신뢰 위에서 청소년은 비로소 주체성을 가지게 된다. 주체성은 강요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 신뢰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이다.

신뢰 기획자, 경험 기획자로서 우리가 하는 일

환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지?”

티티섬의 첫 번째 언어는 ‘환대’이다. 환대는 환영과 다르다. 환영에는 ‘주인’과 ‘손님’이라는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 있다. 우리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는 안내자의 언어 대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지?”처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누는 소소한 일상 대화로 청소년을 맞이한다. 이 편안함 속에서 청소년은 비로소 ‘이용자’라는 틀에서 벗어나, 이 공간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 존재하기 시작한다.

존중: “더 안전하게 도전해볼 수 있는 게 저쪽에 있는데, 함께 해 볼래?”

어느 날, 한 청소년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려고 했다. 우리는 “올라가면 안 돼!”라고 제지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아, 뭔가 높은 곳에 올라가 보고 싶구나? 저쪽에 더 안전하고 재미있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함께 가볼래?” 우리의 역할은 청소년의 에너지를 규정이나 권위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하고 흥미로운 방향으로 흐르도록 하는 것이다. 관리자처럼 통제하는 대신,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파트너로 존재한다.

경청: 표면적 대화 너머의 진짜 욕구 발견하기

티티섬에서는 모든 대화가 기획의 시작이다.

한 청소년이 이렇게 말했다. “요즘 친구랑 싸워서 좀 그래요. 인기 있는 애들은 다 저 게임 하던데, 저는 같이 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듣는 것은 ‘친구와의 갈등’과 ‘게임 이야기’였다. 하지만 우리가 발견한 것은 ‘소속감에 대한 갈증’과 ‘안전한 관계 맺기에 대한 욕구’였다. 그래서 티티섬은 단순히 ‘게임 대회를 여는 것’이 아니라, ‘취향이 비슷한 청소년들이 느슨하게 연결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기 시작했다. 또 다른 청소년은 무언가를 만들다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아, 이거 왜 안 돼! 여기 이런 도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듣는 것은 ‘불평’이었지만, 우리가 발견한 것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막힘없이 구현하고 싶은 창작의 욕구’였다. 그래서 더 나은 도구를 비치하고, 도구 사용법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워크숍을 기획하게 되었다.

세계YWCA의 8가지 요소, 티티섬에서는 이렇게

- ① 접근 가능한 위치: 학교 끝나고, 학원 가기 전, ‘사이 시간’에 부담 없이 들 수 있는 곳
- ② 리더십과 참여: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가 실제 프로

그램이 되는 곳.

- ③ 정확한 정보: 성정체성, 진로, 관계 등에 대해 판단 없이 정확한 정보를 나누는 곳
- ④ 신뢰 구축: “저 좀 이상한 사람이죠?”라는 질문에 “전혀”라고 일관되게 답해 주는 곳
- ⑤ 통합적 접근: 책만 읽는 곳이 아니라, 밥도 먹고 그냥 멍 때려도 되는 곳
- ⑥ 세대 간 협력: “나도 그랬어. 그래도 괜찮아질 거야”라고 말해주는 선배가 있는 곳
- ⑦ 존엄과 존중: 어떤 모습이든 그 자체로 존중받는 곳
- ⑧ 지속가능성: 지역사회와 함께, 매일의 실천으로 만들어 가는 곳

신뢰는 매일 증명된다

안전한 공간은 매일 만들어진다. 한·일YWCA협의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워크숍 시간이었다.

“안전한 공간에 필요한 것과 없어야 할 것”을 나누며, 한국과 일본의 활동가들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안전한 공간은 선언문이나 매뉴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직접 경험하고, 느끼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는 뭐 해도 되는 곳이에요?”라고 물었던 그 청소년은 이제 다른 청소년에게 이렇게 말한다. “응, 여기는 뭐 해도 돼. 걱정 마. 나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는데, 진짜야!” 안전함은 이렇게 사람에서 사람으로, 경험에서 경험으로 전해진다.

YWCA는 이미 오랫동안 환대의 공간, 신뢰의 공간으로 존재해 왔다. 이제 우리는 그 신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해야 할 때다. 프로그램이 많은 곳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곳. 한 번의 선언이 아니라, 매일 일관되게 신뢰를 증명하는 곳. 누구나 ‘나’로 존재할 수 있고, 실수해도 다시 올 수 있는 곳. 안전한 공간은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그 신뢰를 쌓아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간다.

지역의료, 공론장을 넘어 새로운 시도로!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공공의료를 이용하거나 민간의료를 소비하며 사는데 '의료소비자'로서 정체성과 주체성이 있느냐는 지점은 늘 의문이었다. 의료의 중요한 중심축이며 당사자인 소비자는 배제되거나 논의의 주변에 머무르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던 차에 한국YWCA연합회와 시민대학 '빠띠'가 <의료공론플랫폼>을 열어 반겼다. 평소 소비자 입장에서 할 말 많은 맞춤형 주제로 구성된 4회차의 공론장은 다양한 지역과 연령대의 참가자들과 의견을 주고 받는 장이 되고 있다.

가끔이긴 하지만 진료실이나 병원에서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맞닥뜨린 난감함과 불편을 겪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진주 시민인 내가 의료 공공성에 관해 처음 생각한 계기는 2013년 진주의료원 폐쇄 과정을 접하면서다. '서부경남 공공의료원 지키기' 연대활동은 의료취약계층의 현실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지역의료에 대한 고민으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지난 정부, 의대증원 반발에 따른 의료과업사태 대혼란은 아직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개인적으로는 부모님 진료일마다 3차 의료기관의 여러 절차를 보호자 입장에서 수행하는 것인데, 적지 않은 시간과 에너지, 비용이 든다. 부모님 진료동행 날은 어김없이 초고령화 시대에 맞는 소비자 중심의 의료 현장에 대한 갈증이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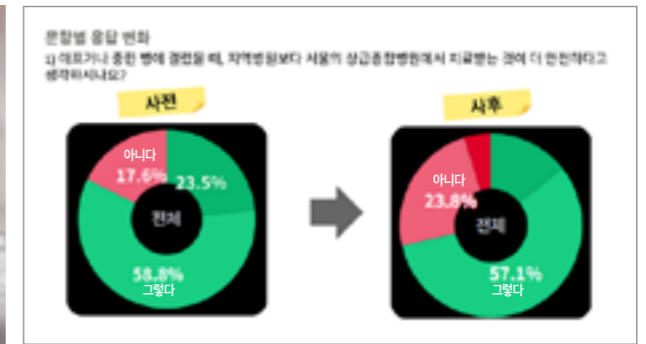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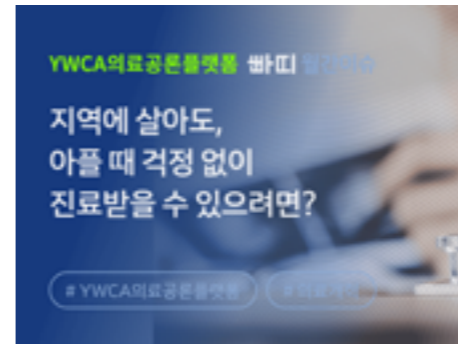
그 가운데 올해 네 번의 YWCA의료공론플랫폼 가운데 3차 시민대화모임이 9월 24일(수) 저녁에 온라인 줌으로 진행되었고 주제는 '지역에 살아도, 아플 때 걱정 없이 진료받을 수 있으려면?' 이었다.

먼저 소그룹대화에서 지역과 연령대가 다양한 참가자들의 시선을 접할 수 있었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생생한 사례들은 지역의료에 관한 고민의 줄기는 같으나 거주 지역에 따른 편차와 환경, 개별 상황이 주는 다른 결과지들도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병의원 진료 투어, 상급병원 원정 피로감

소그룹에서 만난 대전, 진주, 함양 서울, 군산 주민들과 '지역의료 취약성'에 관한 주제로 대화가 시작되었다. 병원접근성이 취약한 시골일수록 읍내나 중심권 볼 일 보러 나선 날이 병의원 진료 투어를 하는 날이므로 의약품 의존도와 과잉 진료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동네에서 어려움 없이 1차 진료를 받을 수 있고 2차, 3차 병원이 있는 일정규모 도시 거주민들은 더 나은 시설 장비와 의료진을 찾아 상급병원 원정을 가게 되므로 너나할 것 없이 의료소비자로서 높은 피로감이 있음을 나누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의료인이라 할 정도로 의료 관련 지식과 상식이 넘쳐나고 과열된 분위기 속에서 진료와 검진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문제라는 생각에 모두 공감하였다.



소비자의 잘못된 의료 상식과 근거 없는 맹신이나 불신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 의료행위와 진료에 걸림돌이 된다. 좋은 정책과 그것을 실현하는 현장이 가능하려면 소비자 영역(의료이용자, 환자와 보호자, 관계 인구, 지역공동체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시민대화모임에 참여한 이들은 의료소비자 주체성과 인식 변화가 어느 요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대화는 지역의료 취약성 극복 방안으로 이어져

모두가 만족하는 의료생태계를 위한 단기간의 해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건강한 의료는 보건, 간호, 돌봄 등과 유기적 연결에서 가능하며 다학제적 접근과 협력을 필요로 한다. 더욱이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에 관하여는 누구에게나 최상위 우선순위가면서 첨예한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지역의료보다 수도권 대형병원에 더 신뢰를 두는 기존의 아성은 선제적으로 국가 차원의 공공성 기반 지원을 해 나감과 동시에 지역병원이 대학병원과 원격의료, 협진시스템 확대로 가야 하는 것에 이견이 없었다.

또한 지역에 공공의대와 공공병원을 설치하는 것은 지역 의료 문제 해결에 일부 도움이 되겠지만 기존 의료시스템과 소비자 인식변화가 없다면 정책의 실현과 운영의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고 예산낭비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대화의 막바지는 '내가 사는 지역에 꼭 있었으면 하는 의료'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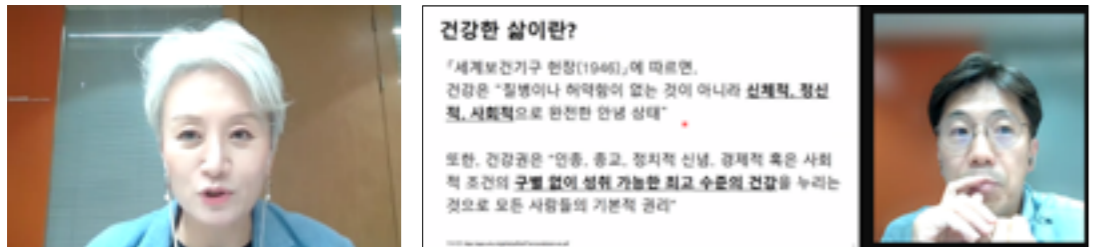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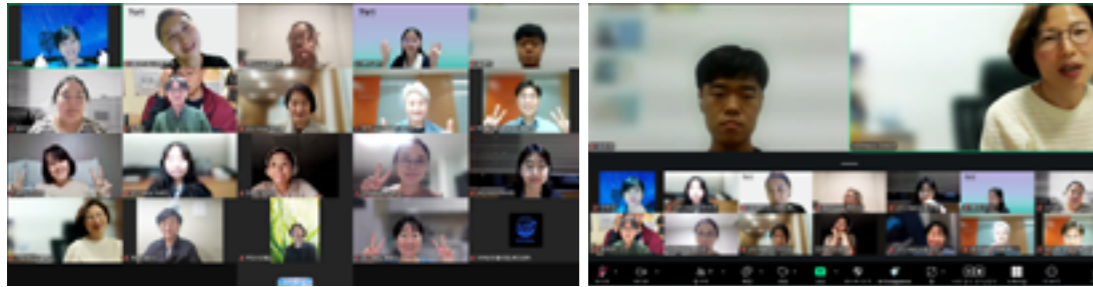
100년에 육박하는 평균(기대)수명으로, 취약한 상태로 오래 살기만 할까봐 걱정인지라 의료소비자 시각이 확장될 수밖에 없다. 신체적 취약성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과 정서적 지지에 이르기까지 돌봄, 보건, 의료의 우리 집에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통합적 시스템으로 가동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공통 의견으로 수렴되었다.

건강의 정의에서 1차 의료의 미래까지

그룹 대화에 이어 '건강의 정의에서 1차 의료의 미래까지'를 주제로 박건희 평창군 보건의료원장의 강의를 있었다. 건강은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하는 기본권이므로 의료는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지역공동체, 사회 환경적 변화를 포함하여 설계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각자도생적 의료체계가 개인 편차와 양극화를 낳고 있으므로 큰 틀에서 전반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강한 의료생태계는 대형병원이나 최신식의 장비보다 보건의료소 등 1차 의료 인력의 역할로부터 나오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이다. 의료와 기본권에 관한 기본 정의와 방향성을 먼저 설정해야 한다는 강의에 동의하는 만큼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여 답답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었다.

“YWCA 안에서 하나인 우리”



YWCA의료공론플랫폼 3차 시민대화 모임 사진

정책이 의료현장에 매끄럽게 연결되려면 공론과 속의를 바탕으로 도출된 소비자의 제안이 반영된 정책이 입안되어야 하고 그 효능감이 시민의 몫이 될 때 가능하다. 예컨대, 수도권 쏠림 분산을 위해 시민숙의와 공론으로 제안한 형태의 특구, 특화, 거점병원 등의 허브를 만들고 그것을 지역공동체와 함께 구현되도록 참여하며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 의료인, 소비자 등 모든 주체가 통하는 보건의료시스템 가동을 위하여 연대와 참여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의료소비자로서의 감각을 잘 유지하는 것은 소비자 시민의 몫이다.

그 중요성에 비하여 오랫동안 간과된 예방의학 분야 확대를 견인하고 거주지에서 맞춤형 진료받는 순환진료, 협진체계 구축, 재택과 원격진료의 적극적 도입이 가능하려면 소비자 인식 전환이 우선이다.

소비자연대는 친편일률적이거나 기존구도를 강화하는 정책과 병의원시스템에 저항의 소리를 낼 수 있고, 소비자 맞춤형 다양한 의료환경 구축에 관한 제안과 실현도가

능하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한적이고 소극적 차원의 의료이 아니라 수발, 의료, 간호, 복지 상담까지 확대된 지역돌봄과 연계가 바탕이 되는 지역의료체계를 갖추어가기 위해서 시민참여는 더욱 필요하다.

지역사회 돌봄의료시스템 가동 원해

하루를 살더라도 내 공간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 말하는 시설 장애인, 평생 살아온 동네에서, 내 집에서 죽음을 맞고 싶은 노인, 무한반복의 돌봄이나 간병으로 지치고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족 등 모두가 만족할 지역사회 돌봄의료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서라도 실력 있는 공공의료, 신뢰할 지역의료의 확대가 절실하다.

그룹 대화에 참여하고 주제 강의를 듣고 난 후, 참가자들의 답변으로 구성된 은하투표 별무리에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건강한 지역의료생태계를 만드는 힘은 소비자 주권으로 만들어가는 시대가 왔음을 절감한 공론장이었다. 🌟

2025 YWCA 중견실무활동가교육이 9월 16일(화)부터 18일(목)까지 2박 3일간 전남 신안군 도초도에서 ‘섬마을 인생학교’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은 자연 속에서의 섬과 재충전을 통해 내적 역량을 강화하고, 활동기간 교류와 상호연대를 통해 공동체적 리더십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광주·대전·목포·부산·서울·제천·진주·청주·평택 9개 회원YWCA에서 13명의 중견실무활동가들이 참여하였다.

교육이 진행된 도초도는 목포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1시간 남짓 들어가면 닿을 수 있는 평온한 섬마을이다. 이곳에서 활동가들은 여는 예매로 교육을 시작하며, 2박 3일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활동가들 간의 연대와 나눔이 가득하기를 기도하였다.

서로가 책임 되어 나는 이야기, <YWCA 사람책방>

첫째 날 저녁에는 이번 교육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YWCA 사람책방>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네 명의 활동가가 ‘사람책(Book)’이 되어 각자 YWCA에서 경험과 고민을 진솔하게 나누었다.

목포Y 조아라 팀장은 ‘일의 의미’를 주제로 Y턴과 함께한 시간을 회고했다. 조아라 팀장은 “Y턴 청소년들이 저를 찾아주고 함께 성장해 온 시간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인생의 의미였다”며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자신을 지탱해 온 힘이었다고 말하였다.

광주Y 김영경 부장은 ‘신임에서 중견으로’라는 주제를 통

해 신입 시절의 서툰고 힘들었던 시간을 떠올렸다. 김영경 부장은 “신임은 성장하는 자리라면, 중견은 함께 성장하도록 돕는 자리”라며, 후배와 조직을 함께 세워가는 책임을 강조했다.

서울Y 정승원 간사는 ‘침체와 극복’을 이야기하며 활동과정에서 겪었던 위기와 어려움을 나누었다. 때로는 억울함과 압박감에 무너질 뻔했지만, 가족의 지지와 기도로 일어설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자전거를 타면서 일상의 무게를 내려놓고 새로운 시선을 얻으며 마음을 회복했다며, “가장 힘든 순간을 견디게 하는 것은 결국 곁에 있는 사람들과 나를 지탱해 주는 삶의 작은 기쁨들”이라고 소개하였다.

진주Y 윤인주 간사는 ‘꿈과 비전’을 주제로 앞으로 5년, 10년 뒤 Y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윤인주 간사는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처럼 앞으로도 Y 속에서 내공을 쌓으며 한층 더 전문적인 활동가가 되고 싶다”고 다짐하며, Y가 자신에게 준 배움과 성장을 감사히 되새겼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삶과 고민이 담긴 이야기를 경청하며 공감과 위로를 나눴다. 각자의 길은 달랐지만, “YWCA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동행자”라고 마음을 모았다.

자연 속에서의 심, 그리고 행복

둘째 날 아침 참가자들은 도초도의 트레킹 코스를 걸으며 바다와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을 온몸으로 느꼈다. 걷는 동안 자연이 주는 위로와 평안 속에서 활동의 피로



(위)중견실무활동가교육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나눔 시간을 보내고, 도초도를 탐방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습.

를 내려놓고 마음을 새롭게 채우는 치유의 시간을 보냈다. 오후에는 도초도와 인근 비금도를 돌아보는 작은 섬 여행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바쁜 일상과 무거운 책임에서 잠시 벗어나, 시원하게 펼쳐진 바닷가와 섬의 풍경 속에서 몸과 마음을 충전하며 평안을 느꼈다. 특히 이날 저녁에는 이병률 시인과의 만남이 마련되어 참가자들과 '행복'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이병률 시인은 부탄 여행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일상 속에서 쉽게 놓쳐버리는 '행복'의 감각을 되찾도록 이끌었다. 활동가들은 "행복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작지만 따뜻한 순간 속에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YWCA 안에서 우리는 하나

교육의 마지막 날, 영화 자산어보 촬영지와 대지미술관을 둘러보며 도초도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참가자들은 함께한 시간을 돌아보며 소감을 나누었다. 목포Y 마정심 팀장은 "일정이 많아 부담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 교육의 의미를 정리했다. 평택Y 이은영 부장은 "YWCA의 끈끈한 연대가 저를 다잡아 주었다.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마음이 통하는 동료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이번 중견실무활동가교육은 단순한 재충전의 시간이 아니라, YWCA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자연 속에서 평안을 누리

며, 하나님 안에서 연대와 나눔을 경험한 13명의 활동가들은 다시 각자의 현장으로 돌아가 YWCA 운동을 이어갈 힘을 얻었다.

교육소감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천미옥 (사)부산YWCA

2025 YWCA 중견실무활동가 교육은 YWCA 실무활동가로서의 사명감을 되새기고, 지속가능한 운동을 위한 내적 동기 강화, 자연에서의 휴식과 성찰을 통해 활동가의 심신 재충전, 활동가 간 교류와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와 연대감 강화라는 큰 교육 목표가 있었다. 나는 활동가의 심신 재충전이라는 목표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2박 3일 동안 좀 쉬어보겠다는 마음으로 참가하였다. 섬이라는 장소가 주는 신비감은 먼 길도 힘들지 않게 가게 하는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 부산에서 출발해서 도착한 중간지점인 오송에서 만난 활동가와와는 초면엔 말을 걸지 못했지만 Y 사람이라는 연대감으로 함께 목표항까지 갔다.

교육 중에 진행된 활동가 네트워킹 <YWCA 사람책방> 시간은 중견실무자로서 지난 시간 동안 맡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음을 나누고, 공감하면서 서로 위로의 시간이 되었다. 연수 중에도 각자 잠시 내려놓고 온 사업과 업무들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Y 식구들의 마음은 다 같았다 웃었다. 특별히 이병률 시인과의 만남을 통해 행복에 대하여 각자의 방법으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Y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역할을 맡을 때, 때로는 하기 싫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었지만, 함께하는 동력자들의 눈을 바라보면 그 마음은 사라지고 다시 으샤 으샤 힘 낼 수 있었고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해 주는 동력자들과 함께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이 Y 활동가로서의 보람이고 행복이지 않을까 라고 정리를 해보았다. 행복은 큰 것도 아니고, 또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우리 곁에 소소하게 함께 하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더 실감하는 시간이 되었다. 시목해변 해송숲길, 명사십리해변을 걸으며 우리는 그간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는 관계에서 갖고 있던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앞날의 사업과 모든 일들을 응원하기로 했다.

더 잘 뛰기 위해 숨을 고르는 시간

안소진 (사)대전YWCA


YWCA의 가장 바쁜 달인 9월, 중견 실무활동가 연수로 제법 Y년 차가 된 활동가들이 함께 모였다. 대부분은 밀린 업무를 잠시 내려놓고 온 터였지만, 얼굴마다 기대와 설렘이 묻어났다. 나 역시 늘 "바쁘다 바빠"를 입에 달고 살면서도, 쉽게 만날 수 없던 바다와 비슷한 경험을 한 활동가들을 만난다는 기대에 마음이 설레었다. 비슷한 고민을 나누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건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되었다. 10년의 Y생활로 나도 이제 중견이라 생각했는데, 10년은 기본, 15년, 20년 차를 훌쩍 넘긴 Y인의 이야기는 놀라움이자 감동으로 다가왔다.

또한,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도초도의 바다를 더 많이 눈에 담고 싶어 시간 날 때마다 바닷가로 향했다. 잔잔한 파도와 선선한 바람에 복잡하게 얽혀 있던 머릿속이 서서히 비워지는 듯했다. 피곤했지만 몸을 일으켜 아침 트레킹에도 나섰다, 많은 활동가와 삶을 나누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병률 시인과 함께한 시간에는 부끄럽지만 직접 시를 지어 보기도 하고, 행복에 대해 생각해보기도 했다... "지금 이 바로 행복이구나"

참 즐겁고, 행복했던 중견실무활동가연수. 걱정이 많은 성격 탓에 쉬면서도 온전히 쉬지 못했는데, 이번 연수를 통해 제대로 쉼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이제 충전을 했으니 부지런히 달려야 한다. 다시 뛰기 위한 숨 고르기의 시간. 행복한 삶을 위한 쉼의 시간을 끝내고, 이제 다시 나아가기 위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떠나기 전보다 다들 지금이 더 행복해졌으리라.

YWCA 중견실무활동가 화이팅! 

포용적 금융사회를 향한 20년, 함께 걸어온 20년



2006년부터 시작한 '배우고 체험하는 청소년 금융교실, 씽크머니(Think Money)'는 2025년 올해 20주년을 맞이했다. 본 프로그램은 한국씨티은행의 후원으로 전국의 청소년을 만나 금융·경제교육을 진행한 프로그램이다. YWCA 씽크머니는 전국의 청소년들이 스스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금융 역량을 키우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였습니다. 어느덧 20년의 세월동안 청소년들을 만나온 YWCA 씽크머니 프로그램에서, 2024년까지 전국 650,129명의 청소년을 만났다.

올해 YWCA 청소년 금융·경제교육 20주년 국제포럼이 '포용적 금융사회를 향한 발걸음: 20년의 성찰과 연대의 미래'를 주제로 11월 12일(수) 오후 1시에 두잉굿센터 5층 엔피오피아홀에서 열린다. 씽크머니와 함께 걸어온 모든 분들과 금융교육에 관심있는 여러분이 참석한다. 함께 걸어온 20년, 함께 걸어갈 앞으로의 뜻깊은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

씽크머니가 걸어온 길

2006~2010 씨앗을 틔우다: 금융교육의 시작

- 씽크머니 초등학교(저, 고학년), 중학교 교재 내용 개발(학생용/교사용)
- 빙고 씽크머니
- 다문화 가정을 위한 금융생활 가이드 교재 3종 개발

2011~2016 길을 열다: 모두를 위한 금융교육

- 씽크머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국문/영문)
- 아동청소년 금융복지교육사 과정 운영
- 찾아가는 씽크머니 버스 운영
- 사회진입기 청소년을 위한 교재 '우리들의 씽크머니' 개발

2017~2020 꿈을 키우다: 체험으로 배우는 금융리더십

- 거꾸로 학습 방식의 ICT 활용 금융교육
- 씽크머니 상설교육센터 '펍핀' (Public Financial Interesting Station) 센터 3곳 오픈 운영

2021~2025 가치를 나누고 함께 걷다

- 사회와 함께하는 포용금융
- 청소년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세상(경제편) 프로젝트
- 청소년을 위한 신용관리 보드게임 '구해줘 홈즈' 개발

국제포럼 주요 내용

세션1 현장에서 만든 변화: 청소년 금융교육 20년의 기록

좌장 이은영 ((사)한국YWCA연합회 제2부회장)

발제 한국YWCA 씽크머니 20년을 돌아보며
정승애 (YWCA청소년금융교육위원회 위원장)

발표 1 씽크머니 금융교육 지역 협력 사례
변남순 ((사)수원YWCA 팀장)

발표 2 씽크머니 강사활동 경험과 금융권 취업 사례
강석원 (인기금융서비스 제이어스총괄 부지점장)

발표 3 협력파트너의 시선으로 본 씽크머니
김도훈 (한국씨티은행 마케팅커뮤니케이션부 부부장)

세션2 미래를 여는 금융교육: 함께 성장하는 사회

좌장 함희경 ((사)한국YWCA연합회 이사)

발제 삶을 설계하는 힘, 금융교육의 시작과 지속을 말한다
Ruben A. Rivera (Council for Economic Education 국가학술프로그램 선임 이사)

발표 1 싱가포르 금융교육 사례 - 금융 역량에서 행동으로
Lawrence Tan (Institute for Financial Literacy 교육 및 프로그램 선임 매니저)

발표 2 청년 감사와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금융교육 사례
문신환 ((사)서울YWCA 간사)

발표 3 문제를 넘다, 해법을 잇다 - 사회적가치 CSR 얼라이언스
오영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업성장본부 성장지원팀 팀장)

발표 4 KDB 금융-경제 관련 사회공헌 사례 발표
정지유 (KDB나눔재단 파트장)

+ 김미애 (사)한국YWCA연합회 선임

지역의 고통을 나누는 지속가능한 YWCA



연합회는 회원YWCA 사무총장들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YWCA의 운동·운영 정책과 주요 현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매년 3월과 8월, YWCA 전국사무총장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별히 8월에 진행되는 제2차 전국사무총장협의회는 연합회가 주최하고 5개 권역협의회에서 주관으로 진행하는데, 올해는 경인강원권역협의회 주관으로 인천에서 진행하였다. 지난 8월 19일(화)부터 21일(목)까지 2박 3일 동안 49개 (사)회원YWCA 사무총장과 (사)한국YWCA연합회 박은실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고, (사)한국YWCA연합회 조은영 회장, 김은경 제1부회장, (사)인천YWCA 표신희 회장, 연합회 실무활동가들이 참관하여 총 66명의 규모로 진행된 2025년 제2차 전국사무총장협의회의 뜨거운 현장을 살펴본다.

환대와 예배

첫날 등록대에서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응원합니다" 응원의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 앞에서 화환과 왕관, 꽃다발 등을 들고 환영의 사진을 촬영하는 포토존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일을 뒤로 한 채 인천으로 모인 사무총장들을 박수와 환호로 환영하며, 말씀 카드로 축복하기 위해 경인강원권역협의회 사무총장들이 진행한 특별이벤트였다. 따뜻한 환대를 마치고 오후 2시 정각, (사)동해YWCA 금후자 사무총장의 사회로 촛불을 밝히며 여는 예배가 시작되었다. (사)강릉YWCA 임현숙 사무총장(강원도협의회 대표 사무국)이 대표기도를 (사)속초YWCA 김순복 사무총장이 말씀봉독 순서를 맡아 진행하였다. 특별히 올해 산불과 폭



우, 폭염 등 기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생명을 위해 묵상기도와 기후정의와 여성 주간 기도로 마음을 모으는 예배를 드렸다. 인사와 소개 시간에는 전국의 사무총장들을 응원하러 온 연합회 조은영 회장이 격려사로 환영하였고, 전국사무총장협의회의 회장인 연합회 박은실 사무총장의 개회사, 연합회 김은경 제1부회장과 (사)인천YWCA 표신희 회장의 따뜻한 인사 나눔이 있었다. 곧이어 권역별로 참석한 회원YWCA 사무총장들을 함께 소개하고, 3월에 진행한 제1차 전국사무총장협의회 이후 인준된 신입 회원YWCA 사무총장 2명을 박수로 환영하였다.

특강 : 지역의 고통을 나누는 YWCA

작년 제22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젊은지도자상을 수상한 추혜인 원장(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의원, 살림재택의료센터 대표원장)이 <지역의 고통을 나누는 YWCA: 의료-돌봄 통합의 건강한 지역 공동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지난 정부의 의사 인력 확대 방안 발표 이후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갈등이 지속되면서, 의료 혼란과 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겪고 있다. 강의를 통해 의료지불제도의 특징, 한국 경상의료비 지출추이가 OECD 평균 국민의료비 비중을 넘어선 데이터, 한국 외래진료 횟수가 OECD 평균 2배에 달하지만 자가평가 건강상태 양호분율은 최하위인 것, 한국의

료체계의 지방의료 붕괴와 필수 의료의 위기 상황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목표인 1)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건강증진 실천의 건강한 관계망 형성하고, 2) 존엄한 삶을 위한 최적의 돌봄으로 의료와 돌봄의 통합하며, 3) 믿을 수 있는 일차의료 주치의 다학제 팀주치의(방문의료)를 목표로 지역을 살리고 있는 여러 긍정 사례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지역의 고통과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현장에 이야기를 들으며, YWCA가 지역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다. 질의응답 시간에서 (사)대구YWCA가 10년 넘게 운영 중인 착한치과를 통해 지역의 치과 의사들과 치위생사들의 봉사로 건강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무료로 다양한 치료를 하고 있는 회원YWCA의 사례를 전국 사무총장들이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한국YWCA가 지난 103년 동안 '정의, 평화, 생명' 사회를 위해 희망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 시대 가운데, 문제를 확인하고 시민들과 함께 연대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하는 YWCA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워크숍 : 지속가능한 YWCA 운영

저녁식사 이후 <지속가능한 YWCA의 운영> 워크숍을 박

은실 사무총장이 진행하였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회원YWCA 사무총장 연차별 역량강화교육에서부터 이어진 "지속가능한 YWCA의 운영"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심화 과정으로 워크숍을 준비하였으며, 연차별 그룹을 5, 6명씩 재구성하여 깊이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YWCA를 운영하는 데 가장 고민이 되는 키워드의 고민카드를 뽑고, 역할카드를 뽑았다.

역할 중 토로자는 문제에 대해 속이 시원하게 토로하고, 위로자는 가장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며, 해결자는 객관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3개월 이내에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해결책을 뜨겁게 제안하는 역할로 모두가 정해진 시간에 다양한 역할을 맡으며 워크숍에 참여했다. 워크숍을 통해 전국에 흩어져있는 동역자들에게 함께 토로하고, 위로 받고, 해결책을 나누며 YWCA 목적을 붙잡고 뜨겁게 연대하고 행동하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인천기독문화 탐방

둘째날 외부 프로그램은 인천의 과거와 현재를 가장 잘 살피볼 수 있도록 문화해설사와 함께 인천개항장과 한국 이민사박물관을 방문하여 개항기 역사와 문화, 미주 한인의 독립운동과 역사를 살펴보았다. 또한 종교 순례로 과거 제물포항으로부터 들어온 선교사들이 세운 답동성당에 방문하여 내리교회(아펜젤러)와 제일교회(인천지역 최초의 장로교회)를 확인하였다. 폭염 속에 잠깐의 휴식을 위해 방문한 사단법인 꿈베이크리에서 소외 계층과 어린이들의 꿈을 위해 기부하며 발달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돕고 있는 단체의 활동을 듣고 커피와 빵으로 후원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저녁에는 권역별 자유 모임을 통해 권역별 사무총장들이 함께 회의하고 교제의 시간을 보냈다.

사무회의


마지막 날 사무회의는 전국사무총장협의회 회장 박은실 사무총장이 주재하였으며, 최봄 사무총장(전국사무총장

협의회 총무, (사)서울YWCA)의 2025년 상반기 사무총장 협의회비 보고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안건들을 함께 협의하고 공유하였다.

첫 번째 협의 안건인 '2026-2027 연합회 법인이사(사무총장 대표) 추천에서 경기권역협의회 (사)안양과천군포 의왕YWCA 이규숙 사무총장과 충청권역협의회 (사)대전 YWCA 권부남 사무총장을 각각 법인이사 사무총장 대표 후보로 추천하기로 만장일치로 통과하였다. 두 번째 협의 안건인 '회원YWCA 사무총장 해외연수 협의'에서는 2026년 하반기에 사무총장 경력 4년 이상인 자와 경력 10년 이상의 사무총장 해외연수 기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기로 협의하였다. 세 번째 협의 안건인 '2026-2027 한국YWCA 운동·운영 정책(안) 협의'에서는 2024-2025 한국YWCA 운동·운영 평가 결과를 듣고, 앞으로 2년의 정책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제안과 토론으로 사무총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공유 안건으로 '2026-2027 연합회 법인이사, 공천위원 후보 추천 요청', '2025 한국YWCA 정책협의회 및 공론장 행사 개요', '회원YWCA 회원/후원관리 프로그램(도너스) 사용의 건'을 진행하였다.

닫는 예배는 사무총장(전국사무총장협의회 총무, (사)서울YWCA, 경인강원권역협의회 사무국)의 인도로 권역별 결단의 기도를 올리며 폐회하였다.

폭염 속 이열치열로 인천에서 뜨겁게 모인 전국의 모든 사무총장들과 주관 권역으로 답사부터 준비와 진행으로 애써주신 (사)서울YWCA 최봄 사무총장(경인강원권역협의회 사무국), (사)인천YWCA 김선아 사무총장(경인강원권역 사무총장 대표), (사)강릉YWCA 임현숙 사무총장, (사)동해YWCA 금후자 사무총장, (사)속초YWCA 김순복 사무총장, (사)원주YWCA 윤미혜 사무총장, (사)춘천YWCA 지은희 사무총장과 후원해주신 경인강원권역협의회 회장들, 특별히 (사)인천YWCA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동부지역 Y-틴 '청소년 Dream Ship 프로그램' - 필리핀 국제교류

기후와 우정으로 잇는 청소년들의 항해, 필리핀을 다녀오다

+ 황유림 (사)창원YWCA 간사



한국YWCA의 후원으로 5월 12일(월)부터 16일(금)까지 창원YWCA, 대구YWCA, 통영YWCA는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Dream Ship(드림십)'을 진행했다. 이번 교류에는 창원 Y-틴 4명, 대구 Y-틴 4명, 통영 Y-틴 2명 등 총 10명의 청소년이 참가해 필리핀 일로일로주에 위치한 일로일로 국제미션스쿨을 방문, 필리핀 친구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문화 교류를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5월 11일 밤, 대구, 통영, 창원에서 각자 버스에 올라 새벽에 인천 공항에 도착하며 여정이 시작됐다. 12일 아침 8시 30분, 필리핀 칼리보행 비행기에 탑승해 약 4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현지에 도착, 후덥지근한 필리핀의 열기

가 이국적인 설렘을 더했다. 버스를 타고 일로일로로 향하는 길, 신호등이 없어서 멈춰서 달리는 승합차 안에서 피로도가 높아질 즈음에 마침 파인애플 노점을 만나 현지 과일을 맛보며 쉬어 갈 수 있었다. 키 큰 야자나무와 망고나무들이 펼쳐진 열대 자연의 풍경을 스치며 3시간 가량 달린 끝에 목적지인 일로일로주에 도착해서 첫날을 보냈다.

둘째 날(5월 13일), 일행은 일로일로 국제미션스쿨(ICM)을 방문해 2024년 창원YWCA가 세운 '청소년 비전센터(Youth Vision Center)'를 둘러보고 필리핀 청소년들과 첫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만남의 주제는 '기후위기'였다.



양국 청소년들은 기후위기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며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실천을 다짐했다. 이어 창원YWCA 청소년들의 진행으로 주도로 문화 O/X 퀴즈와 조별 1분 영상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언어는 달랐지만 웃음과 에너지는 같았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 속에서 우정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셋째 날(5월 14일)에는 기후 실천 활동의 일환으로 기마라스(GUIMARAS)섬 맹그로브가 자라는 해변을 찾았다. 탄소저장 능력이 뛰어난 맹그로브 나무가 자생하는 곳으로, 청소년들은 직접 맹그로브 묘목을 심는 체험에 나섰다. "콩 같은 씨앗일 줄 알았는데, 30cm 정도의 길고 단단한 줄기였다"는 참가자의 말처럼, 생명의 묘목을 손으로 심는 경험은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새벽 일찍 밀물 전에 도착한 청소년들은 현지인들의 안내를 받아 부지런히 나무를 심었고, 이어 해양쓰레기 '줍깅' 활동도 진행했다. 갯벌을 뒤덮은 플라스틱과 비닐 쓰레기, 버려진 의류 속에서도 청소년들은 묵묵히 손을 움직이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몸소 느꼈다. 환경 활동을 마친 후 한국에서 준비해 간 기념품을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현지의 망고 농장을 방문했다. 농장(연구소) 센터장님이 직접 망고의 연구 및 성장과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다. 기마라스 망고는 유럽과 일본으로 수출되는 특상품으로, 아쉽게도 한국으로 수출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망고 나라에 왔으니 현지 망고 맛을 보는 것은 당연, 망고 피자과 망고 주스를 먹었던 기억은 오래 남


을 것이다.

오후에는 대구YWCA 청소년들의 진행으로 두 번째 문화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딱지치기, 공기놀이, 제기차기 등 한국 전통 놀이를 함께 즐기며 필리핀 친구들과 한층 더 가까워졌다. K-POP 제목 맞추기 게임에서는 필리핀 청소년들의 놀라운 정답률에 모두가 환호했고, 댄스 마당에서는 국경을 넘어 하나가 되는 특별한 순간이 펼쳐졌다.

넷째 날(5월 15일) 오전에는 일로일로YWCA가 지원하는 극빈층 마을인 오톤(Oton) 마을을 방문했다. 50가구가 거주하는 작은 마을이었지만, 주민들의 환영은 진심으로 따뜻했다. 고구마와 삶은 바나나를 담아 내온 투박한 그릇 속에는 정성과 환대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청소년들은 다시 한 번 더 줍깅을 실시하며 마을 환경 개선에 힘을 보탤고, 준비해간 기념품을 각 가정에 전달했다.

오후에는 통영YWCA 청소년들의 진행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며 소감 나누기와 선물 교환, 롤링페이퍼 작성 시간을 가졌다. 며칠간 함께 웃고 땀 흘린 청소년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포옹하며,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남겼다. 짧은 4박 5일의 일정이었지만, 그 속에는 기후와 환경, 문화와 우정이 어우러진 소중한 경험이 가득했다.

마지막 날(5월 16일), 청소년들은 다시 칼리보 공항으로 이동해 귀국길에 올랐다. 필리핀에서의 만남과 배움, 그리고 나눔의 시간은 모두에게 깊은 인상으로 남았다.

드림십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기후위기 대응과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몸소 배우는 뜻깊은 여정이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지닌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청소년들이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키웠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참가 청소년들이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환경 보호와 평화,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며 성장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세계를 향해 꿈을 펼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서부지역X구마모토 청소년들의 『필(必)환경 에코트립!』

“자연 속에서 배우고, 행동으로 실천한 청소년·Y-틴의 여정”

+ 조아라 (사)목포YWCA 국장



목포, 순천, 전주YWCA는 7월 31일(목)부터 8월 3일(일)까지 3박 4일 동안 일본 구마모토와 후쿠오카 지역을 방문하여 '서부지역X구마모토 청소년들의 『필(必)환경 에코트립!』'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구마모토YWCA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리더십, 환경 실천이라는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Y-틴이 사전 준비 단계부터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구마모토YWCA와의 진심어린 교류를 통해 Y-틴의 성장을 이끌어낸 특별한 여정이었다.

리더십을 배우다- 첫날의 교류와 다짐

첫날, 한국과 일본 청소년들이 함께한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에서는 '탁구공 옮기기', '종이컵 지키기' 등의 게임을 통해 낯선 분위기를 깨고 서로 마음을 여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시간에는 구마모토 YWCA의 젊은 리더, 스지노 모토 회장님의 특강이 진행되었다.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40대 여성 리더의 진솔한 이야기는 모두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으며, 각자의 삶 속에서 리더십의 가치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진 활동으로 “나는 ○○○한 여성 리더가 되고 싶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내가 바라는 리더의 모



습과 가치를 고민해 보며 모두의 꿈과 목표를 담은 '여성 청소년 리더 비전선언문'을 작성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작은 다짐을 나눴다.

자연 속에서 배운 경이로움 - 구마모토 지하수와 아소 활화산

구마모토는 '물의 도시'로 불릴 만큼 풍부한 지하수를 자랑한다. Y-틴은 시라카와 수원을 방문해 깨끗한 지하수를 직접 보고 느끼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 살아 숨 쉬는 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아소 활화산으로 이동했다. 특히, 평소에는 출입이 제한된 화구가 우리가 방문한 당일 갑자기 특별히 개방되어 눈앞에 펼쳐진 활화산의 신비로운 광경을 직접 마주하며 자연의 소중함과 경외심을 깊이 체감하는 시간이었다.

기후위기 시대 속 Y-틴의 고민과 실천

Y-틴들은 사전 과제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식수 문제를 발표하고 기후위기 속 삶과 경험을 나누며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캠페인 피켓 만들기' 활동에서는 기후 행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작성하며 공동의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Y-틴은 직접 만든 피켓을 들고 모모치 해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거리 캠페인을 펼치며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이후 숙소로 돌아와서는 거리에서의 반응과 경험

을 바탕으로 메시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피켓 보완 작업을 진행했다. 문구를 수정하고 표현 방식을 고민하는 Y-틴의 모습에서는 기후위기를 대하는 진정성과 한층 성장한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도시에서 자연을 느끼다 - 아크로스 캠페인

마지막 날 Y-틴은 아크로스 건물 옆 공원에서 다시 한 번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전날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캠페인에 관심을 보였고 우리의 활동을 사진으로 담아가거나 블로그에 소개해주는 따뜻한 반응도 이어졌다. 기분 좋은 캠페인 이후 '자연과의 공생'을 테마로 도시 중심에 세워진 친환경 건축물인 아크로스의 계단식 정원(스텝 가든)을 직접 걸어 올라가 도시와 자연의 조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활동을 마무리 하였다. 14층까지 걸어 오르는 길은 쉽지 않았지만 그 끝에 만난 자연의 소리와 바람, 전망은 Y-틴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이번 '서부지역X구마모토 청소년들의 『필(必)환경 에코트립!』'은 Y-틴의 국제적 감수성과 환경 의식, 리더십을 함께 성장시킬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다. 자연 속에서 배우고, 교류를 통해 성장하며, 실천을 행동으로 옮긴 이번 여정을 통해 모두 '더 나은 나',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을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서부지역 Y-틴들의 다음 걸음도 계속 지켜봐 주길 바란다.

기후정의로 광장을 잇자



서울 광화문이 다시 광장이 되었다. 9월 27일(토) 낮, 동-서 십자가 일대에 시민들이 모여 기후위기와 민주주의, 불평등의 연결을 외쳤다. 한국YWCA연합회와 회원YWCA 약 80여 명도 손피켓과 깃발을 들고 대열에 함께하며 “모두의 존엄과 안전”을 외쳤다. 올해 927 기후정의행진은 전국 664개 단체가 참여해 조직위원회를 구성했고, 서울 광화문을 비롯해 부산·대전·제주·청주·산청·완주 등 6개 지역에서도 동시에 열렸다. 경남, 경북(안동·예천·포항), 대구 등에서는 9월 초부터 행진이 이어졌다. 서울에서는 약 3만여 명, 전국 각 지역에서는 약 3천여 명의 시민이 함께 행진에 참여하

며, ‘기후정의의 광장’은 도심 곳곳으로 확장되었다. “민주주의의 광장에서 기후정의의 광장으로”라는 주제로, 광장의 힘을 이어받아 기후재난과 기후부정의를 멈추기 위한 시민의 목소리가 모였다.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다. 폭염·폭우·산불 같은 재난은 생명의 터전을 위협하고, 사회 구조의 불평등 속에서 더 취약한 이들을 가장 먼저 덮친다. 노동자, 농민,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비인간 동물까지 모두의 삶을 흔드는 위기이자 민주주의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문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927 기후정의행진은 기후위기의 원



인과 불평등 구조를 함께 짊으며, ‘기후정의로 광장을 잇자’라는 슬로건 아래 6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환 계획 수립’, ‘탈핵·탈화석 연료를 통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성장 논리와 대기업 중심의 반도체·AI산업 육성 재검토 및 생태계 파괴 사업 중단’, ‘모든 생명의 존엄과 기본권 보장, 사회공공성 강화’, ‘농업과 농민의 지속가능성 보장 및 먹거리 기본권 확립’, ‘전쟁과 학살 종식, 방위산업 육성과 무기 수출 중단’ 등 다양한 요구가 그것이다.

본집회에 앞서 열린 사전행사에서는 오픈마이크와 함께 44개 단체가 부스를 운영했다. 본집회 무대에는 농업·노동·에너지·생태·평화·인권 현장의 발언이 차례로 이어졌고, 927 기후정의합창단의 노래와 싱어송라이터 느린이 함께한 <927 기후정의송: 광장을 잇자>가 광장을 하나로 묶었다. 1부에서는 기후위기 현장을 살아가는 다양한 정체성의 발언자들이 목소리를 나누며 현장의 의미를 더했다.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반복되는 재해 속 농민의 생존권을 호소하며 생태농업 전환과 권리 보장을 강조했다. 이윤정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 쿠팡CFS지부 조합원은 “기후재난의 고통을 노동자와 시민이 홀로 감당할 수 없다”고 발언했으며, 박치우 공공운수노조 발전HPS지부 부산

지회 조합원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배제되지 않도록 공공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2부 무대에서는 기후위기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현실을 증언했다. 이이자의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활동가는 “케이블카, 산악열차, 리조트, 소형공항까지 법과 절차를 바꿔가며 정부가 국립공원 내 대규모 개발을 허가하고 있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생태계 파괴 사업의 폭력성을 규탄했다. 이어 권영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활동가는 정부가 “안전보건 대책 없는 반도체 인력 양성, 기후정의에 반하는 반도체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이 약속해야 할 것은 이윤이 아니라 기후정의”라고 강조했다. 전쟁과 군비 확산의 문제를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발언도 이어졌다. 한나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활동가는 지난 2년간 가자지구에서 이어진 집단학살에 더해, “동물을 살해하고 수천 년 된 올리브 나무를 뿌리째 뽑아 불태우며 토양과 공기를 폭탄으로 오염시키는 ‘생태학살’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군사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한 국가로 간주할 경우 세계 4위에 해당한다며, “군사주의 속에 기후정의는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부 마지막 순서에서는 시민투표를 통해 선정한 ‘올해의 기

후정의 걸림돌이 발표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토교통부, 오세훈 서울시장, GMO 연구개발 기업 '몬산토', 그리고 이스라엘 정부가 927 기후정의행진의 6대 요구안에 따라 각 부문별 걸림돌로 선정되었다.

3부에서는 기후정의와 에너지 전환, 돌봄과 존엄의 문제를 함께 사유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한수원 '플랜15' 활동가는 정부가 최근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수립을 위해 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며 제시한 네 가지 안 중,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최소 65% 감축하는 목표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는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도, 신규 핵발전소 건설도, 돈만 잡아먹는 SMR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진성선 '장애여성공감' 활동가는 "기후재난 상황에서 장애가 있거나 아픈 몸들에게 재난의 위협은 익숙하게 일어난다"고 말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가족과 여성에게 떠넘겨진 돌봄은 일상의 존엄조차 어렵게 한다"며, 위기 속에서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돌봄의 공공성이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집회를 마무리하며 청년·청소년, 이주민, 지역민, 여성, 종교인 등 12명이 '기후정의로 광장을 잇자' 선언문을 함께 낭독했다. 뒤이은 행진은 광화문 동십자각을 출발해 종각역-을지로입구역-서울시청광장을 거쳐 다시 광화문 앞까지 이어졌다. 시민들은 △삼척 △농업(종각역) △에너지(을지로입구역) △공공성(시청광장) △평화(광화문역) △생태돌봄(역사박물관) 여섯 거점을 지나며 각자의 요구를 시각화했다. 도로 위에서는 다이인(die-in)과 다양한 퍼포먼스가 펼쳐졌고, "광장을 잇자, 기후정의로!"라는 메인 구호가 행렬을 이끌었다. 행렬은 '다시 만난 세계, 기후정의행진 버전의 '위플래시' 등을 함께 부르며 출발지로 돌아왔고, 행진을 마무리하며 조은혜 927 기후정의행진 공동집행



위원장은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평범한 사람들, 흔하디 흔한 존재들을 위해 싸우는 우리가 바로 광장"이라고 외쳤다.

기후정의 영화제 <바로 지금 여기>

올해는 특별히 927 기후정의행진을 앞두고, 9월 17일 다큐멘터리 <바로 지금 여기>를 상영하는 '917 기후정의영화제'가 열렸다. 이번 영화제는 단순한 상영 행사를 넘어,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묻는 문화적 실천으로 기획되었다. 영화 <바로 지금 여기>는 석탄발전소 수출 기업 본사 앞 시위로 기소된 청년 은빈이 법정에서 기후재난의 현실과 민중의 이야기를 증언하는 서사로, 쪽방촌과 농촌의 기후피해 현장을 오가며 돌봄과 공동체의 힘으로 삶을 지켜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았다. 특히 이번 영화제는 관객이 직접 참여해 상영을 성사시키는 '관객추진단' 방식으로 진행되어, 시민이 단순한 관람자를 넘어 기후위기 담론을 지역에서 확장하는 주체로 함께 서는 자리였다. 한국YWCA에서도 연합회와 고양, 김해, 남양주, 남원, 대전, 부천, 수원, 안산, 제주, 제천YWCA 등 약 120명의 회원이 함께 참여하며, 지역 곳곳에서 기후정의의 의미를 나누었다. 이번 행진은 광장에서 모인 외침을 넘어, 각자의 삶 속에서 이어질 변화를 약속하는 자리였다.

이제 광장에서의 약속을 넘어, 우리의 일상 속에서 기후정의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의료와 AI

+ 서준범 한국의료AI학회 회장,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인공지능기술이 이끌 미래 의료

인공지능은 2000년대 초부터 디지털화 된 다량의 데이터와 컴퓨터 하드웨어의 성능개선 그리고 혁신적인 컴퓨터알고리즘의 세 요소가 결합되면서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최근에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전세계의 문명을 바꿀 기술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과거의 산업, 인터넷, 디지털혁명이 주로 인간이 가진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이었다면 인공지능기술이 가져올 변화는 인간의 지능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의료분야는 질병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하여 고도의 수련을 요하는 전문영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의료기술의 발전, 경제수준의 향상,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의 증가와 의료비의 상승은 전세계적인 문제이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진의 과도한 노동을 전제로 한 의료시스템이 더 이상 버틸수 없는 한계에 다달았고 이에 따라 급격한 의료비의 상승과 지역의료, 응급의료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지능기술은 직면한 보건의료의 위기를 최소화 완화하거나 극복할 중요한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의료분야의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적용 현황을 소개하고 이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인 문제들과 이후에 변화할 미래 의료에 대한 생각을 소개하고자 한다.

의료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진단을 보조하는 AI

첫째로 인공지능기술은 과거에 전문가들만이 할 수 있었던 반복적인 일들을 보조하거나 대신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기술은 진

단영역에서 가장 먼저 활용되고 있는데 흉부X선이나 유방촬영 등 매우 검사량이 많고 반복되는 일이지만 수련받지 않은 사람들이 판독하기 어려운 영상을 미리 분석하여 이상소견을 먼저 제시하는 인공지능 기술은 의료진의 피로에 따른 실수를 줄이고 효율을 증대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의료기기로 등재되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술은 영상의학전문의가 부족한 응급상황 등에서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데 뇌출혈, 뇌졸중, 폐색전, 대동맥박리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CT나 MRI검사서 미리 확인해서 응급의료진을 바로 호출함으로써 대응시간을 줄여서 생명을 건지는 기술 또한 이미 현장에서 사용중이다. 영상의학분야 뿐 아니라 병리진단 영역이나 위 또는 대장내시경에서 암을 발견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조하는 기술도 이미 현장에 도입되어 의료진의 실수를 줄이고 있다.

AI를 활용한 맞춤형 예측의료

둘째, 인공지능기술은 기존에 여러 이유로 어려웠던 환자 맞춤형의 정밀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 환자 맞춤형의 진료가 가능하려면 의료진이 환자의 평소의 생활습관, 검사결과, 과거력 등 많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최신의 의료지식을 활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많은 데이터를 일일이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또한 쏟아지는 새로운 의학지식을 모든 개별의 료진이 업데이트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면 개별환자의 데이터를 모두 미리 분석하여 중요한 정보를 정리하고 또한 최신의료지식을 활용하여 개

인화된 최선의 진료방침을 의료진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를 '임상사결정보조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특히 암이나 드문 중질환의 환자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이며 이를 이용하면 굳이 3차병원의 전문가를 찾지 않아도 높은 수준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다양한 질환에서 이러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고 임상적인 가치를 연구하고 있다.

과거에 불가능했던 또다른 적용영역은 소위 '예측' 기술이다. 과거의 환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입원환자 중 누가 수시간 혹은 수일내에 심정지나 폐혈중등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악화될지를 예측할 수 있으며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환자의 생명을 건지고 중증치료에 드는 의료비지출을 줄일 수 있다. 이 기술 역시 이미 국내의 많은 병원에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환자의 유전자 검사나 환경요소를 분석하면 암,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의 발생위험을 개인화할 수 있으며 발생위험이 높은 개인은 보다 적극적인 예방과 조기진단을 유도할 수 있다.

퇴원 후 환자관리를 돕는 AI

셋째,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면 퇴원 후 일상생활의 복귀 후에도 그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하여 개별화된 투약지도나 일상생활 중 간단한 질병관련 문답 등을 의료진이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합병증이나 재발위험이 감지되면 미리 의료진과의 연락을 취할 수도 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으나 불행하게도 국내에서는 사업모델의 부재등의 이유로 이 분야의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은 더딘 상태이다.

신약 개발을 돕는 AI

넷째, 신약개발에 있어서 인공지능기술의 도입은 그 개발비용,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신약의 약가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양한 제약회사들이 이미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약을 개발하고 있으며 임상시험에서 환자군의 선정, 관리에도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보건의료시스템을 보조하는 AI

다섯째, 인공지능기술은 이러한 개별환자의 진료영역뿐 아니라 보건의료시스템 전체의 개선에도 활용될 수 있다. 의료에는 진료외에도 진료예약, 진료비청구, 물류비용 등 다양한 영역이 있으며 이를 효율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의료비의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과 관련된 사회, 제도적인 문제

위에서 소개한 인공지능기술의 긍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의료현장의 도입은 지연되고 있는데 이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데이터 활용의 한계와 사회적 합의 필요

먼저 개발과정에서의 의료데이터 활용의 문제가 있다.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에는 다량, 양질의 의료데이터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의료데이터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며 그 소유권이 본질적으로 환자에게 있어서 복잡한 동의과정과 유출의 위험이 따른다. 따라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환자가 개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 정부에서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가명화 등의 다양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활용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 사안은 본질적으로 개인정보의 활용에 따른 위험과 데이터활용에 따른 유용한 기술로 얻게 되는 공공의 이익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며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 부분이다. 이를 위한 가치평가와 이익의 배분 등의 폭넓은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

혁신과 안전성 사이의 간극

또한 인공지능기술은 데이터에 기반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불안정성이 있다. 잘 정제된 데이터로 개발된 기술은 그 데이터에서는 매우 정확성이 높으나 이를 의료현장에 도입하면 그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를 의료현장에 활용하지 않으면 성능을 개선할 수 없다는 딜레마가 또한 존재한다. 우



리나라에서는 의료기술이 수가를 받아서 현장에 제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의료기기인허가 이후에도 신의료기술평가라는 제도를 통하여 그 임상적인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이는 의료기술의 오남용을 줄이고 불완전한 기술의 남용에 따른 환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지만 인공지능기술의 도입을 매우 어렵게 하는 면이 있다. 따라서 유용한 인공지능기술등의 신기술의 현장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내에 혁신의료기술평가제도, 평가유예제도 등의 선진입 평가유예제도를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사용을 허가하되 기간 내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이 도입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본질적으로 '유용할 가능성'을 보고 한시적 사용을 허가하는 제도인 만큼 허가된 기술이 결국 유용하지 않거나 임상적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한시적인 사용기간내에도 기술의 성능, 부작용의 발생 등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해야 한다. 또한 한시적인 기간동안 과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환자의 보호, 임상적인 가치와 산업적인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요구된다.

표준화 개인화 사이, 법적 책임의 회색지대

마지막으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할 경우의 법적 리스크의 문제가 있다. 현대의 의료기술은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되며 이를 따르는 경우 불행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의료진은 법적보호

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인공지능기술은 개인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며 이러한 결정이 표준화된 지침과 불일치 할 수 있다. 만일 인공지능의 결정을 의료진이 반영하였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는 매우 불확실하다. 특히 최근에 각광받는 생성형 인공지능은 의사면허시험을 통과하는 등의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나 예측하지 못하는 영역에서는 형편없는 성능을 보이기도 하고 소위 'hallucination'이라는 거짓말을 하는 현상 또한 본질적인 제한으로 알려져 있어서 의료분야에 바로 사용하기에는 심각한 위험성이 존재한다. 의료진들은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하기보다는 과거의 표준화된 진료를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인공지능기술의 도입을 저해하게 된다. 이 또한 사회적인 합의를 필요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인공지능의 미래

위에 언급한 여러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의료분야의 인공지능기술의 도입은 피할 수 없는 미래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은 그 속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의료가 각 사회의 문화 경제적인 요소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우리사회에 맞는 의료인공지능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의료분야에 인공지능기술의 도입속도, 도입에 따른 의료시스템의 변화,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의 역할의 변화 등의 미래는 매우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의료진이 환자와 대면하여 환자의 고통을 듣고 공감하며 책임지고 치료하는 방식이 가까운 미래에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의료진이 인공지능기술과 협업하여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이를 위해 초기의 도입과정의 불안정성, 비용을 우리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환자들 또한 인공지능이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지식을 기반으로 의사-환자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 이러한 변화에 따르는 법, 제도의 변화를 얼마나 시의적절하게 만들어 낼 것인가 등이 될 것이다. 📖

우리에게, 잠시 머물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해요



요즘은 마음 둘 곳이 없어 불안한 일상과 외로움

카롱 : 진짜 요즘은 마음 편한 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 같지 않나? 회사에서도, 심지어 친구들 사이에서도 맨날 눈치 보고, '괜찮은 척'해야 하는 것 같아.

후루 : 맞아. 말 한마디 잘못하면 누가 상처받을까 봐 조심해야 하고, SNS에서는 '좋아요'나 팔로우 숫자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평가받는 느낌이야.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너무 피곤해.

멜랑 : 난 요즘 세상을 '티 안 나게 잘 괜찮은 척하는 능력'이 최고인 세상이라고 생각해. 불안하거나 외롭다고 말하면 약한 사람으로 보이니까, 억지로라도 괜찮은 척하면서 버티는 거지. 그러다 보면 진짜 내 마음은 어디에도 털어놓을 곳이 없어지잖아.

카롱 : 그래서 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해지는 것 같아. 그냥 아무 말 안 해도, 울어도 누가 이상하게 보지 않고, 억지로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 자리.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곳 말이야.

안전하다는 건, 나를 고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

후루 : YWCA에서 '세이프 스페이스(Safe Space)¹'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땐 좀 추상적이라고 느꼈거든. 근데 생각해 보니, 나를 구구절절 설명하거나 잘난 척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은 자리가 바로 그런 곳인 것 같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상적인 삶'을 살

라고 몰아붙이잖아.

멜랑 : 동감해.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는 곳, 내 부족한 모습이나 불안한 속마음까지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곳이 안전한 공간이지. 나를 깎아내리거나,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힐 필요가 없는 곳.

카롱 : 난 YWCA 청년 모임에서 처음으로 "나 요즘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라고 말했어. 그런데 누가 해결책을 던져주기보다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야기해 줘서 고맙다"라고 말해줬을 때 눈물이 왈칵 났어. 그 말이 내 치유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

후루 : 안전한 공간은 따뜻한 위로보다 '존중'과 '경청'이 있는 자리에 더 가까운 것 같아. 나이, 배경이 달라도 서로의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다름과 다양성을 인정해 준다면, 그 공동체가 바로 세이프 스페이스 아니겠어? 거기서는 내가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이라는 안심을 얻을 수 있으니까.

물리적인 장소보다 중요한 관계의 온도와 신뢰

멜랑 : 사람들은 세이프 스페이스를 '청년센터'나 '공간 사업'처럼 건물로만 생각하잖아. 나도 처음엔 그랬고. 그런데 난 관계의 온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느껴.

카롱 : 맞아. 건물이 아무리 멋지고 최신식이어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깔보거나 판단하면 전혀 안전하지 않지. 사실 연합회 건물도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지만, 청년들이 마음 편하

게 '나의 아지트'처럼 갈 수 있는 정서적인 편안함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

후루 : 결국 사람 문제야. 나는 지역 YWCA에서 공간이라기보다는, 내가 마음 터놓고 모든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간사님 옆이나, 함께 활동하는 친구들과의 모임 자체가 세이프 스페이스였어.

카롱 : 공간이 주는 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관계 속에서 신뢰가 단단하게 쌓일 때 비로소 그 장소가 안전해지는 것 같아. 경청과 존중이라는 태도가 그 공간을 만드는 중요한 벽돌인 거지.

멜랑 : 나는 YWCA 사람들의 현대 문화가 그런 역할을 해온 것 같아. 지금처럼 경쟁적인 사회에서 '모여서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곳' 자체가 이미 흔치 않고, 나를 평가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주는 문화와 관계가 바로 YWCA가 만들어온 '안전함'이라고 봐.

후루 : Y에서 만난 친구들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만나고 있어. 세상의 논리로 만난 친구들과는 다르게, 그들이 가진 건강한 가치관과 깊은 신뢰 관계는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편안함을 줘. 이 관계가 바로 나에게 가장 든든한 안전망이야.

자리가 아닌 '주체'로 의사결정 구조 속의 Safe Space

카롱 : 솔직히, 처음 청년부회장이나 청년이사 같은 청년의 공식적인 자리가 생겼을 때, 부담스럽고 마냥 편하지만은 않았어. '자리만 만들어주고 결국 중요한 의사결정에서는 배제되겠다' 하는 생각도 솔직히 있었거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렇게까지 청년들의 자리를 실질적으로 만들고, 우리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시키려고 노력하는 곳이 또 있을까 싶어.

후루 : 맞아. 우리 목소리가 실제로 반영될까? 하는 의구심은 누구나 처음에 가질 수 있지. 근데 중요한 건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주체'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야. 우리가 '단순한' 들러리'가 아니라, YWCA 운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동등한 파트너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게 우리가 이 자리에 계속 남아 힘을 낼 수 있는 이유인 것 같아. 하지만 여전히 청년을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대하는 일부 시선들을 접할 때면, 이 조직이 진정한 세이프 스페이스가 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도 해.

멜랑 : 그 '실질적인 참여'가 결국 가장 큰 형태의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 아닐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 말할 때 '저건 젊은 애들의 철없는 소리'로 치부되지 않고, YWCA 안에서 존중받으며 세상에 나갈 힘을 얻는 거니까. 우리가 조직의 주인이라는 책임감과 신뢰가 여기서 생기는 거지.

후루 :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존중하는 관계의 장, 즉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는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한 공간을 위한 그라운드룰이 중요하고 그 룰 또한 만들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맞는지 잘 작동하는지 계속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안전한 공간은 똑딱 생기지 않아.

카롱 : Y에서 안전한 공간은 멀고 먼 길인 것 같기도 하네.

안전함이 만드는 용기, 변화의 출발점

카롱 : 안전한 공간이 있어야 내가 겪는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 말할 용기가 생기고, 말할 수 있어야 세상을 바꿀 힘도 생기는 거잖아.

후루 : 진짜 그렇지. 누군가 내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들어주는 자리에서, 나는 조금씩 나 자신을 회복하는 것 같아. 가끔 Y 안에서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만큼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려고 노력하는 곳은 없는 것 같아.

멜랑 : YWCA의 안전한 공간이 단순한 '쉼터'나 잠깐 피하는 '대피소'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어. 지쳤을 때 잠시 쉬었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곳 말이야. 나답게 살기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곳.

후루 : 지역 YWCA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쉼터나 센터들이 이미 세이프 스페이스 역할을 잘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뭔가를 시도하고, 설령 실패하더라도 괜찮은 '도전의 장'이 됐으면 좋겠어. 이곳에서 용기를 얻어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루 : 이런 안전한 공간, 존중과 신뢰가 있는 관계망이 우리 사회에 더 많아질수록, 개개인의 불안은 줄어들고, 우리 사회 전체도 훨씬 건강하고 따뜻해질 거라고 믿어. YWCA 자체가 세이프 스페이스이자 '안전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돼야 해!

+++
1 안전한 공간(Safe Space)은 단순한 건물의 이름이나 물리적 장소를 넘어, 여성과 청년이 신체적·정서적으로 안전함을 느끼며, 판단이나 배제의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말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관계적 공간을 의미한다.

공익활동 제도정책의 미래방향을 제시한 YWCA 재구조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묶인 비영리·공익법인」

YWCA 조직재구조화 사례를 바탕으로 비영리공익법인과 관련된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담은 책이 나왔다. 민법에서부터 세법, 기부금품법, 공익법인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 비영리·공익법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 근간이 되는 법 제도의 문제점과 현황, 개선 과제, 법률과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아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모색한 책이다.


한국YWCA연합회가 YWCA조직재구조화 사례를 바탕으로 비영리공익법인과 관련된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담은 책을 출간했다. 집필에는 한국YWCA연합회 이희숙 이사, 박훈 감사, 박동순 국장과 YWCA 재구조화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류홍번, 송호영, 황인형, 김일석, 정순문 위원이 공동저자로 참여했고, 한울아카데미가 출판을 맡았다.



은, 단순한 비판서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대안집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한국YWCA는 그동안 조직 재구조화 과정에서 비영리 공익법인 설립과 운영관련 제도적 문제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2021년에는 사회복지시설의 감면대상에서 여성폭력시설이 누락된 점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의 개정 운동을 전개하였고, '도세감면조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에 반영

되었다. 특히, 비영리법인의 근간이 되는 민법이 70년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여 비영리법인 설립과 조직개편에 장애가 되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며 민법개정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기부금품법, 세법등 관련 법률의 개정운동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또한, 한국YWCA연합회는 공동발간한 재단법인 동천과 함께 11월18일 출판기념 및 입법제안을 위한 국회토론회도 개최한다.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국회 시민정치포럼(책임연구위원 송재봉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진행되는 토론회에는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실 오광영비서관, 사단법인 시민 김소연 박사. 공익네트워크 우리는 정명희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해 이 책에 담긴 내용들이 반드시 개선되어야할 과제임을 한목소리로 강조한다.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 과제, 비영리·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한계_한국YWCA 재구조화 사례, 민법상 비영리법인 규정의 개정 방향_법인설립주의의 전환 및 합병·분할 규정의 신설을 중심으로, 공익법인법 쟁점과 공익위원회 설치 제도개선 방향, 한국 기부금품 규제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공익법인의 지방세제 관련 구체적인 개편 방안, 공익법인 규제 완화를 위한 사후관리제도 개선 과제_상증세법을 중심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개선 방향에 대한 검토까지 총 9개 챕터로 구성되었다.

비영리·공익법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 근간이 되는 법 제도의 문제점과 현황, 개선 과제, 법률과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아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모색한 이 책

Y-틴 중부지역 전국연대행동



Y-틴 전국협의회는 2025년 중점운동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로 정하고, 전국 10개 지역이 함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제개정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7월 30일(수) 충주·논산·대전·청주 Y-틴이 서울 종로구 소녀상을 찾아 중부지역 연대 모임을 가졌다. 청소년들은 현장 방문과 수요시위에 참여했으며, 대전YWCA 신다인 회장이 발언자로 나서 "조례 제개정 운동은 인권운동가들의 명예와 진실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여성인권 박물관을 방문해 역사 교육을 받고, 하루 기록과 소감 인터뷰 미션을 진행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YWCA연합회가 공동대표 단체로 활동하는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하 의료공동행동)'은 2025년 7월 30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했다. 천준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보건 의료특별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정책토론회는 조은영 의료공동행동 공동대표(한국YWCA연합회 회장)가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에는 유미화 공동행동 공동대표(GCN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와 강희경 공동행동 공동대표(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교수)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현황과 개선 방향, 그리고 환자 중심의 안전망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박은실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층적인 관점에서 의료사고 대응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그림은둔 청년을 위한 기지개 캠프와 도시양봉가 체험활동



2025 YWCA 기지개 캠프가 8월 5일과 8월 12일 한국YWCA연합회에서 진행되었다. 사회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 29명이 참여하여 진행한 이 교육은 청년들의 일상 회복에 필요한 금융·경제 지식을 전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1기 교육은 '금융가치관 확립과 청년지원제도 알아보기', 2기 교육은 '금융피해예방 및 구제방법 알아보기'였으며 '저축과 재무관리의 기초', '올바른 투자', '신용등급과 채무조정'을 주제로 한 소그룹 상담도 진행되었다. 청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위해 아로마테라피와 모루인형 만들기 체험도 진행하였다. 후속 프로그램으로 캠프에 참여한 청년 4명을 대상으로 도시양봉가 체험활동 '봉봉봉 프로젝트'를 9월 10일(수)부터 10월 29일(수)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협동조합 봉봉봉의 이강 대표가 진행한 이 활동은 도시양봉의 개념과 방법, 버들캠핑장에 설치한 양봉 체험, 꿀을 활용한 상품 제작, 스마트스토어 상품 등록과 판매유통 과정 체험이 포함되었다.

해방·분단 80년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연합예배



한국YWCA가 함께 하고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지난 8월 10일 연동교회(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해방·분단 80년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연합예배'를 드렸다. 세계교회협의회(WCC) 총무 제리 필레이 목사와 피터 프로브 국제협력국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본회 조은영 회장은 공동기도 낭독으로, 최수산나 국장은 헌금기도로 함께 하였다. 2013년 이후 세계교회들이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올해도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주일 기도문'(남측 제안)이 공유되었다.

광복80년, 분단80년! 여성과 한반도평화 국회토론회



지난 8월 13일(수) 오후 2시, <광복 80년, 분단 80년! 여성과 한반도 평화 국회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YWCA연합회를 비롯한 여성평화단체들 및 여성국회의원들이 공동주관하였다. 기초발제는 "여성이 이룬 빛의 혁명, 이제 평화이루기의 길로" 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으며, 광복 80년, 분단 80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돌아보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여성의 역할과 과제를 모색, 평화-통일 의제의 재구성 및 지속가능한 평화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제2회 아시아태평양 기독교청년대회



지난 8월 19일(화)부터 23일(토)까지 4박 5일간 파주에서 제2회 <아시아태평양기독교청년대회(APCYA)>가 개최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17개국의 기독교 청년 90여 명이 모인 이번 대회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 속 평화와 기후 위기 해법을 함께 모색했다. 한국YWCA에서는 청년운동 담당 실무자와 부천YWCA 청년 2명이 참가했으며, 인도, 일본, 방글라데시, 필리핀, 홍콩 등 5개국 YWCA 청년 10명도 함께 참여해 아시아 YWCA 청년들 간의 교류와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막 예배를 시작으로 주제 강연, 워크숍, 토론회 이어졌고, 강화도 갯벌과 DMZ, 주상절리,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 등을 방문하는 에코 투어와 피스투어를 통해 참가자들은 한국의 자연과 분단 현실을 직접 체험하며 생태와 평화의 가치를 성찰했다. 마지막 날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모은 의견과 질문들을 AI 분석 도구로 분류·정리하여, 참가자 전원에게 대회 선언문을 작성하고 생명과 평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세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세계연대집회 공동주관



한국YWCA연합회는 8월 13일(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열린 세계연대집회를 세계YWCA와 국내 7개 회원YWCA와 함께 공동주관했다. 장대비 속에서 시민들이 모여 김학순 할머니의 첫 증언을 기리고,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 한국 정부의 법 개정을 촉구했다. 현장에서 Y-틴 전국협의회 임사랑 회장은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제·개정 운동'을 소개하며 청소년들이 조례 조사와 관리 주체 확인, 제안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을 전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직접 참석해 피해자 보호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고, 국회의원들은 법 개정안 통과를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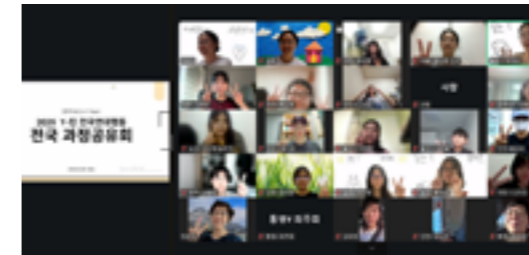
2025 전국소비자운동가대회



한국YWCA연합회와 11개 소비자단체가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문미란)가 주관하는 '2025년 전국소비자운동가대회'가 8월 20일(수)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 12개 회원단체와 700여 개 지역분부를 대표하는 300여 명의 소비자운동가와 소비자 정책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한국YWCA연합회에서는 서울, 대전, 부산, 부천YWCA와 연합회의 소비자운동가 14명이 참석하였다. 기초발표는 이항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구제기금 필요성"을 주제로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소비자 문제, 그리고 소비자피해 구제기금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진행된 "소비자의 주장"에서는 전계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의 진행으로 소비자권익 강화를 위한 4대 법제 과제가 집중 논의되었다. 또한 전국소비자운동가대회 마지막 순서

에는 소비자행동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결의문에는 △소비자피해구제기금 도입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입증책임 전한 제도 시행 등 4대 핵심 과제가 담겼다.

'2025 Y-틴 전국연대행동 과정공유회'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조례 제·개정 운동



한국YWCA연합회는 8월 30일(토) 온라인으로 '2025 Y-틴 전국연대행동 과정공유회'를 열고 전국 10개 지역 청소년들의 활동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Y-틴 전국연대행동은 평화의 소녀상을 혐오와 훼손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청소년들은 지역별 조례 현황을 조사하고 관리 주체를 확인하며 조례안을 직접 준비해왔다. 인천 청소년들은 서구와 부평구를 비교해 구마다 관리 체계의 격차를 확인했고, 안산은 테러 사건을 계기로 제도 부재가 피해 재발을 막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명확한 관리 기준과 처벌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번 과정공유회는 그간 활동을 점검하고 성과를 나누는 자리였으며, Y-틴은 앞으로 11월 수요시위 참여와 지역의회 면담을 통한 정책 제안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9월 월례아침기도회



9월 월례아침기도회가 9월 1일(화) 오전 9시 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열렸다. 이번 월례아침기도회에서는 민숙희 사제(대한성공회 광명교회)가 사도행전 18장 24~26절 말씀을 통해 '브리스길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경계를 넘는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전쟁 중인 세계 여러 나라와, 전쟁과 분단의 고통 속에 있는 한반도를 위해 기도했다.

신의료기술 시장진입의 문제 및 개선을 위한 토론회



한국YWCA연합회는 9월 16일(화) 한국YWCA연합회에서 '신의료기술 시장진입 무엇이 무엇인가-신의료기술평가 규칙 개정 중심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의료공동행동과 공동주최로 진행된 이 행사에는 기자, 시민단체, 의료관련 다양한 기관 등 약 7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의 '환자와 의료소비자를 위한 신의료기술 진입을 위한 정책방안'을 발제로 시작하였다. 이어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전진한 보건 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안정희 한국YWCA연합회 안정희 팀 책임, 조민우 울산의대 교수, 김중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신의료기술평가 분과장, 김동현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 정재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사무관의 토론회가 이어졌다. 참여자들은 신의료기술 조기진입 제도를 두고 환자와 의료계, 산업계가 환자 안전과 기술혁신 촉진의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과 우려 등을 제시하였으며 신의료기술진입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평가 대상 자체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YWCA 공론플랫폼 오픈 및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YWCA연합회는 9월 22일(월) 한국YWCA A스페이스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대표 권오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YWCA 공론플랫폼>을 공식 오픈했다. YWCA 공론플랫폼은 전국의 회원YWCA가 지역의 현안을 나누고,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사회 변화를 위한 공동의 해법을 찾아가

는 참여의 공간이다. 또한 단순한 온라인 공간을 넘어, 시민과 함께 사회적 의제와 지역 현안을 토론했고 숙의하며 대안을 만들어가는 디지털 참여의 장이다.

<한국YWCA 공론플랫폼>(https://ywca-ground.or.kr)은 회원과 시민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사회 의제 제안과 토론, 시민투표를 통해 민주적 숙의와 참여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회원YWCA 공익법인 회계교육



회원YWCA 공익법인 회계·세무 기초교육이 9월 8일(월)부터 매주 월요일 온오프라인으로 총 4회 진행되었고, 17개의 회원YWCA 본부 및 부속시설 회계 담당자 총 20명이 참여했다. 공익법인 회원YWCA의 안정적인 회계·세무 운영 지원과 회계 담당 실무활동가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연합회 재무회계국장으로서 활동했던 김소영 회계사가 강사로 함께했다.

YWCA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회원YWCA의 눈높이에 맞는 강의와 맞춤형 교재를 제공하였다.

주요 내용은 회계 기본개념의 이해, 재무제표 작성 및 이해, 공익법인·비영리법인의 세무 전반, 원천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해 진행되었는데, 특별히 실질적인 회계·세무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ERP프로그램인 이카운트 데모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직접 전표를 작성하고 각종 세무 신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5년 제1차 사무총장협의회 확대운영위원회



2025년 제1차 사무총장협의회 확대운영위원회가 9월 25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연합회와 회원YWCA 사무총장 13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합회에서 열렸다. (사)사천YWCA 강류안 사무총장의 기도와 연합회 박은실 사무총장의 인사로 시작한 회의는 2026~2027 한국YWCA 운동·운영정책(안)에 대한 회원YWCA의 견수령 결과 공유와 사전 공론장 운영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별히 사전공론장은 10월 정책협의회에서 진행할 YWCA와 '정치적 중립' 공론장을 사전 경험하고 YWCA 공론플랫폼을 함께 만들어가는 자리였다.

10월 월례아침기도회



10월 월례아침기도회가 10월 1일(수) 오전 9시 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열렸다. 이번 월례아침기도회에서는 김종생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로마서 12장 15~18절 말씀을 통해 '공감으로 시작되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기위위기의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과 창조 세계를 지키는 청지기로서의 YWCA 활동가들이 그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

로컬라이즈 군산 홈커밍데이 - 로컬프렌들리 사례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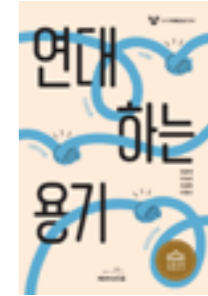
10월 17일(금) 전북 군산시 군산화관에서 열린 '로컬라이즈 군산 홈커밍데이'에서 (주)로컬프렌들리 김수진 대표가 '함께 먹고 사는 경험을 만드는 동네 운영사 - 로컬프렌들리'를 주제로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7년간 이어온 프로젝트 '로컬라이즈 군산'의 성과를 나누는 자리로, 프로젝트 참여팀을 포함한 군산 청년 창업가와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김 대표는 "처음에는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며 시작했지만, 어느새 '내가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일로 확

장되었다"며 "YWCA로부터 배운 '활동가의 맷집'과 '함께 사는 관계의 힘'이 군산 정착의 동력이었다"고 전했다.

로컬프렌들리는 연합회 청년활동가 김수진·손지수가 함께 운영하며, YWCA의 사회적 가치를 지속가능한 지역 청년 커뮤니티 실험으로 확장하고 있다.

<연대하는 용기>, 2025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

연합회가 발간한 도서 <연대하는 용기>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세종도서 교양부문'에 선정됐다. 세종도서 사업은



국가 문화 진흥 사업으로, 공익적 가치와 사회적 파급력을 가진 도서에 수여된다. <연대하는 용기>는 연합회 Y아카데미 교육개발 연구TF의 기획으로, '에큐메니컬 운동(장유재)', '크리스천 페미니즘(이숙진)', '청년 시민성(유성희)', '비영리 거버넌스(이명신)' 등 네 가지 주제를 통해 YWCA 운동의 정신과 시대적 의미를 새롭게 탐구한 도서다.

북한어린이돕기 모금(농협 301-0161-5540-11)

2025.7.1 ~ 2025.10.31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개인	강승아 강현중 고보경 고세영 고양우 곽지영 구정혜 국윤택 권경미 김가현 김근혜 김기동 김명희 김병호 김수진 김애련 김영자 김영현 김주영 김주현 김진영 나탁더르즈 돌람수렌 남궁혜경 남희숙 문미란 문상순 문인수 민선영 박은실 박진화 배인기 백혜진 송록희 송인호 신인숙 심은옥 엄세현 오시창 원영희 유도희 유성희 윤명선 윤수정 이민정 이은영 이종숙 이종경 이종임 이지윤 이찬진 이혜련 이희숙 이희정 임진영 전정미 정경란 정동신 정지유 조승환 조은영 진인식 차경애 최수산나 최지영 하은경 하지원 한영수 홍기자	3,710,000원
단체	(사)목포YWCA	150,000원
합계		3,860,000원

YWCA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 - go100 모금 현황

2025.3.1 ~ 2025.10.31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개인	구정혜 김은경 김수진 배옥희 손지수 송록희 유성희 이주영 SUSAN S LEE	3,086,403원
단체	릭스나인	3,000,000원
합계		6,086,403원

Y-틴 전국 연대행동

2025. 7. 1 ~ 2025. 10. 31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개인	김영자 박윤애 서해원 이수진 이주영 장정영 최수산나	330,000원
합계		330,000원

한국YWCA연합회 후원

2025.07.01 ~ 2025.10.31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개인	강경숙 강희경 곽수현 구정혜 김경숙 김영순 김유현 김은경 김익태 김진영 김효정 민자현 박은경 박은실 백수경 손은혜 안정희 유성희 이은영 이혜련 전진숙 정다빈 정동신 조경진 조은영 차경애 최현자 한선현 한영수	5,686,500원
단체	(주)조우크리에이션 시온이민컨설팅 유한책임회사 (주)가온인스(GAON INS CO. Ltd.)	14,575,000원
합계		20,261,500원

세종호텔 정리하고 철회 위한 고공농성 고진수님 희망도시락 후원자

2025.05.01 ~ 2025.10.31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개인	강경숙 구정혜 김수진 김명희 김영자 김정신 노은아 박동순 박윤애 박혜숙 박희정 박희정 반혜영 배정미 서해원 손은정 이신선 이예림 이은영 이주영 이혜련 이희숙 임진영 정근혜 최지영 한규영 홍수진	980,000원
희망도시락 배달	김미애 김서우 남궁혜경 박윤애 박동순 박은실 손은지 송록희 안정희 이수진 이은영 이은혜 이주영 이혜련 이희숙 이희정 정서연 최수산나 최유주 추은지 홍수진	
합계		980,000원

경인·강원권역

(사)강릉YWCA

김가은 간사

'애들이 아침 먹자' 캠페인 진행



강릉YWCA는 9월 24일 강원 강릉 울곡중학교에서 "애들이 아침 먹자!" 캠페인을 진행했다. 2025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지역참여 예산 제도 공모사업으로 실시한 이번 캠페인은 울곡중학교를 시작으로 강릉고등학교, 해람중학교 등 2천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로컬푸드를 활용한 건강한 아침을 제공했다.

(사)동해YWCA

정미숙 팀장

청소년날개를 달다-Let's go!! 페스티벌 문화축제 개최



동해YWCA는 7월 15일(화) 오후 2시에 동해시 문화예술회관에서 동해시 청소년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날개를 달다-Let's go!!' 페스티벌 문화 축제를 개최하였다. '청소년날개를 달다-Let's go!!'는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예술적 재능을 키우기 위한 축제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여 실현할 수 있도록 멘토링 기회를 제공하는 배움의 장이다.

(사)서울YWCA

성지희 부장

2025 특별행사, 연극 <젤리피쉬>

서울YWCA는 2025 특별행사로 연극 <젤리피쉬>를 9월 16일(화), 17일(수) 양일간 명동예술극장에 올렸다. 예술을 통한 나눔을 목표로 1975년 '구두뚜기 소년을 위한 자선음악회'로 시작된 서울Y 특별행사 올해의 주제는 '함께 걷는 여성, 그 길 위에 희망이 자랍니다'였다. 연극 <젤리피쉬>는 다운증후군이 있는 여성 '켈리'의 사랑과 자



립 과정을 깊이 있고 유쾌하게 그린 작품으로, 특별히 이번 특별행사는 릴렉스드 퍼포먼스로 진행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사)원주YWCA

윤미혜 사무총장

2025년 찾아가는 청소년 교육



원주YWCA는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2025년 찾아가는 청소년 교육'을 실시하였다. 원주시 지역아동센터에 24회째 물품을 지원하고 있는 원주YWCA는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청 공모사업에 선발되어 행복꿈터-태일-장양리-열린-예배 지역아동센터에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은 (1)부진교과 수학학습지도 (2)MBTI검사해석상담 (3)게임중독예방교육 (4)정리수납(학교수업용) (5)미술치료 (6)심리상담치료 등으로 고등학교 교사 1명과 전문강사 5명이 28회 방문하여, 총 203명의 청소년에게 교육하였다.

(사)인천YWCA

문지혜 팀장

전직원연수



9월 5일(금), 인천YWCA 본부와 지부 전 직원 60여 명이 함께 모여 Y중점운동인 생명·평화 교육을 듣고, 다양한 지부 이해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날 체험활동으로는 삼푸바 만들기, 치매검사, 음료 만들기,

양말목 공예 등이 마련되어 직원 간 소통을 높이고 지부 활동을 직접 경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사)춘천YWCA

지은희 사무총장

미안마 어린이합창단과의 교류



38년간 운영했던 (사)춘천YWCA어린이집이 올 봄 폐원하였다. 몇 달간 허전했던 빈 공간에 지난 8월 24일(일) 2025 온세대 합창페스티벌에 초청된 30여 명의 미안마합창단이 목계 되면서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다. 미안마의 오랜 내전으로 삶과 가정이 붕괴된 힘든 현실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른 미안마 어린이합창단의 춘천 체류 기간동안 YWCA 이사들이 정성껏 식사를 제공했다.

경기권역

(사)고양YWCA

정니은 간사

평화기금 마련을 위한 나눔카페 개최



고양YWCA가 주최한 평화기금 마련을 위한 '나눔카페'가 지난 6월 17일(화), 킨텍스 바이 케이트리호텔 16층 '더옥상'에서 오후 1시부터 밤 8시까지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돌봄으로 정의로운, 나눔으로 평화로운 사회'라는 고양YWCA의 비전을 공유하고 실현하기 위한 자리였다. 고양YWCA 활동가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시의원,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YWCA에서 준비한 플러, 고양 파주장로회합창단, 지역밴드 공연 및 세월호 추모 예코백 그리기, 미니 바자회 등 다양한 행사로 참석하신 분들을 맞이하였다.

(사)남양주YWCA

이종은 팀장

여성창업플랫폼 남양주시 꿈마루 개소식



남양주YWCA는 6월 19일(목) 남양주시 금곡동 다남프라자에서 "여성창업플랫폼 남양주시 꿈마루"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남양주시장을 비롯해서 시 관계자, 남양주YWCA 이사, 실무자 등이 참석해 공간을 둘러보고 꿈마루의 역할과 운영 방향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꿈마루는 창업을 희망하는 지역 여성들의 창업 상담, 교육, 공유 오피스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 지역 여성들의 창업과 자립을 위해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사)부천YWCA

최성준 대학청년Y 회원

부천청년 평화포럼 in 몽골



부천YWCA는 '제3회 부천청년 평화포럼'의 일환으로 지난 8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특별 평화포럼을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몽골의 시각에서 동북아 평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가자들은 몽골의 역사와 지정학적 특성을 탐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몽골의 평화 정책과 국제적 역할을 조명했다. 특히 몽골의 비핵화 동 NGO '블루 배너(Blue Banner)'의 옹호사이항 의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몽골의 독자적인 외교 노선과 유엔으로부터 비핵 지위를 인정받은 과정에 대한 경험을 공유받았다.

(사)성남YWCA

장명자 사무총장

지구살리기와 여성의 건강권

성남YWCA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9월3일(수) 수원시 의회 앞에서 환경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부스에서는 여성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한 면패드가 소개·판매되었다. 면패드는 성남YWCA 자체 동아리에



서 직접 제작한 친환경 제품으로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해 지속가능한 소비의 대표 사례다. 시민들은 면패드의 실용성과 환경적 가치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면패드 선택이 여성의 권리임을 강조하며 인식 개선을 도모했다. 여성의 건강권과 지구살리기를 연결한 사회적 메시지가 시민들에게 전달되었다.

(사)수원YWCA

이민정 팀장

독거노인 지원을 위한 바자회 개최



수원YWCA는 창립기념일을 맞아 9월 27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독거노인 지원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번 바자회는 시민들이 함께 나눔에 동참하고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생활용품, 명절 상품, 먹거리 판매와 함께 아나바다 장터, 체험부스, 어린이를 위한 구연동화 프로그램 등 온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수원YWCA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사)안산YWCA

홍지인 국장

세계평화의 날 이민사회 축제 2025 경기홈페스티벌

안산YWCA는 9월 21일(일),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광장에서 UN이 정한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여, <2025 경기 홈페스티벌>(Harmony Of Multicultural Everyone)을 주최했다. 식전 무대에서는 다문화어린이합창단, 네팔 전통무용,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등이 이어졌고,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외국인 커뮤니티 부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이주민 단체의 전시·체험 프



로그램 등이 운영되어,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서로의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사)안양과천군포의왕YWCA

김영미 간사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 30주년 기념행사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 30주년 행사가 6월 20일(금) 오후 2시부터 안양평생교육원 강당에서 '여성의 꿈, 시대를 잇다'는 슬로건으로 열렸다. 식전 행사로 클래식 보컬그룹 "유엔젤보이스"의 연주가 있었고 안양감리교회 김병재 목사님의 축사가 있었다. 그리고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난 30여 년간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과 역량강화를 위해 걸어온 발자취에 대해 이영애 관장이 소개하고 미래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2부 행사로 지식생태학자 유명만 교수의 "지식으로 지시하지 말고 지혜로 지휘하라" 강연을 마지막으로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사)의정부YWCA

이세인

양성평등주간 여성아카데미,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연대하는 용기



의정부YWCA는 양성평등주간 행사로 9월 6일(토) 'YWCA여성아카데미'를 운영하였다. 본 아카데미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연대하는 용기'를 주제로 '연대하는 용기' 저자의 직강, 송추 '혜세의 정원의 H 갤러리 공간에서의 강연, 레스토랑 혜세에서의 식사 등 강연과 식사가 어우러진 힐링형 아카데미로 준비되었다.

1강은 '연대하는 용기로 이화여대 장윤재 기독교학과 교수님의 기독교 정체성에 대한 강의, 2강은 '페미니즘의 유산과 미래로 이화여대 이숙진 교수의 강의로 여성인권과 인권 감수성 등 페미니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사)파주YWCA

김래원 팀장

평화 모꼬지, 평화를 읽고 평화를 심다



파주YWCA는 8월 5일부터 9월 22일까지 6주간 운정2동 힐스테이트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들과 함께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아이들은 <애너는 좋은 향기가 나요>를 함께 읽고 상황극을 하며 서로의 마음을 살피고, 퀴즈와 놀이를 통해 평화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과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평화의 씨앗이 자라났으며, 이는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는 작은 리더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사)평택YWCA

이은영 부장

청소년자유공간 신평점 홍보



평택YWCA는 9월27일(토) '청소년자유공간 신평점' 홍보 캠페인으로 길거리 홍보를 실시하였다. '청소년자유공간' 홍보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기후플레이션'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여 청소년들에게 '기후생명운동' 참여 기회도 제공하였다.

울초부터 평택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자유공간'은 청소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스테디룸과 댄스연습실, 플레이존, 코인노래방, 포토존, PC존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모든 시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사)하남YWCA

김상미 간사

아나바다 장터-제로웨이스트 캠페인 진행



하남YWCA(회장 이강숙)는 9월 11일(목)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현대메스코아 앞에서 아나바다 장터와 제로웨이스트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기'를 주제로 한 아나바다 장터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제로웨이스트 활동을 소개하는 부스, 업사이클링 제품 판매부스, 캘리그라피 봉사자들의 카드나 놀과 카드 써주기도 함께 진행했다.

충청권역

(사)논산YWCA

진희 간사

2025 생명살림소비운동 "추석맞이 명절장터"



논산YWCA는 9월 20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과일, 잡곡, 건어물, 육류 등 40여 종의 착한소비 품목으로 명절장터를 진행하였다. 이번 명절장터는 착한소비를 통해 생명살림운동의 가치

를 확산하고 (사)논산YWCA의 4대 중점운동을 시민과 공유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명절에 지인들에게 전달 할 선물세트를 구입했다"며 "의미있는 착한소비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사)대전YWCA

안소진 팀장

대전YWCA ‘Y-Leadership & In: Youth’



대전YWCA는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대전에서 타이베이YWCA 청소년들과 대전지역 청소년 각 10여 명이 참여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Y-Leadership & In: Youth’를 진행하였다. 22일(금)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23일(토)에는 대흥동청소년문화의집과 대전청소년위센터를 방문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나눴다. 24일(일)에는 은행동중앙로 일대에서 성차별, 교육 취업, 환경 등을 주제로 시민 인터뷰 진행을 통해 양국 청소년은 사회문제의 공통점과 차이를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제천YWCA

김미경 국장

여성역량강화 프로그램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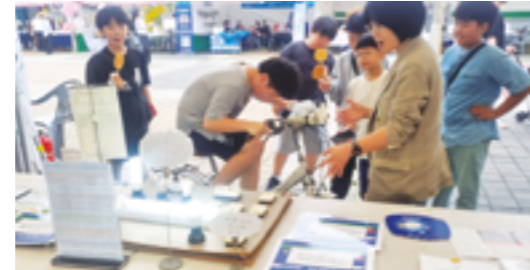


제천YWCA는 9월 12일(금) 다목적교육실에서 2025 충청북도여성역량강화지원사업 프로그램 “나는 자란다(잘한다)”를 6회차 진행했다. 지역사회의 여성기관장과 활동가들의 성별 고정관념을 스스로 점검하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성장시켜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기획하였다. (사)한국YWCA연합회 김은경 제1부회장을 초빙하여 ‘우리의 성인지 감수성은 건강한가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교육생들은 우리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성차별적 요소를 찾아내고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고 인식할 수 있는 시각을 확장하게 되었다.

(사)천안YWCA

곽효정 팀장

‘내 손으로 지키는 지구’ 에너지자전거 체험부스 운영



천안YWCA는 9월 25(목), ‘천안홍타령 춤축제’ 행사장에서 기후생명운동의 일환으로 ‘에너지자전거 체험부스’를 운영하며 시민들과 함께했다. 이번 체험은 “내 손으로 지키는 지구”를 주제로, 에너지 절약과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마련되었다. 참가자들은 자전거 페달을 밟아 직접 전기를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전기에너지의 소중함을 체험했다.

(사)청주YWCA

한기연 팀장

2025 충북여성영화제, 세상을 향한 여성들의 시선



제27회 충북여성영화제가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CGV 청주서문에서 열려 시민들의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청주YWCA가 주관한 이번 영화제는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를 주제로 총 9편의 여성영화를 무료 상영했으며, 매일 이어진 감독과의 대화를 통해 감독·배우·기자들과 관객이 작품의 메시지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오은숙 청주YWCA 회장은 “앞으로도 여성의 목소리를 전하고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역사회의 연대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YWCA는 1999년부터 여성영화제를 시작해 올해로 27회를 이어오고 있다.

(사)충주YWCA

이인선 간사

아동·청소년 DMZ 평화통일캠프 진행



충주YWCA는 2025년 10월 17일(금)~18일(토)까지 충주시 아동·청소년 17명과 함께 ‘DMZ 평화통일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아동·청소년들이 파주시 임진각과 분단선 인근의 자연 생태계를 탐방하며 분단의 역사와 통일의 필요성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참가자들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평화의 소중함을 느끼고,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상권역

(사)거제YWCA

박숙혜 간사

유아들을 위한 환경교육 아동극 진행



거제YWCA는 7월부터 9월까지 경상남도 민간단체환경보전활동지원사업 일환으로 유아들을 위한 환경교육 아동극 ‘안녕~ 바다 친구들~!’이란 주제로 거제 지역 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직접 찾아가 환경교육 아동극을 진행했다. 환경교육 아동극 공연은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바다 생물 캐릭터(거북이, 문어, 고래)를 활용하여 바다 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공연 내용은 인간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해양 동물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해저 동물을 만나 깨닫는 내용이다.

(사)김해YWCA

이지현 사무총장

우리마을을 위한 친환경마당

김해YWCA 우리마을을 위한 친환경마당 축제가 9월27일(토) 신어체



육관에서 열렸다. 1부 순서 식전공연에서 김해YWCA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중 하나인 난타와 라인댄스팀의 공연으로 행사를 흥겹게 하였고, 2부 순서로 시민들에게 공모를 통해 선정된 5개의 업사이클링 작품 시상과 전시, 참여한 시민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환경골든벨, 환경체험부스, 플리마켓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하였다.

(사)대구YWCA

정필선 간사

‘대신. 걸을까? 가치. 걸을까?’ - 워킹크루 교육 진행



대구YWCA는 10월 25일(토) 열린 기후위기 대응 걷기행사 ‘대신. 걸을까? 가치. 걸을까?’(대구 신나게 걸을까? 같이 걸을까?)를 위해 9월 19일(금) 워킹크루 사전 온보딩 교육을 진행했다. 1부에서는 계명대학교 환경공학과 김해동 교수가 ‘위기를 넘어서 파국으로 가는 기후 위기’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불확실한 기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은 실질적인 전략과 기반 시설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추구하고 실천하는 ‘기후시민’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2부에서는 대구 지역을 18년 넘게 걸어온 엠마오교회 한창수 목사의 ‘우리는 왜 걷는가? 걷는 도시, 숨 쉬는 지구’ 주제 강연을 통해 환경과 지역의 소중함을 느꼈다.

(사)마산YWCA

이애라 사무총장

장학기금 마련 바자회 & 창원 온(溫)가족 축제

9월 20일(토) 회관 마당과 3층 강당에서 ‘청소년장학금 마련 바자회 및 창원 온가족 축제’를 진행하였다. 창원 온가족 축제에서는 양성평등 확산을 위한 체험 부스와 모국의 음식을 직접 만든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중국 등 세계요리 부스, 가족장기자랑 대회 등으



로 풍성하게 진행되었다. 4개국의 먹거리 부스 외에도 수생식물 만들기, 양성평등가족 미션 젠가만들기, 3D 펜 체험하기도 마련하여 높은 호응을 받았다. 플리마켓과 각종 건어물, 밑반찬 등을 판매한 수익금은 내년 마산YWCA 정기총회에서 중,고,대학생 등에게 장학금으로 전달된다.

(사)울산YWCA

권한별 팀장

여성의 미래를 여는 경력 회복 프로젝트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울산YWCA가 기획한 2025년 양성평등기금사업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본 사업은 펫푸드, 원에테라피, 바리스타 등 경제활동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의 직무역량 습득은 물론 자아 성찰과 자신감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7월에는 여성리더십 교육을 열어 소통 및 공감 역량을 강화하였고, 9월 4일(목)에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시청 앞에서 '양성평등 임금의 날'을 개최해 시민들과 성별 임금 격차 문제를 공유하고 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사)부산YWCA

신정은 간사

22회 에너지의 날 '불을 끄고 별을 켜다'

제22회 에너지의 날 "불을 끄고 별을 켜다" 행사를 맞이하여 8월 22일(금) 오후 5시,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체험부스 행사를 진행했다. 해수욕장을 방문한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버려지는 장난감 소품과 바닷가 쓰레기 유리조각으로 신발 꾸미는 장식인 지비츠로 만들면서 재활용과 재사용의 생활 속 활용에 대해 체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저녁 9시 전국적으로 5분간 소등을 실시하여 총



553,000kWh의 전력이 감소되었다. 이는 작년 540,000kWh에 비하여 무더위 속에서도 무려 13,000kWh가 더 절감된 수치로 나타났다.

(사)사천YWCA

강류안 사무총장

물가안정과 지역경제살리기 캠페인



사천YWCA는 2025년 9월 2일(화) 사천시 새시장 일대에서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사천YWCA 회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시장 상인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단지과 홍보물을 배포하며 합리적인 소비 생활, 가격 표시제 준수, 전통시장 이용 장려 등을 홍보했다.

(사)안동YWCA

강주영 사무총장

추석맞이 '사랑의 햅쌀 나누기'



안동YWCA는 매년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안동권관리단)의 따뜻한 후원을 통해 추석을 앞두고 '사랑의 햅쌀 나누기' 행사를 진행

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하였다. 이번 행사는 2025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9일간 진행되었으며, 안동시민 120가구를 대상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품질의 햅쌀 5kg씩을 정성껏 전달하였다.

(사)양산YWCA

성정미 간사

제 18회 여성들의 이야기기터 개최



양산YWCA 2025년 9월 5일(금)오후 2시 제18회 '여성들의 이야기기터'를 성황리에 개최하며 양성평등 주관을 뜻깊게 마무리했다. '여성들의 이야기기터'는 매년 다양한 삶의 경험을 가진 여성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여성 정책에 대한 바람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소통의 장으로 매회 개최되고 있다. 올해 행사는 약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일노동 동일임금' 캠페인도 함께 진행되어 사회적 의미를 더했다. 이날 대상은 전영숙 씨의 작품 '나는야 슈퍼우먼'이 수상했다.

(사)진주YWCA

윤인주 간사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925 자전거 기후행진



진주YWCA는 9월 25일(목) 진주시청 앞 광장에서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925 자전거기후행진 행사를 진주기후위기비상행동의 13개 단체와 진주시민들과 함께 진행했다. 기후행진은 기후정의주관을 맞아 매년 꾸준히 이어오는 행사로 특별히 올해는 자전거기후행진으로 진행되었다. 행진에 앞서 기후행진 선포식에서는 정덕은 진주YWCA 회장의 기후정의 선언문 낭독이 있었으며, 자전거를 이용한 퍼포먼스-기후행동 장애물 넘어 기후정의로'가 있었다.

(사)진해YWCA

김방현 간사

동일노동, 동일임금 캠페인



진해YWCA는 9월 24일(수) 오전 11시 석동공원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캠페인을 진행했다. 시민들에게 동일노동 동일임금 캠페인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가운데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사회 정의와 인간 존엄의 문제라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

(사)통영YWCA

변은실 부장

함께 성장하는 멘토-멘티 꽃할망 꿈 이야기



통영YWCA는 2025년 '통영시 양성평등 지원 사업'으로 "함께 성장하는 멘토-멘티 꽃할망 꿈 이야기"로 16개 기관 320명에게 양성평등교육을 진행하였다. 본 교육은 60세 이상 여성 시니어들이 자신을 찾고 꿈을 찾아 새로운 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총 7회의 교육을 받고, 전문 강사와 함께 양성평등 알리미로 활동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7월 한 달간 10명의 어르신이 2조로 나누어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을 방문하여 '양성평등 바람아 불어라' 바람개비 만들기 활동 등을 진행하였다.

(사)포항YWCA

이예린 부장

시민과 함께하는 양성평등 온오프라인 캠페인 진행

포항YWCA는 8월 18일부터 9월 9일까지 '양성평등 시민참여 캠페인'을 진행했다. 온라인으로는 '양성평등, 저출생극복'으로 45행시 짓기 캠페인을 펼쳐 7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10명을 선정해 기념품을 전달했다. 오프라인에서는 양성평등 주관을 맞아 9월 3일



(수) 포항실내체육관 앞에서 캠페인을 전개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사)창원YWCA

황유림 간사

수채화그림으로 만드는 환경달력



창원YWCA에서는 지난 8월, 회원들이 함께하는 '수채화로 그리는 환경 달력' 시간이 진행되었다. 각 달이 의미하는 환경관련 주제에 맞게 수채화로 색을 입히며 바닷속 플라스틱, 푸른 나무, 무지개빛 희망 등 지구의 모습을 담아냈다. 이번 작품들은 2026년 환경 달력에 수록될 예정으로, 단순한 기록을 넘어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작은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활 속에서 지구를 되새기게 하는 의미를 지닌다. 환경달력 만들기에 참가한 회원들은 "환경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니 지구를 더 소중히 느끼게 되었다"며 "작은 보잘 하나에도 우리의 마음을 담을 수 있어 보람찼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라·제주권역

(사)광양YWCA

이효진 팀장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 광양에서 기억하다.
광양YWCA는 8월 13일(수) 광양문화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의 주요 인사와 YWCA 임직원, 청소년, 지역 단체와 시민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기념식은 헌화, 초 점등, 추모 묵념, 기림사, 문명금 할머니 생애 낭독, 문화공연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고향의 봄'을 개사한 '명금이 봄'을 시민들과 합창하며 피해자들의 아픔과 용기를 기억했다.

(사)광주YWCA

조승리 과장

광주YWCA 설립자의 정신을 잇는 <김필레리더십캠프>



2025년 김필레 리더십캠프가 8월 7일에서 8일까지 광주수피아여고 12학년 학생 27명을 대상으로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김필레선생 기념사업회 후원, 광주YWCA 주관으로 열린 이번 캠프는 한국 여성운동의 선구자 김필레 선생의 정신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한 자리였다. 학생들은 서울YWCA, 연동교회 등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역사와 리더십을 체험했고, 강연을 통해 정의·평화·생명에 대한 가치와 여성 리더십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사)군산YWCA

주미소 간사

해양환경정화 행사 "새만금 쓰담" 캠페인 참여
군산YWCA는 군산 YMCA, 웰니스평생봉사단 등 지역 단체와 연대하여 9월 13일(토) 군산 신시도 몽돌 해수욕장에서 해양 환경정화 행사 "새만금 쓰담"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오션 플로깅'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단순히 해변의 쓰레기를 줍는 시간을 넘어 우리가 지켜야 할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앞으로 군산YWCA는 해양환경 뿐 아니라 지역 내 주요 산책로, 하천변 등 쓰레기 발생 구역들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플로깅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남원YWCA

박희정 팀장

에너지 그린(Green) 교실 운영



남원YWCA는 신나는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9월 22일(월) 찾아가는 '에너지 그린 교실'을 진행하였다. 투명 페트병을 통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교육하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원 순환의 원리를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아동들이 폐현수막을 활용하여 스스로 분리수거함을 만드는 활동을 통해 업사이클링의 가치를 체험하고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며 재활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었다.

(사)목포YWCA

박혜림 부장

(사)목포YWCA 추석바자회 실시



목포YWCA는 추석을 맞이하여 회원 및 시민들 약 700여 명이 함께

한 가운데 9월 22일(월) 추석 바자회를 개최했다. 박석하 목포서부교회 담임목사의 개장기도와 강경숙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지역 농가의 정성이 담긴 농·특산물을 직접 판매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했다. 바자회 수익금은 12월 중 수익금 나눔식에서 "청소년 장학금, 소외된 이웃과 복지시설·사회단체 후원, 북한 어린이 분유보내기"에 사용된다.

(사)서귀포YWCA

한영아 간사

'2025년 평화아카데미 서귀포지역' 5강좌 평화탐방



서귀포YWCA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최로 '2025년 평화아카데미 서귀포지역' 5강좌를 9월 9일(화) 오전 9시부터 백조일손역사관 등에서 도민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번 평화탐방은 길위의 평화학교로 알뜨르비행장 및 일본군비행기격납고, 백조일손역사관을 탐방하고 지역체험이 진행됐다. 고성준원장(제주통일미래연구원)은 알뜨르비행장과 그 주변 지역을 함께 탐방하며, 일본의 중국 침략 배경, 제주도의 전략적 의미, 도민의 전쟁 피해와 역사적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사)순천YWCA

신정은 간사

E-Waste Zero, 순환자원 지구보물 플랫폼 업무협약식 체결



순천YWCA는 9월 8일(월) (사)순천시자원봉사센터, E-순환거버넌스, (사)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E-waste Zero, 순환자원 지구보물 플랫폼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식은 기관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폐전기·전자제품 E-waste zero 협력모델 구축 및 폐전

가전제품 회수·안전파쇄재활용으로 순환자원 회수,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넷제로(Net-zero) 사회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사)여수YWCA 주자연 간사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위안부' 기림의 날 기념행사



여수YWCA는 8월 14일(목) 여수해양공원에서 관내 폭력방지시설을 포함한 지역사회 단체들과 Y-teen이 함께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위안부' 기림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여수시양성평등기금공모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세대에 올바른 역사인식을 전달하고 인권역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구호제창, '위안부' 관련 영상, 지역가수의 '시간이머문자리' 공연과 '썰렁악소로 만드는 '위안부'키링 만들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귀향길 만들기', '종이로 만드는 평화의 소녀상 접기' 퀴즈로 알아보는 '위안부' 등 다양한 체험 및 홍보부스가 운영되었다.

(사)익산YWCA 윤명희 사무총장

제16회 익산여성영화제 개최



익산YWCA는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제16회 익산여성영화제를 개최하였다. 이번 영화제는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농촌이민여성센터, 전북인아이콤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익산여성의전화 평화바람, 한국문해교육협회와 함께 진행되었으며, (사)익산YWCA는 기후위기를 성찰하는 영화 '바로 지금 여기'와 청소년의 현실을 다룬 '3학년 2학기'를 상영하였다.

상영 후에는 감독과의 대화를 통해 작품의 의미를 나누며 관객들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사라지는 목소리를 비추다'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영화제는 작은 목소리조차 귀 기울여야 함을 일깨우며, 부대 행사로 마련된 친환경 삼푸바 만들기 체험도 큰 호응을 얻었다.

(사)전주YWCA 손예지 팀장

찾아가는 청소년 기후환경에너지학교 운영



전주YWCA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5회에 걸쳐 Y-틴, 지역교회,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총 70여 명의 아동·청소년이 참여한 '찾아가는 기후환경에너지학교'를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후정의와 지구인'을 주제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후정의 실현을 생활 속에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주YWCA 위원들이 직접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강사로 나섰다. 강의에서는 기후약자를 비롯해 개인, 기업, 국가 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는 기후정의의 개념을 다루었으며, 청소년들이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후정의 보드게임도 함께 진행했다.

(사)제주YWCA 황록소 간사

2025 제주시 평화아카데미 개강



제주특별자치도와 (사)제주YWCA가 주최·주관하는 2025 제주시 평화아카데미가 9월 18일(목) 본 회관에서 시작되었다. 이번 평화아카데미는 '세계평화의섬 제주'의 가치를 되새기며 도민들에게 평화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진행되었으며 9월 18일을 시작으로 10월 30일까지 강의식 교육 3회, 체험식 교육 3회 총 6회 교육을 진행했다. 평화아카데미 첫날은 한용길 제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장의 '평화&인권'이라는 주제로 도민과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평화와 인권의 과제를 제시하며 마무리하였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실원기준**: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지원
(예) 요양병원(의료 최고도 환자만 경우), 정신병원(정신건강의학과 포함), 한방병원(한방과 포함), 치과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소득하위 50%이하) 중심

▶ **재산기준**: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

▶ **의료비 부담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신청 가능

소득구간	의료비 부담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자살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2인 가구 이상)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70%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 10% 초과	60%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 20% 초과 개별심사 대상	50%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지원범위

▶ **지원수준**: 본인부담의료비 일부항목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금액의 50~80% 비율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



▶ **지원일수**: 최종 진료일 1년 이내 진료 건 중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의 합산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수 제외)

▶ **지원금액**: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제외항목

▶ 미용·성형, 특·1인실 비용, 간병비, 요양병원 의료비, 도수치료, 중식치료 등 제도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보수형) 등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급

신청 및 문의

▶ **신청** 또는 대리인이 **희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